

韓國漢文教育學會

2021年度 春季學術大會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과서 개발과
적용의 지향 및 교재 개발을 위한
한문 교육콘텐츠의 발굴 및 활용

일시: 2021년 04월 10일(토)

장소: 온라인 진행(Zoom)

주최 및 주관: 한국한문교육학회

韓國漢文教育學會

2021年度 春季學術大會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과서 개발과
적용의 지향 및 교재 개발을 위한
한문 교육콘텐츠의 발굴 및 활용

일시: 2021년 04월 10일(토)

장소: 온라인 진행(Zoom)

주최 및 주관: 한국한문교육학회

韓國漢文教育學會 2021年度 春季 學術大會

1. 대회 주제명 및 일정별 세부 계획

- 가. 기획 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과서 개발과 적용의 지향 및 교재 개발을 위한 한문 교육콘텐츠의 발굴 및 활용
- 나. 개최일시 : 2021년 4월 10일(토), 10:30~17:00
- 다. 장소: 온라인 진행(Zoom)
- 라. 일정별 세부 계획

일정		발 표 및 내 용
1부 사회: 주다감 (원광대) 좌장: 신두환 (안동대)	10:30~10:45	■ 발표주제: 서사 장면의 스냅 기록, 조선 의궤의 내러티브 ■ 발표: 이의강(원광대)
	10:45~11:00	■ 발표주제: 한국 바느질의 전통과 미학: 누비 바느질에 관하여 ■ 발표: 이국진(강원대)
	11:00~11:15	■ 발표주제: 우리 민족의 첫대소리 - 한문 문헌 속의 大笊 ■ 발표: 양원석(고려대)
	11:15~11:30	■ 발표주제: 조선의 의학교과서 신편의학정전의 체계와 판본 연구 ■ 발표: 정경훈(원광대)
	11:30~11:40	중간휴식
	11:40~12:20	종합토론 ■ 좌장: 신두환(안동대) ■ 토론: 이동재(공주대), 유선희(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복식과학학과 교수,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전승교육사), 최식(성균관대), 신요한(공주대)
	12:20~14:00	점심식사
2부 사회: 정경훈 (원광대)	14:00~14:20	■ 기조강연: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교과서 개발과 적용의 지향 ■ 발표: 윤지훈(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20~14:40	■ 발표주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문과 교과서 개발과 적용 논의의 필요성과 과제 ■ 발표: 허철(단국대) / ■ 토론: 김병철(군포고)
	14:40~15:00	■ 발표주제: 언택트 시대에서 본 현행 교과서 체재와 구성 연구 ■ 발표: 김왕규(한국교원대) / ■ 토론: 이군선(원광대)
	15:00~15:20	■ 발표주제: 온택트 시대를 대비한 고등학교 한문 I의 수업 모형 구안 ■ 발표: 심규현(고양고) / ■ 토론: 이성형(공주대)
	15:20~15:30	중간휴식
	15:30~15:50	■ 발표주제: 언택트 시대와 고교학점제를 고려한 자유발행 한문교과서 개발 방안 ■ 발표: 손형태(전북교육정책연구소) / ■ 토론: 양대희(영생고)

	15:50~16:10	■ 발표주제: 漢文科에서 학생 스스로 質問하고 探究하는 學習은 가능한가? ■ 발표: 공민정(두루중) / ■ 토론: 김여명(교원대)
	16:10~16:30	■ 발표주제: 온택트 시대의 새로운 한문교과서 구성을 위한 제재 선정 방안과 실제 적용 ■ 발표: 정효영(등촌중) / ■ 토론: 김은경(성사고)
	16:30~16:50	연구 윤리 교육
	16:50~17:00	폐회식

| 목 차 |

1부

서사 장면의 스냅 기록, 조선 의궤의 내러티브

발표자: 이의강(원광대) / 토론자: 이동재(공주대)

한국 바느질의 전통과 미학 : 누비 바느질에 관하여

발표자: 이국진(강원대) / 유선희(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복식과학학과 교수,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전승교육사)

우리 민족의 젓대소리 - 한문 문헌 속의 大笊

발표자: 양원석(고려대) / 토론자: 최식(성균관대)

조선의 의학교과서 신편의학정전의 체계와 판본 연구

발표자: 정경훈(원광대) / 토론자: 신요한(공주대)

2부

기 조 강 연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교과서 개발과 적용의 지향

발표자: 윤지훈(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문과 교과서 개발과 적용 논의의 필요성과 과제

발표자: 허철(단국대) / 토론자: 김병철(군포고)

언택트 시대에서 본 현행 교과서 체재와 구성 연구

발표자: 김왕규(한국교원대) / 토론자: 이군선(원광대)

온택트 시대를 대비한 고등학교 한문 I의 수업 모형 구안

발표자: 심규현(고양고) / 토론자: 이성형(공주대)

언택트 시대와 고교학점제를 고려한 자유발행 한문교과서 개발 방안

발표자: 손형태(전북교육정책연구소) / 토론자: 양대희(영생고)

漢文科에서 학생 스스로 質問하고 探究하는 學習은 가능한가?

발표자: 공민정(두루중) / 토론자: 김여명(교원대)

온택트 시대의 새로운 한문교과서 구성을 위한 제재 선정 방안과 실제 적용

발표자: 정효영(등촌중) / 토론자: 김은경(성사고)

토론문

1부

서사 장면의 스냅 기록, 조선 의궤의 내러티브

발표자: 이의강(원광대) / 토론자: 이동재(공주대)

한국 바느질의 전통과 미학 : 누비 바느질에 관하여

발표자: 이국진(강원대) / 유선희(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복식과학학과 교수,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전승교육사)

우리 민족의 첫대소리 - 한문 문헌 속의 大笊

발표자: 양원석(고려대) / 토론자: 최식(성균관대)

조선의 의학교과서 신편의학정전의 체계와 판본 연구

발표자: 정경훈(원광대) / 토론자: 신요한(공주대)

서사 장면의 스냅 기록, 조선 의례의 내러티브

이의강(원광대)

<목차>

1. 머리말
2. 순조 무자년 《進爵儀軌附編》 스냅 기록 면모
3. 순조 무자년 《進爵儀軌附編》 呈才 공연의 내러티브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 왕실문화의 대표적 기록물인 儀軌에 대한 연구를 한문교육학회가 마련한 학술회의에서 발표하는 일은 한문교육 활성화 측면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례는 漢文으로 이루어진 기록물임과 동시에 다채로운 圖錄까지 싣고 있으므로 중고생들에게 한문 학습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연구대상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의례는 그 종류가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다. 국왕의 자녀가 출생하여 태실(胎室)을 조성했을 때 그 의식을 기록한 藏胎儀軌,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었을 때 그 의식을 기록한 冊禮都監儀軌, 국왕 또는 왕세자의 혼례 의식을 기록한 嘉禮都監儀軌, 궁중 연회 의식을 기록한 進宴儀軌, 국왕 장례 의식을 기록한 國葬都監儀軌, 실록의 편찬 과정을 기록한 實錄廳儀軌,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의식을 기록한 迎接都監儀軌, 왕실의 족보 수정 과정을 기록한 璿源錄釐正廳儀軌, 왕실의 악기 조성 과정을 기록한 樂器造成廳儀軌, 왕실의 도장 제작에 관한 기록인 寶印所儀軌 등등 조선시대에는 왕실에서 이루어진 거의 모든 중요한 행사를 의례로 남겼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의례 가운데 進饌儀軌의 일종인 순조 무자년(1828, 순조28) 《進爵儀軌附編》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보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孝明世子の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심을 살필 수 있음과 동시에 새로이 창제된 다량의 궁중무용 呈才가 공연되어 한국 공연예술사에서 지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 순조 무자년 《進爵儀軌附編》 스냅 기록 면모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순조 무자년 《進爵儀軌附編》의 책제목에 보이는 ‘附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순조의 왕위 계승권자였던 孝明世子(1809~1830)는 대리청정을 시작한 다음 해인 무자년 1828년 2월에 純元王后의 40세 탄신을 축하하는 잔치를 慈慶殿에서 거행하였는데,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進爵儀軌》이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1일 순조와 순원왕후의 탄신을 기념하는 잔치를 演慶堂에서 또다시 거행하고 이 과정을 《진작의례》에 덧붙여 기록하면서 ‘附編’이라는 이름을 붙여 하나의 책으로 간행하였다. 비교적 가까운 시간에 비슷한 성격의 잔치를 두 차례나 거행했기 때문에 합본하여 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

던 듯하다.

이제 《진작의궤부편》의 스냅 기록 면모를 목차에 따라 일별해 본다.

첫 번째 항목은 잔칫날을 고르는 ‘擇日’이다.

대전과 중궁전계 진작(進爵)하는 정일(正日)은 6월 1일 진시 연경당(演慶堂)에서 설행한다.¹⁾

이 내용은 잔치가 벌어진 날이 6월 1일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왜 6월 1일로 택일했는지에 관하여 밝히지 않고 있는데, 《순조실록》의 기사를 검색해 보면 純元王后의 탄신일은 5월 15일이고 純祖의 탄신일은 6월 18일임을 알 수 있다. 효명세자는 어머니의 탄신일과 아버지의 탄신일 양일 사이의 중간이었던 이 날을 잔칫날로 잡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항목은 잔치를 거행하는 근거가 되었던 효명세자의 지시인 ‘令敎’이다.

무자년(1828, 순조28) 5월 1일.

왕세자가 영(令)하였다.

“금년은 다른 해와 다르기 때문에 정월 초하룻날 이미 경축의 뜻을 올렸다. 그러나 지금 탄신일을 당하여 나 소자의 만수를 기원하는 마음이 응당 어떠하겠는가. 15일 인정전 뜰에서 삼가 백관을 거느리고 치사(致詞)와 표리(表裏)를 직접 올릴 것이니, 해방(該房)은 그리 알라.”²⁾

효명세자가 순원왕후의 40세 탄신일인 5월 15일에 축하의 말씀과 선물을 올리겠다고 잔치 거행을 주관해야 하는 호방 승지와 예방 승지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다. 《순조실록》의 기사를 조사해 보면, 효명세자는 실제로 이날 仁政殿에 나아가 순원왕후에게 축하를 드렸으며, 순조의 탄신일인 6월 18일에도 인정전에 나아가 축하를 드렸다.

세 번째 항목은 효명세자가 순원왕후에게 올렸던 경축의 내용을 기록한 ‘樂章’이다.

「세자가 지은 연경당 진작시의 치어[睿製演慶堂進爵時致語]」

장수를 얻으신 큰 덕은 지극히 융성하여 말로 표현하기 어렵나이다

봄날 어머니께 축하를 드렸는데 지금 다시 화봉인(華封人)의 축하를 드리옵니다

내년에 지금과 같이 경사가 물밀듯 모이소서

북두 자루로 술을 따라 올리오니 남산과 같이 빛나소서

得壽大德，至隆難名。春日慈慶，今辰祝華。來歲如今，吉慶川臻。北斗添酌，南山有光。/

어머니께 축하드린 뒤 성대한 일을 아름답게 보았나이다

장수의 술을 길이 즐기시니 신선 궁궐에 상서로운 구름이 감싸옵니다

만년토록 아름다운 봄 풍경이고 천년토록 길한 시절이소서

보주첨해(寶壽添海)이시고 기복(箕福)은 길이 강령하소서

慈慶餘祝，華觀盛事。長樂壽酒，蓬萊祥雲。萬年韶光，千秋吉辰。寶壽添海，箕福永康。

「세자가 지은 연경당 진작시의 사[睿製演慶堂進爵時詞]」

태평스런 성대한 세상 화봉인의 축하를 드리고 또 술잔을 올리옵니다

하늘 가운데 노인성은 밝게 빛나니 태평의 기상이 있나이다

昇平盛世，祝華又稱觴。天中老人朗，太平有象。/

1)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88p, 大殿中宮殿進爵正日, 六月初一日辰時演慶堂設行.

2)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88p, 戊子五月初一日. 令曰: “今年異於他年, 故正朝已爲稱慶. 而今當誕辰, 余小子祝岡之忱, 尤當如何? 十五日殿庭, 謹當率百官, 親上致詞及表裏, 該房知悉.”

옥 술잔에 장수의 술을 담고 금 쟁반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담았나이다
 상서로운 구름이 열리는 것을 찬란히 구경하니 신령스런 자라가 받치고 있는 삼신산입니다
 玉觴壽酒, 金盤王母桃. 華觀祥雲開, 神山靈龜.

위의 두 내용은 효명세자가 순원왕후의 40세 탄신일을 축하하는 연회 공간이었던 演慶堂에서 불렀던, 각각 2절로 이루어진 2수의 노래이다. 壽·富·多男子를 기원했던 華封人의 고사, 장수를 상징하는 南山, 상전벽해가 무수히 반복되도록 장수를 누리다는 뜻의 寶籌添海의 고사, 인간의 수명 연장을 주관하는 老人星, 3천 년에 한 번 열린다는 西王母의 蟠桃 등등의 고사를 구사하여 나라의 태평성세와 어머니 순원왕후의 무궁한 장수를 기원하고 있다. 효명세자의 지극한 효심을 살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어 축하의 노래와 춤을 바치는 舞童들이 불렀던 노랫말 ‘呈才樂章’을 덧붙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재악장들은 무동들이 부른 노래지만 효명세자가 직접 지은 노랫말이 다수를 차지하여 공연예술사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니므로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네 번째 항목은 잔치가 거행되는 의식 절차를 기록한 ‘儀註’이다.

「연경당진작의(演慶堂進爵儀)」

그 날 내시가 전하의 자리를 연경당 안 북벽의 동쪽 가까이 남향하도록 설치하고, 두 개의 향안(香案)을 기둥 밖 좌우에 설치하고, 대차(大次 왕의 대기 장소)를 동쪽 온돌에 설치한다. 왕비의 자리를 북벽의 서쪽 가까이 남향하도록 설치하고, 향안을 기둥 밖 좌우에 설치하고, 대차를 서쪽 온돌에 설치한다. 왕세자의 자리를 주렴 밖 동쪽 계단 위에 설치하고, 소차(小次 세자의 대기 장소)를 중문 밖 서쪽 가까이 동향하도록 설치하고, 절하는 자리를 주렴 밖 계단 위 가운데 북향하도록 설치한다.……

사찬, 전찬, 전창의 자리를 주렴 안에 설치하는데 남쪽에서 조금 뒤로 물리어 모두 북쪽을 위로 하여 서로 향하게 한다. 악관은 세취악(細吹樂)을 갖추고, 정재(呈才)의 춤을 남쪽 계단 위에서 연행한다. 내시의 거휘위(擧麾位)를 서쪽 계단 위 서쪽 가까이 동향하도록 설치한다.³⁾

이상의 기록은 잔치 주인공들이 앉는 자리 및 대기 장소, 그리고 시설물들을 배치하는 위치, 잔치를 진행하는 실무인원의 자리, 그리고 공연이 거행되는 무대 위치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잔치를 시작하기 전의 의식 절차를 기록하였다.

세 시각 전에 회죽(戲竹)⁴⁾이 악대를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에 나아간다.

두 시각 전에 중사가 왕세자의 소차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내엄(內嚴)⁵⁾을 청하고, 조금 뒤에 또 바깥 준비가 되었음을 아뢴다.

한 시각 전에 중사가 소차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소차에서 나갈 것을 청한다. 왕세자가 익선관과 곤룡포를 입고 나오면, 중사가 앞에서 인도하여 중문을 경유하여 들어가 절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세취(細吹)가 「선인자(先引子)」를 연주하고, 악관이 무원(舞員)을 이끌고 들어가 자리로

3)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90p, 「演慶堂進爵儀」其日, 內侍設殿下座於演慶堂中北壁近東南向, 設香案二於楹外左右, 設大次於東溫堦. 設王妃座於北壁近西南向, 設香案於楹外左右, 設大次於西溫堦. 設王世子座於簾外東階上, 設小次於中門外近西東向, 設拜位於簾外階上當中北向.……設司贊·典贊·典唱位於簾內在南差退俱北上相向. 樂官備細吹樂, 陳呈才舞於南階上. 設內侍擧麾位於西階上近西東向.

4) 정재(呈才)에 사용하는 의장도구의 하나인 죽간자(竹竿子)를 든 사람을 가리킨다.

5) 세자(世子)나 세손(世孫)이 거동할 때에 경계의 신호로 울리는 두 번째 북소리. 임금에게 쓰는 中嚴과 구별하여 이르는 말이다.

나아간다.

상궁이 대차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대차에서 나와 자리에 오를 것을 청한다. 전하가 연복(燕服)을 입고 나가면, 상궁이 전하를 인도하여 자리에 오른다. 상의가 대차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대차에서 나와 자리에 오를 것을 청한다. 왕비가 연복을 입고 나가면, 상의가 왕비를 인도하여 자리에 오른다.⁶⁾

본격적인 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잔치 인원들이 입장하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다. 잔치를 시작하기 세 시각 전에 악대가 자리를 잡고, 두 시각 전에 세자에게 잔치 준비가 모두 끝났음을 알리고, 한 시각 전에 연주되는 음악과 함께 세자가 절을 올려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이때 무동들도 무대인 남쪽 계단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축하를 받는 순조와 순원왕후가 가장 늦게 등장하고 있다.

중사가 ‘국궁·사배·홍·평신’을 청하면, 왕세자가 국궁·사배·홍·평신한다. 음악이 그친다. 무릎 꿇을 것을 청하면, 왕세자가 무릎을 꿇는다.

세취가 「제천악(齊天樂)」을 연주하고, 「망선문(望仙門)」 춤을 올린다. 휘건을 전하와 왕비 앞에 올린다. 음악이 그친다. 세취가 「옥촉신(玉燭新)」을 연주하고, 「경풍도(慶豐圖)」 춤을 올린다. 어찬(御饌)을 전하와 왕비 앞에 올린다. 음악이 그친다. 악관이 치사(致詞)를 아뢰기를 마친다. 세취가 「다려(多麗)」를 연주하고, 「만수무(萬壽舞)」 춤을 올린다. 꽃을 전하와 왕비 앞에 올리고, 꽃을 왕세자 앞에 올린다. ‘부복·홍·평신’을 청하면, 왕세자가 부복·홍·평신한다.……

세취가 「탐춘령(貪春令)」을 연주하고, 「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 춤을 올린다. 찬반(饌盤)을 물린다. 음악이 그친다. 중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다시 절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세취가 「춘효요(春曉謠)」를 연주하고 「무산향(舞山香)」 춤을 올린다.⁷⁾

위의 내용에서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잔치의 면모 하나하나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에게 절을 올리고 꿇어앉는 동작, 악공과 전악 등으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악대가 연주하는 「齊天樂」·「玉燭新」·「多麗」 등의 음악과 그에 맞추어 공연되는 「望仙門」·「慶豐圖」·「萬壽舞」 등의 춤, 그리고 수건을 바치고 음식을 올리고 물리는 등의 의식 절차들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중사가 ‘국궁·사배·홍·평신’을 청하면, 왕세자가 국궁·사배·홍·평신한다. 음악이 그친다. 중사가 무릎 꿇고 연회가 끝났음을 아뢰는다. 세취가 「후인자(後引子)」를 연주한다. 상궁이 무릎 꿇고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계청하면,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오고, 상궁이 전하를 인도하여 안으로 돌아간다. 상의가 무릎 꿇고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계청하면, 왕비가 자리에서 내려오고, 상의가 왕비를 인도하여 안으로 돌아간다. 중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중문으로 나간다. 악관이 무원(舞員)을 이끌고 나가며, 희죽(戲竹)이 악대를 이끌고 나간다.⁸⁾

6)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90p, 前三刻, 戲竹引樂入就位. 前二刻, 中使詣王世子小次前, 跪贊請內嚴, 少頃又白外備. 前一刻, 中使詣小次前, 跪贊請出次, 王世子具翼善冠·袞龍袍以出, 中使前引, 由中門入就拜位. 細吹作先引子, 樂官引舞入就位. 尙宮詣大次前, 跪啓請出次陞座, 殿下具燕服以出, 尙宮導殿下陞座. 尙儀詣大次前, 跪啓請出次陞座, 王妃具燕服以出, 尙儀導王妃陞座.

7)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90p, 中使贊請鞠躬四拜·興·平身, 王世子鞠躬四拜·興·平身. 樂止. 贊請跪, 王世子跪. 細吹作齊天樂, 呈望仙門舞. 進揮巾于殿下·王妃前. 樂止. 細吹作玉燭新, 呈慶豐圖舞. 進御饌于殿下·王妃前. 樂止. 樂官奏詞訖, 細吹作多麗, 呈萬壽舞. 進花于殿下·王妃前, 進花于王世子前. 贊請俯伏·興·平身, 王世子俯伏·興·平身. …中略…細吹作探春令, 呈佳人剪牧丹舞. 退饌盤. 樂止. 中使引王世子還就拜位. 細吹作春曉謠, 呈舞山香舞.

8)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90p, 中使贊請鞠躬四拜·興·平身, 王世子鞠躬四

잔치가 끝나가는 장면을 서술하는 부분이다. 효명세자가 절을 올린 뒤 잔치가 끝나자, 연주되는 음악 속에서 궁녀들의 인도로 순조와 순원왕후가 궁궐로 돌아가고, 춤을 추던 무동과 음악을 연주하던 악관들이 나가고 있다.

이상의 의식 절차는 “自內書下[안에서 써서 내렸다]”⁹⁾라는 기록으로 볼 때, 연경당에서 거행된 잔치의 의식 절차는 예조 관원 등의 실무자에 의해 관례적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효명세자가 직접 꼼꼼히 챙겨 마련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잔치에 올렸던 음식들을 기록한 ‘饌品’이다.

숙설소(熟設所).

연경당에서의 진작(進爵):

대전·중궁전이 드시는 찬안(饌案)에는, 각색 떡 두 그릇, 조약·증병 및 단자·양색산삼 두 그릇, 수면 두 그릇, 약과 두 그릇, 다식과 두 그릇, 각색 다식 두 그릇, 양색 강정 두 그릇, 삼색 매화 연사과 두 그릇, 각색 엿 두 그릇, 용안·여지 두 그릇, 조란·울란·강란 두 그릇, 배[生梨]·살구[丹杏] 두 그릇, 대추·밤 두 그릇, 송백자 두 그릇, 각색 정과 및 삼색 녹두가루 떡 두 그릇, 수정과 두 그릇, 잡탕 두 그릇, 각색 절육 두 그릇, 편육 두 그릇, 양색 저냐 두 그릇, 전복·저태 볶음 두 그릇, 각색 화양적 두 그릇, 꿀 두 그릇, 겨자 두 그릇, 초장 두 그릇 및 상화(床花) 각 18개를 올린다……¹⁰⁾

궁중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 음식을 만드는 주방이 설치된 장소와 규모,¹¹⁾ 잔칫상에 올리는 음식의 종류,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간 식재료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잔칫상을 드렸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어, 순조, 순원왕후, 효명세자, 세자빈 조씨, 明溫公主, 淑善翁主, 淑儀朴氏, 永溫翁主 등의 왕실 인원 8인 및 영명위 洪顯周, 동녕위 金賢根, 영안부원군 金祖淳, 지돈녕부사 趙萬永 등의 외빈 4인이 잔치에 참여한 인원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¹²⁾ 그리고 잔치 공간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던 각종 꽃들도 ‘附綵花’라 하여 함께 기록하였다.

여섯 번째 항목은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도구들을 기록한 ‘器用’이다.

내숙설소(內熟設所)에서 소용되는 것:

흑칠대원반(黑漆大圓盤) 25넛, 흑칠소원반(黑漆小圓盤) 24넛, 황칠대모판[黃漆大隅板] 20넛, 황칠중모판[黃漆中隅板] 10넛, 홍칠모판[紅漆隅板] 8넛, 홍칠박(紅漆朴) 3개, 유기주발덮개[鍮鉢蓋] 14개, 화사발(畫砂鉢) 1죽 4넛, 화탕기(畫湯器) 6넛, 화대접시(畫大樑匙) 2죽 8넛, 화중접시

拜興·平身. 樂止. 中使跪奏宴成. 細吹作後引子, 尙宮跪啓請降座, 殿下降座, 尙宮導殿下還內. 尙儀跪啓請降座, 王妃降座, 尙儀導王妃還內. 中使引王世子出中門. 樂官引舞出, 戲竹引樂出.

9)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90p.

10)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91p. 大殿中宮殿進御饌案: 各色餅二器, 助岳·蒸餅及團子·兩色山樛二器, 水麪二器, 菓食二器, 茶食果二器, 各色茶食二器, 兩色強精二器, 三色梅花軟絲果二器, 各色糖二器, 龍眼·荔枝二器, 棗卵·栗卵·薑卵二器, 生梨·丹杏二器, 大棗·生栗二器, 松柏子二器, 各色正果及三色菰米餅二器, 水正果二器, 雜湯二器, 各色截肉二器, 片肉二器, 兩色煎油花二器, 全鰻·豬胎炒二器, 各色花陽炙二器, 清二器, 芥子二器, 醋醬二器, ○床花各十八箇……

11)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91p. “處所砭愚榭. 五月初五日始役. 設假家二十間于北庭, 訓局舉行.”이라고 하여 숙설소가 설치된 장소는 창덕궁 편우사(砭愚榭)였고 규모는 가건물 20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12)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93p. “戚臣頒賜宴床: 永明尉洪顯周一床, 東寧尉金賢根一床, 永安府院君金祖淳一床, 知敦寧趙萬永一床.”이라 밝히고 있다.

(畫中樑匙) 3죽 2뇌, 화소접시(畫小樑匙) 1죽 6뇌, 화종지[畫鍾子] 1죽 8뇌, 번철(燔鐵) 8좌, 유기자[鑪煮] 3개, 석자(鑿煮) 2개, 유기되[鑪升] 1개, 유행담(柳行擔) 6부, 다판(茶板) 10좌, 도마[刀板] 2좌, 다식판(茶食板) 8개……¹³⁾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할 때 필요한 갖가지 기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쟁반과 모판, 박, 그릇, 접시, 종지, 되, 칼도마 등등이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기물들을 준비하는 부서에 대해서도 “以上內下[이상은 궁 안에서 내려주었다]” 느니, 또는 “以上戶曹[이상은 호조에서 준비했다]” 느니 밝히고 있다.¹⁴⁾

일곱 번째 항목은 잔치 공간의 마련과 관련한 내용인 ‘修理’이다.

연경당(演慶堂)의 보계(補階)는 28칸이고, 별문(別紋)의 지의(地衣)는 4부(浮)이다.¹⁵⁾

補階는 행사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시로 판재를 설치해서 월대를 넓게 확장하여 만든 마루인데, 이때 들어간 재료 및 공급 부서를 “所入紅座板四十二浮, 屯太木三十二箇, 足木六十二箇, 五層踏掌·四層踏掌·二層踏掌各一坐, 以上戶曹[홍좌판 42부, 둔태목 32개, 족목 62개, 5층답장·4층답장·2층답장 각 1좌가 들어갔다. 이상은 호조에서 준비했다.]”¹⁶⁾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地衣는 행사가 거행되는 공간 바닥에 배설하기 위해 여러 장의 돛자리를 잇대어 크게 만들고 무명으로 가장자리를 두른 자리인데, 이때 사용된 4장의 지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재료와 비용을 “所入別紋席五十六張, 縑青木二疋二尺八寸, 細繩一斤八錢. 以上折錢九十七兩六錢.[별문석 56장, 선청무명 2필 2자 8치, 가는 먹줄 1근 8돈이 들어갔다. 이상에 지불한 비용은 돈 97냥 6전이다.]”¹⁷⁾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덟 번째 항목은 잔치를 치르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과 관련한 ‘排設’이다.

연경당(演慶堂) 안팎의 배설(排設):

정당(正堂)의 동온돌(東溫堐)에 별문(別紋) 3 1/4장을 붙인 지의(地衣) 4부, 4 1/2장을 붙인 지의 1부를 아래에 배설했다. 채화석등매(彩花席登每) 2좌, 채화방석(彩花方席) 2좌를 위에 배설했다. 남반침(南半寢)에 별문 7 1/2를 붙인 지의 1부를 배설했다. 북반침(北半寢)에 별문 5 1/4장을 붙인 지의 1부를 배설했다. 대청동퇴(廳東退)에 별문 10 1/2장을 붙인 지의 1부를 배설했다.…… 화룡초[畫龍燭] 1쌍, 쇠금홍초[灑金紅燭] 2쌍, 홍사등롱(紅紗燈籠) 15쌍, 보계(補階) 28칸, 별문 14장을 붙인 지의 4부, 대주렴(大朱簾) 24부, 앞뜰 유둔차일(油氈遮日) 1부, 북처마낙조[北簷落照] 흰무명 차일 1부, 동쪽 뜰 흰무명 큰 차일 1부, 유둔차일 1부, 흰무명 휘장 2부를 배설했다.……¹⁸⁾

13)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94p, 內熟設所所用: 黑漆大圓盤二十五立, 黑漆小圓盤二十四立, 黃漆大隅板二十立, 黃漆中隅板十立, 紅漆隅板八立, 紅漆朴三箇, 鑪鉢蓋十四箇, 畫砂鉢一竹四立, 畫湯器六立, 畫大樑匙二竹八立, 畫中樑匙三竹二立, 畫小樑匙一竹六立, 畫鍾子一竹八立, 燔鐵八坐, 鑪煮三箇, 鑿煮二箇, 鑪升一箇, 柳行擔六部, 茶板十坐, 刀板二坐, 茶食板八箇.……

14)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94p.

15)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95p, 演慶堂補階二十八間, 別紋地衣四浮.

16)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95p.

17)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95p.

18)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95p, 演慶堂內外排設: 正堂東溫堐, 下排別紋三張半張付地衣四浮, 四張半付地衣一浮, 上排彩花席登每二坐, 彩花方席二坐. 南半寢, 別紋七張半付地衣一浮. 北半寢, 別紋五張半張付地衣一浮. 廳東退, 別紋十張半付地衣一浮.……畫龍燭一雙, 灑金紅燭二雙, 紅紗燈籠十五雙. 補階二十八間, 別紋十四張付地衣四浮. 大朱簾二十四浮. 前庭油氈遮日一浮. 北簷落照白木遮日一浮, 東庭白木大遮日一浮, 油氈遮日一浮. 白木揮帳二浮.……

잔치가 거행되는 연경당 정당의 동은돌, 서은돌, 대청 등에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까는 지의, 등매, 방석 등을 비롯하여 촛불, 등롱, 주렴, 차일, 휘장 등등을 배설하고 있음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술잔을 올리기 위해 배설한 자리 및 밤에 別盤果를 올릴 때 배설한 자리 등에 대해서도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

아홉 번째 항목은 잔치의 진행을 돕는 행사 인원을 기록한 ‘儀衛’이다.

연경당진작시 시위각차비(演慶堂進爵時侍衛各差備):

대전: 전도(前導) 상궁 1인, 상식 1인, 사찬 1인, 전찬 1인, 전창 2인이다. 이상 여관 각 차비 6인이다. 계청차비 1인, 수주정차비 1인이다. 이상 내시 각 차비 2원(員)이다.

중궁전: 계청상의 1인, 상식 1인이다. 이상 여관 각 차비 2인이다. 계청차비 1인, 수주정차비 1인이다. 이상 내시 각 차비 2인이다.

세자궁: 승인(承引) 여관 1인이다. 찬청차비 1인, 전인 2인, 주정차비 1인이다. 이상 내시 각 차비 4원이다.¹⁹⁾

잔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순조, 순원왕후, 효명세자를 도와 잔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진행을 돕는 실무 인원들을 기록하고 있다. 궁녀인 전도상궁, 상식, 사찬 등등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참여 인원을 살펴보면 대전의 전도차비가 중궁전의 계청상의를 겸하므로 총 10인이다. 그리고 내시인 각 차비는 작은 글씨로 “金承業, 排設差備兼.[김승업, 배설차비를 겸한다.]”과 같은 방식으로 이름과 담당 역할을 밝혔고, 참여 인원은 대전의 계청차비가 중궁전의 계청차비와 세자궁의 찬청차비를 겸하므로 총 4인이다.²⁰⁾

열 번째 항목은 잔치에서 음악을 담당한 인원과 춤을 추었던 무동을 기록한 ‘工伶’이다.

진작(進爵) 때 전악(典樂): 당건(唐巾)을 쓰고, 자라포(紫羅袍)·황색 바탕에 흑색 선을 두른 중단의[黃質黑縐中單衣]·은야대(銀也帶)·흑화(黑靴)를 착용하였다.

악공(樂工): 족화복두(簇花幘頭)를 쓰고, 녹라포(綠羅袍)·남색 바탕에 흑색 선을 두른 중단의[藍質黑縐中單衣]·금동야대(金銅也帶)·흑화를 착용하였다.

망선문(望仙門) 봉작선(奉雀扇) 무동(舞童): 주취금관(珠翠金冠)을 쓰고, 화금포(花錦袍)·흰색 바탕에 흑색 선을 두른 중단의[白質黑縐中單衣]·남색 바탕에 흑색 선을 두른 치마[藍質黑縐裳]·자사대(紫紗帶)·백우호령(白羽護領)·백우엄요(白羽掩腰)·보대(寶帶)·무우리(無憂履)를 착용하였다.

집당(執幢) 무동: 주취금관을 쓰고, 자라포·흰색 바탕에 흑색 선을 두른 중단의[白質黑縐中單衣]·남색 바탕의 흑색 선을 두른 치마·남사대(藍紗帶)·백우호령·백우엄요·학정대(鶴頂帶)·비두리(飛頭履)를 착용하였다……²¹⁾

잔치가 벌어질 때 음악을 지휘하는 典樂, 음악을 연주하는 악공, 그리고 雀扇과 幢을 들고

19)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96p, 演慶堂進爵時侍衛各差備. 大殿: 前導尚宮一, 尙食一, 司贊一, 典贊一, 典唱二. 以上女官各差備六人. 啓請差備一, 壽酒亭差備一. 以上內侍各差備二員. 中宮殿: 啓請尙儀一, 尙食一. 以上女官各差備二人. 啓請差備一, 壽酒亭差備一. 以上內侍各差備二人. 世子宮: 承引女官一人, 贊請差備一, 前引二, 酒亭差備一. 以上內侍各差備四員.

20)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96p.

21)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96p, 進爵時, 典樂: 戴唐巾, 着紫羅袍黃質黑縐中單衣銀也帶黑靴. 樂工: 戴簇花幘頭, 着綠羅袍藍質黑縐中單衣金銅也帶黑靴. 望仙門奉雀扇舞童: 戴珠翠金冠, 着花錦袍白質黑縐中單衣藍質黑縐裳紫紗帶白羽護領白羽掩腰寶帶無憂履. 執幢舞童: 戴珠翠金冠, 着紫羅袍白質黑縐中單衣藍質黑縐裳藍紗帶白羽護領白羽掩腰鶴頂帶飛頭履……

춤을 추는 舞童들의 복색을 모자에서부터 상의, 하의, 허리띠, 그리고 신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공령의 하위 항목에는 정재를 공연할 때 음악을 담당했던 악공과 연주 악기 및 인원수, 그리고 각각의 정재를 공연한 무동의 인원수를 제시하고 있다.

연경당(演慶堂) 진작 때 정재각차비(呈才各差備):

집박악사(執拍樂師) 김창하(金昌河), 전악(典樂) 유건무(柳建茂), 필률차비(箏策差備) 4인, 대금차비(大琴差備) 2인, 비파차비(琵琶差備) 1인, 해금차비(奚琴差備) 1인, 방향차비(方響差備) 1인, 장고차비(杖鼓差備) 1인, 현금차비(玄琴差備) 1인, 가야금차비(伽倻琴差備) 1인, 아쟁차비(牙箏差備) 1인, 당금차비(唐琴差備) 1인, 교방고차비(敎坊鼓差備) 1인, 갈고차비(羯鼓差備) 1인이다.

○ 망선문(望仙門) 정재무동(呈才舞童): 봉작선(奉雀扇) 4인, 집당(執幢) 2인이다.

○ 경풍도(慶豐圖) 정재무동: 무(舞) 5인, 봉경풍도(奉慶豐圖) 1인이다.……²²⁾

음악을 지휘하는 집박악사와 전악에 대해서는 ‘金昌河’와 ‘柳建茂’라고 이름을 드러내어 기록하였고, 나머지 악공과 무동의 이름은 작은 글씨의 주석으로 밝히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인원은 18인에 이르렀고, 춤을 추었던 무동은 10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²³⁾

열한 번째 항목은 잔치 진행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내리는 상을 기록한 ‘賞典’이다.

진작 때 차지중사 김승업(金承業), 감관 진동석(秦東奭), 패장 우홍정(禹弘鼎)·박도성(朴道性)·손대형(孫大亨), 책응감관 김종식(金宗軾), 별무사 김창련(金昌鍊)은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별무사 맹창손(孟昌孫)은 본국 기패관으로 승차(陞差)하였다.

무예청 금홍진(金弘振) 등 9인과 서고(書庫) 전관수(全觀洙) 등 11명은 각 무명 2필을, 사환 순뢰 한용국(韓龍國) 등 23명은 각 무명 1필·베 1필을, 숙수(熟手) 백대봉(白大鳳) 등 48명은 각 무명 2필을, 작실군 신만손(申萬孫) 등 5명·병풍장 정도흥(鄭道興) 등 2명·수직간군사 3명·수공(水工) 2명·취반군 18명은 각 베 1필을 지급하였다. 전악 김창하(金昌河)·유건무(柳建茂)는 모두 체가자(帖加資)하였다.²⁴⁾

잔치를 거행할 때의 노고에 따라 각각 차등 있게 시상하고 있다. 加資는 資級을 올려 주는 포상이고, 帖加資는 벼슬을 주면서 정식 발령은 내지 않고 임명장인 帖紙만을 주는 포상이다. 그리고 포상하는 무명과 포는 모두 훈련도감에서 나누어준다는 내용이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다.²⁵⁾

22)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97p, 演慶堂進爵時呈才各差備: 執拍樂師金昌河, 典樂柳建茂, 箏策差備四, 大琴差備二, 琵琶差備一, 奚琴差備一, 方響差備一, 杖鼓差備一, 玄琴差備一, 伽倻琴差備一, 牙箏差備一, 唐琴差備一, 敎坊鼓差備一, 羯鼓差備一. 望仙門呈才舞童, 奉雀扇四, 執幢二. ○慶豐圖呈才舞童, 舞五, 奉慶豐圖一……

23) ‘呈才各差備’에 기록되어 있는 무동의 이름을 분석해 본 결과 金亨植, 秦大吉, 辛光協, 秦啓業, 金命豐, 辛三孫, 金元植, 徐鶴範, 安得俊, 車宗福 등의 10인이었다. 이들이 춤을 춘 회수는 크게 차이가 있어 金亨植은 가장 많은 22회, 秦大吉은 20회, 秦啓業과 辛光協은 각각 17회, 金命豐은 16회, 辛三孫은 15회를 추었으며 金元植, 徐鶴範, 安得俊, 車宗福 등 4인은 1회를 추었을 뿐이었다.

24)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97p, 進爵時次知中使金承業, 監官秦東奭, 牌將禹弘鼎·朴道性·孫大亨, 策應監官金宗軾, 別武士 金昌鍊, 並加資. 別武士孟昌孫, 本局旗牌官陞差. 武藝廳金弘振等九人·書庫全觀洙等十一名, 各木二疋. 使喚巡牢韓龍國等二十三名, 各木一疋·布一疋. 熟手白大鳳等四十八名, 各木二疋. 作實軍申萬孫等五名·屏風匠鄭道興等二名·守直間軍士三名·水工二名·炊飯軍十八名, 各布一疋. 典樂金昌河·柳建茂, 並帖加.

25)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97p, 以上木布, 並自訓鍊都監頒給.

지금까지 잔치의 거행 면모를 기록한 11개 항목을 각각 살펴보았는데, 이들 하나하나를 진행되는 한 편의 이야기에 대한 서사 장면의 스냅 기록들이라 이해할 수 있다. ‘택일’과 ‘영교’는 이야기의 발단이고, ‘악장’과 ‘의주’는 본격적인 이야기 전개에 스냅 기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찬품’·‘기용’·‘수리’·‘배설’·‘의위’·‘공령’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 공간, 복장, 역할 등등에 대한 스냅 기록이라 할 수 있고, ‘상전’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사례를 기록한 스냅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스냅 기록들을 통하여 근 2백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이야기에 등장하는 왕과 왕비 및 세자와 세자빈 4인, 공주 등의 내빈 4인, 외빈 4인, 궁녀 10인, 내시 4인, 악관 18인, 무동 10인 총 54인이 어떻게 대화하고 행동하여 잔치를 거행했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본 것처럼 파악할 수 있다. 순조 무자년 《진작의궤부편》은 효성심이 지극했던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의 탄신일을 축하하며 장수를 기원했던 실제 행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한 권의 사진첩이라고 총평할 수 있다.

3. 순조 무자년 《進爵儀軌附編》 呈才 공연의 내러티브

순조 무자년 《진작의궤》 卷首에는 잔치 무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한 판의 잔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었던 인물들의 명단인 ‘座目’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잔치를 받고 잔치를 거행하고 잔치를 돕는 등장인물들이 자리한 위치를 보여주는 「演慶堂進爵班次圖」, 잔치가 벌어지는 공간을 보여주는 「演慶堂圖」,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에게 헌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演慶堂進爵圖」, 춤추는 장면을 보여주는 「呈才圖」, 꽃장식을 보여주는 「綵花圖」 등등의 ‘圖式’이 수록되어 있다.

呈才는 ‘재주를 드린다’는 뜻으로 무용수가 음악의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면서 재주를 드리는 공연활동이다. 정제는 樂-歌-舞가 어우러진 공연이지만 무게 중심은 무용에 있기 때문에 궁중연회에서 연행되었던 궁중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제부터는 순조 무자년 舞童 10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呈才 공연을 분석해보도록 한다. 《진작의궤부편》의 「儀註」와 「演慶堂進爵時呈才各差備」 내용에 의거하여 呈才 공연 면모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연 정제	예제 악장	의식	진행인	연주 음악	무동
(1) 망선문 (望仙門)	○	· 휘건을 전하와 왕비께 올림	상식 (尙食)	제천악 (齊天樂)	봉작선(奉雀扇) 4인:신삼손·신광협·김명풍·진계업 집당(執幢) 2인:진대길·김형식
(2) 경풍도 (慶豐圖)	○	· 어찬(御饌)을 올림	상식	옥촉신 (玉燭新)	무(舞) 5인:진대길·신광협·김명풍·진계업·김형식 봉경풍도(奉慶豐圖) 1인:신삼손
(3) 만수무 (萬壽舞)	○	· 꽃을 올림 · 전하께 술잔을 올림	상식 세자	다려 (多麗)	무 4인:진대길·김명풍·진계업·김형식 봉선도반(奉仙桃盤) 1인:신삼손 봉족자(三奉簇子) 1인:신광협

4. 헌천화 (獻天花)	○	· 술을 마심	전하	경춘궁 (慶春宮)	무 2인:김형식·진대길 집당 2인:신광협·김명풍 봉화병(奉花瓶) 1인:진계업
5. 춘대옥촉 (春臺玉燭)	○	· 왕비께 술잔을 올림	세자	보살만 (菩薩慢)	집등 4인:진대길·진계업·신삼손· 김형식 집당 2인:김명풍·신광협
6. 보상무 (寶相舞)	○	· 술을 마심	왕비	기라향 (綺羅香)	무 6인:진대길·신삼손·신광협· 김명풍·진계업·김형식
7. 향령무 (響鈴舞)	×	· 별미(別味)를 올림	상식	옥련환 (玉聯環)	무 6인:진대길·신삼손·신광협·김명풍· 진계업·김형식
8. 영지무 (影池舞)	○	· 탕(湯)을 올림	상식	성성만 (聲聲慢)	무 6인:진대길·신삼손·신광협·김명풍· 진계업·김형식
9. 박집무 (撲蝶舞)	○	· 차를 올림	상식	만정방 (滿庭芳)	무 6인:진대길·신삼손·신광협·김명풍· 진계업·김형식
10. 침향춘 (沉香春)	×	· 휘건을 올림	상식	청평악 (淸平樂)	무 2인:진대길·김형식
11. 연화무 (蓮花舞)	×	· 찬반(饌盤)을 올림	상식	천향 (天香)	무 6인:진대길·신삼손·신광협·김명풍· 진계업·김형식
12. 춘앵전 (春鶯轉)	○	· 술을 올림	상식	춘앵전 (春鶯轉)	무 1인:김형식
13. 춘광호 (春光好)	×	· 탕을 올림	상식	자고천 (鷓鴣天)	무 6인:진대길·신삼손·신광협·김명풍· 진계업·김형식
14. 침승무 (疊勝舞)	○	· 차를 올림	상식	목란화만 (木蘭花慢)	무 6인:진대길·신삼손·신광협·김명풍· 진계업·김형식
15. 최화무 (催花舞)	×	· 어찬(御饌)을 물림	상식	염노교 (念奴嬌)	무 6인:진대길·신삼손·신광협·김명풍· 진계업·김형식
16.佳人전목 단(佳人剪 牡丹)	×	· 찬반을 물림	상식	탐춘령 (貪春令)	무 4인:진대길·진계업·김형식·신삼손
17. 무산향 (舞山香)	○	· 마무리 인사	세자	춘효요 (春曉謠)	무 1인:김형식

연경당에서 거행되었던 정재 공연을 정리한 위 내용에서 세 가지 공연예술사적 의의를 읽을 수 있다.

첫째, 위 표에 열거된 17종 정재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정재들로 이날 연경당에서 최초로 공연하였다.

1493년에 편찬된 《樂學軌範》에 수록된 獻仙桃, 壽延長, 五羊仙 등등의 唐樂呈才 및 保太平, 定大業, 鳳來儀 등등의 鄉樂呈才와 비교해 보면, 위 표에 보이는 정재 종목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 공연이 있기 4개월 전인 慈慶殿進爵禮 때 공연되었던 廣袖舞, 牙拍舞, 響鉦舞, 壽延長, 尖袖舞, 舞鼓, 拋毬樂, 處龍舞의 8종 정재와 비교해 보아도 역시 모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의 표에 보이는 정재 종목들은 모두 새로이 창제되어 이날 잔치에서 최초로 공연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위 표에 열거된 17종 정재를 효명세자가 안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11종의 정재

에 대한 노랫말은 효명세자가 직접 창작하였다.

《진작의궤부편》 「樂章」의 ‘呈才樂章’을 살펴보면, 김향춘, 연화무, 춘광호, 최화무, 가인전목단의 5종 정재에 대해서는 그 악장이 睿製가 아님을 밝히고 있으며, 향령무에 대해서는 “只呈才而不呈唱詞.[정재만 올리고 노랫말을 창하지 않았다.]”²⁶⁾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에 나머지 11종의 정재 악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睿製임을 밝혀 ‘睿製望仙門’, ‘睿製慶豐圖’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제 악장이라 밝힌 망선문, 경풍도, 만수무, 헌천화 등등 11종의 정재 종목들은 노랫말은 효명세자가 지었고, 안무는 당시의 執拍樂師였던 金昌河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²⁷⁾

셋째, 위 표에 열거된 17종 정재의 공연은 효명세자가 고도의 연출의식을 가지고 내적 맥락이 이어지도록 안배하였다.

효명세자 이전까지는 연회를 베풀 때 정재 공연 순서를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의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正祖는 즉위 20년째인 1795년 윤2월 華城에 행차했을 때 환갑을 맞이한 모친 惠慶宮洪氏를 경축하기 위해 화성의 奉壽堂에서 대규모의 연회를 거행하였는데, “凡進宴自都監列書各樣呈才, 入啓受點, 而今番進饌, 則因下教, 自整理所稟旨磨鍊舉行.[무릇 진연은 도감에서 각종 정재를 나열해 써서 입계하여 낙점을 받는데, 이번 진찬은 하교로 인하여 정리소(整理所)에서 품지하여 마련해 거행했다.]”²⁸⁾이라고 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실무자 선에서 정재 정목의 안배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효명세자는 그렇지 아니하여, “呈才因下令, 磨鍊舉行.[정재는 하령을 인하여 마련해 거행하였다.]”²⁹⁾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직접 정재 공연 순서를 안배하였다. 그렇다면 효명세자가 위의 표에서처럼 직접 정재를 안배하여 공연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이 점에 대해 분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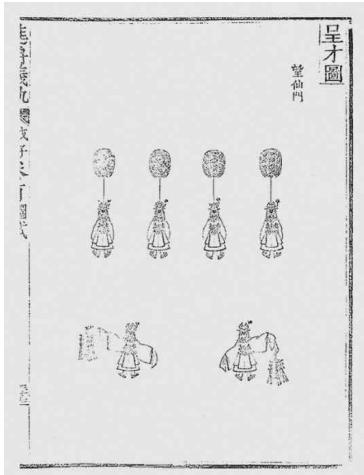
표에서 가장 먼저 제시된 망선문의 공연 면모를 살펴보자. 《진작의궤》 권수 도식에 제시된 망선문의 대오는 다음과 같다.

26)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89p.

27) 함화진(咸和鎭)의 『악인열전(樂人列傳)』에 “金昌河 선생은 순조조 樂師로 金宗南의 叔父이며, 金寧濟의 從曾祖이다. 선생은 특별히 무용에 천재가 비상하였다. 文祖朝(추존 : 翼宗) 동궁대리시에 총애를 받아 樂人 중 우량자로 樂團을 조직하고 궁중에 晝夜로 入直케 하여 時時로 어진 奏樂케 하였으니, 이 악단을 九猴官이라 하고 선생을 九猴監官이라 칭하였다.…… 다수한 정재를 창작하심에 당하여 선생은 문조를 보좌하여 佳人剪牧丹寶相舞春鶯囀長生寶宴之舞 외에 다수한 정재를 창작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성기숙의 논문 「김창하의 예술과 업적」(『무용예술학연구』 제7집, 2001 봄)이 참고가 된다.

28) 『園幸乙卯整理儀軌』, 권1, 「呈才樂章」 조의 주석, 수원시 발행 원전, 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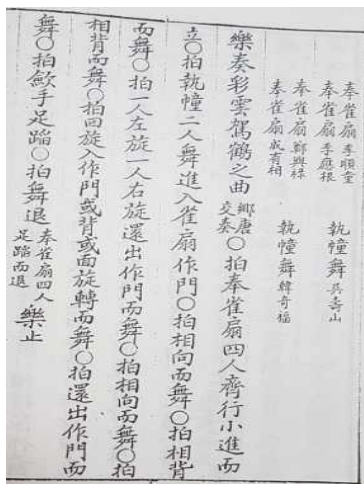
29)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88p.



.....《進爵儀軌》 呈才圖³⁰⁾

위 도식과 ‘呈才各差備’ 내용을 참고하면, 무동 신삼손·신광협·김명풍·진계업 4인이 雀扇을 받들고 진대길·김형식 2인이 執幢하고 춤을 추었음을 파악할 수 있는데, 구체적 춤동작은 파악할 수 없다.

어떠한 춤동작으로 ‘신선을 문에서 기다린다’는 내용을 표현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경당 공연을 위한 笏記는 아니지만 《회작시녀령각정재무도홀기》에 수록된 망선문의 춤동작을 살펴본다.



.....《呈才舞圖笏記》 望仙門³¹⁾

위 내용을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 <望仙門(망선문)>

樂奏彩雲駕鶴之曲 鄉唐交奏 음악은 <채운가학지곡>을 연주한다. <향당교주>이다.

○ 拍 박을 친다.

30) 국립국악원, 『進爵儀軌』(戊子), 『韓國音樂學資料叢書3』, 1981, 39p.

31) 국학진흥연구사업운영위원회, 《呈才舞圖笏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452p.

奉雀扇四人 齊行小進而立 작선을 든 4인이 나란히 줄지어 나아가 선다.
○ 拍 박을 친다.
執幢二人 舞進入雀扇作門 집당 2인이 춤추며 작선으로 만든 문으로 들어간다.
○ 拍 박을 친다.
相向而舞 서로 향하여 춤춘다.
○ 拍 박을 친다.
相背而舞 서로 등지고 춤춘다.
○ 拍 박을 친다.
一人左旋 一人右旋 還出作門而舞 1인은 왼쪽으로 돌고 1인은 오른쪽으로 돌아 다시 작선으로 만든 문을 나오며 춤춘다.
○ 拍 박을 친다.
相向而舞 서로 향하여 춤춘다.
○ 拍 박을 친다.
相背而舞 서로 등지고 춤춘다.
○ 拍 박을 친다.
回旋入作門 或背或面 旋轉而舞 돌면서 작문으로 들어간다. 혹은 등지고 혹은 대면하여 선전하면서 춤춘다.
○ 拍 박을 친다.
還出作門而舞 다시 작문을 나오며 춤춘다.
○ 拍 박을 친다.
斂手足蹈 염수하고 족도한다.
○ 拍 박을 친다.
舞退 奉雀扇四人 足蹈而退 樂止 춤추며 물러난다. 작선을 받든 4인이 족도하며 물러난다. 음악이 그친다.

위 번역문을 읽어 보면, 무동인 집당 2인이 작선으로 만든 문으로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서 춤을 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누군가를 초조히 기다리며 문을 들락거리는 내용의 춤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 사정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이에 무동들이 춤을 추면서 함께 불렀던 효명세자가 지은 노랫말을 읽어보아야 하는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丹霄九重閭闔通, 상제가 계시는 구중의 하늘은 하늘문[閭闔]으로 통해 있고
寶殿雲端天香近, 구름 속으로 치솟은 아름다운 궁전은 천상의 향기와 가까워
這乘鶴仙子來. 이 학을 탄 신선께서 내려올 것이옵니다

이 노랫말을 듣고 춤동작을 구경하면 비로소 춤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파악된다. 신선이 상제가 계시는 하늘로부터 연회가 베풀어지는 공간인 궁궐로 내려와 태평성대를 이룩한 순조와 순원왕후에 대해 축복해주기를 기다리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망선문에 대한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각각의 정재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해당 정재의 노랫말 악장을 읽어서 파악해야 가장 확실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연경당에서 공연되었던 17종 정재의 노랫말 내용을 분석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²⁾

32) 이 악장의 내용 분석은 줄고 「악장으로 읽어보는 효명세자의 ‘정재’ 연출 의식」, 『한문학보』 12집, 464~481p 참고.

공연 정제	예제 악장의 내용
(1) 망선문(望仙門)	태평성대를 이룩한 국왕과 왕비의 공덕을 칭송할 신선의 출현을 기다린다.
(2) 경풍도(慶豐圖)	신선이 내려와 풍년을 기원하는 「경풍도」를 바치며 노래부른다.
(3) 만수무(萬壽舞)	효명세자를 비롯한 신하들은 충성을 다짐하고 신선은 장수를 축원한다.
4. 헌천화(獻天花)	문무백관 신하들이 국왕과 왕비의 無病을 기원한다.
5. 춘대옥촉(春臺玉燭)	춘대에서 태평성세를 즐기기 위해 베푼 잔치에 신선들까지 출현하여 함께 즐기며 축수한다.
6. 보상무(寶相舞)	곱게 단장한 미녀들이 연회에 참가해 음악에 맞추어 춤추고 보상놀이를 한다.
7. 향령무(響鈴舞)	[악장 없이 춤만 추었음.]
8. 영지무(影池舞)	신선이 물에 비친 달그림자를 감상하며 춤을 춘다.
9. 박접무(撲蝶舞)	花朝日을 맞이하여 나비를 잡는 미녀는 꽃처럼 아름답다.
10. 침향춘(沉香春)	봄을 맞아 沈香亭에 피어있는 모란은 양귀비처럼 아름답다.
11. 연화무(蓮花舞)	西湖에 피어있는 연꽃들은 삼천 궁녀처럼 아름답다.
12. 춘앵전(春鶯轉)	꽃 앞에서 재롱떠는 찰싹이가 아름다워 임금도 넋을 놓고 바라본다.
13. 춘광호(春光好)	비바람 치던 봄 날씨가 화창하게 개어 상쾌하다.
14. 첩승무(疊勝舞)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모아놓은 궁궐 후원에서 봄을 즐기니 행복하기만 하다.
15. 최화무(催花舞)	음악 소리에 피어난 꽃나무 아래에서 궁녀들이 춤추며 논다.
16.佳人剪牧丹)	춤추는 미녀들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관람하던 군왕마저 감정이 동하여 운우지락을 꿈꾸게 된다.
17. 무산향(舞山香)	동료 무원들과 함께 춤추던 한 궁녀가 잔치가 끝난 뒤 군왕과 단둘이 자리를 가진다.

위와 같이 악장 노랫말의 내용을 요약하고 일별해 보면, 연경당에서 공연된 정제의 서사성 곧 내러티브를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태평성세를 누리는 신하들은 신선의 출현을 기다리고[(1)望仙門], 출현한 신선은 나라의 풍년과[(2)慶豐圖] 국왕의 장수와[(3)萬壽舞] 무병을 기원하고[(4)獻天花], 이어 임금과 신하들의 연회에 참석하여 함께 즐기게 된다[(5)春臺玉燭]. 구체적 연회의 모습으로 단체 놀이와[(6)寶相舞, (7)響鈴舞] 개인 놀이가[(8)影池, (9)撲蝶] 제시되며, 심미 대상인 홀로 피어 있는 꽃과[(10)沉香春] 무리 지어 피어 있는 꽃을[(11)蓮花舞] 표현하고, 꽃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새를[(12)春鶯轉] 표현하며, 이어 사람의 마음을 산뜻하게 해주는 화창한 날씨를[(13)春光好] 표현한다. 그런 뒤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러 궁궐 후원에서 봄놀이하는 궁녀들의 꿈결같은 생활이[(14)疊勝, (15)催花舞] 표현되고, 최후로 이를 관람한 군왕에게 일어나는 성적 충동이[(16)佳人剪牧丹] 표현되고, 이어 가장 아름다운 미인과 군왕 단둘이 갖는 자리가[(17)舞山香] 함축적으로 표현되는 순서로 한 편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³³⁾

이상의 내러티브 분석을 통하여 효명세자의 정제 종목 안배는 이전 연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도의 예술적 연출이었음을 알 수 있다. 효명세자에 의해서 연출된 연경당 정제 공연

33) 이의강, 「19세기 초 궁중무용의 미학적 전환」, 『한국 춤의 전개양상』,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11, 125p.

은 보면서 즐기는 춤으로 미학적 전환이 이루어진 획기적 공연이었다. 이제 정재 공연은 한갓 잔치의 분위기나 띄우던 附庸의 지위에서 벗어나 공연예술로서의 독자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총평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의궤 가운데 궁중에서 잔치를 치른 뒤 그 과정을 정리한 순조 무자년 《진작의궤부편》을 분석하여 의궤가 가지는 스냅 기록으로서의 성격과 정재 공연이 갖는 내적 맥락을 규명하였다. 《진작의궤부편》은 효심이 지극했던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의 탄신일을 축하하며 장수를 기원했던 실제 행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한 권의 사진첩이었으며, 효명세자에 의해서 연출된 연경당 정재 공연은 한 편의 이야기를 구성하여 보면서 즐기는 춤으로 미학적 전환이 이루어진 획기적 공연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도출은 한문으로 이루어진 원전자료를 독해하는 것이 첫출발이었다는 점에서 한문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문교육을 충분히 받은 연구자들은 무용사뿐만 아니라, 미술사, 복식사, 음식사, 건축사 등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한문독해능력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신성한 사업의 하나인 것이다.

한국 바느질의 전통과 미학 : 누비 바느질에 관하여

이국진(강원대)

별지

우리 민족의 첫대 소리

－ 한문 문헌 속의 大笊 －

양원석¹⁾

目次

- I. 서론
- II. 大笊의 명칭 : 첫대, 橫笛, 大笊
- III. 大笊의 상징 : 萬波停息, 表正萬方, 堯天舜日
- IV. 大笊의 기록 : ‘大笊’과 ‘橫笛’
- V. 결론

I. 서론

이번 2021년 한국한문교육학회 학술대회의 기획 주제 중 하나는 ‘교재 개발을 위한 고전 속 한류 기반 한문 교육콘텐츠의 발굴 및 활용’이며, 이는 “선인들이 생산하고 전승하여 한문 고전에 기록된 인문 문화 분야 유무형 유산 가운데, 세계적 가치를 지녀 대중과 미래 세대에 소개할 만한 지식콘텐츠를 발굴하고 조직하여 활용할 방안을 찾아보자”²⁾는 취지이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우리 전통 악기 중 大笊를 주제로 삼아 이를 문화콘텐츠(Culture Contents)로 구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이와 관련된 한문 문헌의 기록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즉 대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록들이 있는지, 그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콘텐츠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이것을 문화콘텐츠로 가공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또 문화콘텐츠로 가공할 경우 이에 일조하고자 한다.

우리의 전통 악기 중에서 何必 대금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널리 알려진 萬波息笛 설화와 관련이 있는 등 우리 민족에게 신비함과 친근함을 더해 주는 악기이며, 신라시대부터 현재까지 전통 음악 연주에서 기준음을 잡는 중요한 악기의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의 笛子和 공통점도 있고 차별성도 있어서 동아시아의 보편성과 우리 민족의 특징을 동시에 잘 드러내는 악기이기 때문에, 고전 속 한류 기반 문화콘텐츠의 소재로 삼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금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한국음악 전공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또한 음악 관련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문 문헌에 등장하는 대금, 즉 문헌 기록으로서의 대금에 대

1)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 yang1st@korea.ac.kr

2) 2020년 11월 29일, 한국한문교육학회 기획 주제 취지문 중 일부 내용 발췌.

한 연구는 소수의 몇 편이 있을 뿐이다.³⁾

본문에서는 대금의 음악적인 내용이 아닌 대금 관련 문헌 기록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大笏, 橫笛, 젓대 등의 용어에 대한 고찰, 萬波息笛 설화 및 대금 연주곡의 명칭에 대한 검토, 그리고 한문 문헌 속에서 볼 수 있는 대금 관련 기록의 특징 등에 대해 탐색해 보겠다.

II. 大笏의 명칭 : 젓대, 橫笛, 大笏

대금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大笏’ 외에도 ‘젓대’, ‘橫笛’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용어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젓대, 橫笛

‘젓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저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고, 또 음악용어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목관 악기 가운데 하나. 삼금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목은 황죽(黃竹)이나 쌍골죽으로 만든다. 음역(音域)이 넓어서 다른 악기의 음정을 잡아 주는 구실을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가로로 대고 부는 악기인 저를 속되게 이르는 말. 특히 대금(大琴)⁴⁾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가로로 부는 악기 ‘저’와 일상적이고 속되게 이를 때 쓰는 ‘대’가 더해져서 ‘젓대’로 불렸다고 할 수 있다. ‘저’와 ‘대’의 의미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저’의 역사적 변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5세기~17세기	:
.....
.....	15세기~19세기	:
.....
.....	17세기~19세기	:
.....
.....	19세기~현재	:
.....

‘덜’은 한자 笛을 음제한 것이며 15세기부터 ‘덜’과 ‘더’의 형태로 쓰이다가, 18세기에 ‘ㄷ구개음화’ 현상에 따라 ‘저’로 변하였고, 19세기에 이르러 ‘저’와 ‘저’의 소리

3) 문주석(2006), 「신라대금형성고」, 『민족문화논총』,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남재철(2008), 「新羅玉笛 고증」, 『동방한문학』 37, 동방한문학회 등. ; 박은옥(2013),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 초기의 횡취 관악기에 대한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51, 한국음악사학회.

4) ‘대금(大琴)’의 琴은 誤字. 笏이 맞는 글자임.

구별이 사라지면서 ‘저’ 형태가 등장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⁵⁾ 즉 ‘저’는 ‘笛’을 뜻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대’는 ‘가늘고 긴 막대’를 뜻하는 것으로 ‘낙싯대’, ‘담뱃대’ 등의 용례에서도 볼 수 있다. ‘낙싯대’는 낙시를 하는데 사용하는 긴 막대, ‘담뱃대’는 담배를 피는데 사용하는 긴 막대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상적이고 속되게 이를 때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한자 ‘笛’을 음차한 ‘저’와 ‘가늘고 긴 막대’를 뜻하는 ‘대’가 결합하되 사이시옷이 첨가된 형태가 ‘젓대’이며, 이는 ‘가로로 부는 악기’를 뜻하며 또 통상적으로 ‘대금’을 의미한다.

한문 문헌에는 대금을 지칭하는 용어로 橫笛도 많이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가로로 부는 악기’ 즉 ‘젓대’를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 곧 橫笛이다. 또는 橫笛이라는 어휘가 먼저 사용되었고 이를 우리말로 ‘젓대’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

2) 大箏

大箏에 쓰인 ‘箏’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箏은 의미 요소로 쓰인 ‘竹’과 소리 요소로 쓰인 ‘今’이 결합한 形聲字이다. 즉 義符인 竹을 통해 대금을 만드는 재료가 대나무임을 알 수 있으며, 聲符 ‘今’은 ‘금’이라는 음만 나타낼 뿐 의미 요소로 쓰이지는 않았다.

箏은 중국에서 『廣韻』·『集韻』 등의 운서와 『康熙字典』 등의 자서에 보이며, ‘竹名’ 또는 ‘古書上說的一種竹’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운서와 자서에만 보일 뿐 일반적인 문헌에 자주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악기의 이름으로 쓰인 용례는 찾을 수 없다.

한편 한국에서 箏은 大箏, 中箏, 小箏 등과 같이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를 의미할 때 주로 쓰이고 있다. 즉 箏은 한국과 중국에서 각기 다른 引申義⁶⁾를 가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문헌에서 대금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三國史記』 雜志 第一 「祭祀, 樂」에서 볼 수 있다.

신라의 음악은 三竹, 三絃, 拍板, 大鼓, 歌舞가 있다. … 三絃은 첫째 玄琴, 둘째 加耶琴, 셋째 琵琶이다. 三竹은 첫째 大箏, 둘째 中箏, 셋째 小箏이다.⁷⁾

여기에서 신라의 음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三竹 즉 세 가지 관악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5) 이상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을 요약한 것임.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을 인용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현대 국어 ‘저’의 옛말인 ‘덜’은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덜’은 중국어 ‘笛’을 차용한 어휘이다. ‘덜’은 모음이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끝소리 ‘ㅎ’이 나타나지만, 그 밖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이나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ㅎ’이 탈락하여 ‘덜/더’의 이형태 교체를 보였다. 그런데 이미 15세기에 ‘더와’와 같이 끝소리 ‘ㅎ’이 완전히 탈락한 ‘더’의 예도 나타났다. 18세기에는 ‘ㅣ’ 모음이나 반모음 y 앞에서 ‘ㄷ’이 ‘ㅈ’으로 변하는 ㄷ구개음화 현상에 따라 ‘더>저’로 변화하였다. 본래 치경음이었던 ‘ㅈ, ㅊ’이 근대국어 시기에 경구개음으로 변화하여 ‘저’와 ‘저’의 소리 구별이 사라지면서 19세기에는 현대 국어와 같은 ‘저’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6) 引申義는 ‘本義와 의미적 관련성을 가지면서 파생된 의미’이다.

7) 『三國史記』 雜志 第一 「祭祀, 樂」: 新羅樂. 三竹, 三絃, 拍板, 大鼓, 歌舞. …… 三絃, 一玄琴, 二加耶琴, 三琵琶. 三竹, 一大箏, 二中箏, 三小箏.

이 삼죽이 곧 大箏, 中箏, 小箏이다. 삼죽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다음 기록에서 볼 수 있다.

三竹은 역시 당나라의 笛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風俗通』에서 “笛은 漢武帝때 丘仲이 만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시 고찰하여 보면 宋玉의 작품에 『笛賦』가 있는데 송옥은 漢나라 이전 사람이니 이 설은 옳지 않은 듯하다. 馬融은 “근대의 雙笛은 羌族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笛은 ‘씻다’의 뜻이니 간사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 버리고 맑고 바른 데로 인도하자는 것이다. 길이는 한 자이며 47개의 구멍이 있다.”고 하였다. 鄉三竹은 역시 신라에서 시작되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 …… 三竹笛에는 일곱 조가 있는데 첫째는 平調, 둘째는 黃鐘調, 셋째는 二雅調, 넷째는 越調, 다섯째는 般涉調, 여섯째는 出調, 일곱째는 俊調이다. 또 대금은 324곡이 있고, 중금은 245곡이 있고, 소금은 298곡이 있다.⁸⁾

대금을 포함한 三竹은 唐나라의 笛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라고 하였으며,⁹⁾ 또 鄉三竹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 기록에 근거해 보면 당시 신라에는 唐笛을 모방한 대금, 그리고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신라 고유의 대금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삼죽에 일곱 개의 調가 있고, 대금·중금·소금의 곡이 많이 남아 있다는 내용을 통해 당시의 대금 연주가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三國史記』 雜志 第一 「祭祀, 樂」의 ‘高句麗樂’과 ‘百濟樂’의 기록에도 橫笛, 笛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橫笛과 笛이 신라에 수용되었을 것으로 보는 주장도 있다. 즉 신라 삼죽의 하나인 대금은 고구려와 백제의 橫笛과 笛을 수용하여 통일신라에 이르러서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관악기 ‘대금’으로 자리매김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¹⁰⁾

III. 大箏의 상징 : 萬波停息, 表正萬方, 堯天舜日

신라 三絃에 속하는 玄琴(거문고)와 加耶琴(가야금)은 각각 王山岳의 ‘玄鶴來舞’의 이야기,¹¹⁾ 于勒의 기록¹²⁾ 등이 있으며, 三竹의 하나인 대금 또한 ‘萬波息笛’의 전설이 전해지

8) 『三國史記』 雜志 第一 「祭祀, 樂」: 三竹, 亦模倣唐笛而爲之者也. 風俗通曰, 笛, 漢武帝時, 丘仲所作也. 又按宋玉有笛賦, 玉在漢前, 恐此說非也. 馬融云, 近代雙笛, 從羌起. 又笛, 滌也, 所以滌邪穢, 而納之於雅正也. 長一尺, 四十七孔. 鄉三竹, 此亦起於新羅, 不知何人所作. … 三竹笛有七調, 一平調, 二黃鐘調, 三二雅調, 四越調, 五般涉調, 六出調, 七俊調. 大箏三百二十四曲, 中箏二百四十五曲, 小箏二百九十八曲.

9) 三竹이 唐笛을 모방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가지는 신빙성에 대해서 학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견해로, 이해구는 대금이 ‘고려적(高麗笛)’에 기원을 둔 것으로, 반면에 송방송은 고구려의 橫笛과 백제의 笛에 그 기원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은옥(2013),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 초기의 횡취 관악기에 대한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51, 한국음악사학회. 42면 참조.]

10) 국립국악원(2014), 『한국의 악기 1』, 121면 참조.

11) 『三國史記』 雜志 第一 「祭祀, 樂」: 新羅古記云, 初晉人以七絃琴, 送高句麗, 麗人雖知其爲樂器, 而不知其聲音及鼓之之法. 購國人能識其音而鼓之者, 厚賞, 時第二相王山岳, 存其本樣, 頗改易其法制而造之, 兼製一百餘曲以奏之, 於時, 玄鶴來舞, 遂名玄鶴琴. …

12) 『三國史記』 雜志 第一 「祭祀, 樂」: 新羅古記云, 加耶國嘉實王, 見唐之樂器而造之. 王以謂諸國方言各異聲音,

고 있다. 이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古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神文王 때 동해 가운데에 갑자기 작은 산이 생겼는데, 모양이 거북의 머리와 같고 그 위에 한 포기의 대나무가 있어 낮에는 갈라져 두 개가 되고, 밤에는 합쳐져 하나가 되었다. 왕이 사람을 시켜 그 대나무를 쪼개어 笛을 만들게 하고 ‘萬波息’이라고 이름지었다.” 하지만 이 말이 괴이하여 믿을 수는 없다.¹³⁾

이상과 같이 『삼국사기』에는 짧은 분량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雖有此說，怪不可信.’에서 볼 수 있듯이 神異한 이야기이지만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였다는 것은 당시에 萬波息笛 설화가 보편적으로 유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 권2 「紀異」 ‘萬波息笛’의 내용 일부이다.

다음 해 壬午 五月初一日에 海官 波珍滄 朴夙淸이 아뢰었다. “동해 중에 작은 산이 떠서 感恩寺로 향하여 오는데 물결을 따라 왕래합니다.” 왕이 이상히 여겨 日官 金春質을 시켜 점을 쳤는데, 金春質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聖考가 지금 海龍이 되시어 三韓을 보호하시고 또 金庾信은 三十三天의 一子로 지금 하강하여 大臣이 되었다. 두 성인이 德을 같이하여 守城의 보배를 내주시려 하니, 만일 폐하가 해변에 가시면 반드시 無價의 大寶를 얻으실 것입니다.” 왕이 기뻐하여 그달 7일에 利見臺에 행차하여 浮山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내어 살펴보니 산세가 거북이 머리 같고 위에는 한 줄기 대나무가 있는데, 낮에는 둘이 되고 밤에는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使者가 돌아와 그대로 아뢰었다. 왕이 感恩寺에서 숙박하였는데, 이튿날 午時에 대나무가 합하여 하나가 되매 天地가 진동하고 風雨가 일어 7일이나 어둡더니 그달 16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바람이 자고 물결이 평온하여졌다. 왕이 배를 타고 그 산에 들어가니, 龍이 검은 玉帶를 받들고 와서 바치는지라 왕이 받아들이고서 같이 앉아 물었다. “이 산과 대가 혹 나누어지기도 하고 혹 합해지기도 하는 것이 무슨 까닭이나.” 龍이 말했다. “비유컨대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없고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으니 대란 물건은 합한 후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 聖王이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릴 상서로운 징표이니 이 대를 취하여 笛을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왕의 先考가 海中大龍이 되고 庾信이 다시 天神이 되어 두 성인이 같은 마음으로 이 無價의 大寶를 내어 나로 하여금 갖다 바치게 한 것입니다.” 왕은 놀라고 기뻐하여 오색 비단과 금과 옥으로 보답하고 사자를 시켜 대나무를 베어서 바다에서 나오자, 산과 용은 갑자기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 … 왕이 행차에서 돌아와 그 대나무

豈可一哉，乃命樂師省熱縣人于勒，造十二曲。後，于勒以其國將亂，携樂器，投新羅眞興王。王受之，安置國原，乃遣大奈麻注知・階古・大舍萬德，傳其業。三人既傳十一曲，相謂曰：‘此繁且淫，不可以爲雅正。’遂約爲五曲。于勒始聞焉而怒，及聽其五種之音，流淚歎曰，樂而不流，哀而不悲，可謂正也，爾其奏之王前。王聞之大悅。諫臣獻議，加耶亡國之音，不足取也。王曰，加耶王，淫亂自滅，樂何罪乎。蓋聖人制樂，緣人情以爲搏節，國之理亂，不由音調。遂行之，以爲大樂。加耶琴有二調，一河臨調，二嫩竹調，共一百八十五曲。

13) 『三國史記』雜志 第一「祭祀，樂」：古記云，神文王時，東海中忽有一小山，形如龜頭，其上有一竿竹，晝分爲二，夜合爲一。王使斫之作笛，名萬波息。雖有此說，怪不可信。

로 짓대를 만들어 月城의 天尊庫에 간직하였다. 이 짓대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는 개며,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평온해졌다. 이를 ‘萬波息笛’으로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¹⁴⁾

『삼국사기』와 달리 스토리에 신이성이 추가되고 서사구조가 확장되어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만파식적의 이야기는 『삼국유사』 卷2 「紀異」 ‘元聖大王’ 조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일본이 신라의 만파식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성왕이 거절하는 내용이다.¹⁵⁾

이상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萬波息笛과 관련된 설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그런데 여기서 ‘萬波息’의 이름을 가진笛이 과연 대금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笛이라고만 쓰면 이것이 橫笛인지 縱笛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삼국사기』의 기록이 三竹을 언급하는 내용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는 점, 三竹의 대표적 악기가 대금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만파식적을 橫笛 즉 대금으로 추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¹⁷⁾

이 만파식적 설화에 대해서는 護國龍 설화의 등장 또는 護國 정신을 담은 것,¹⁸⁾ 12律 산정의 기준 척도가 되는 黃鍾管 제정을 위해 선택된 특별한 신대¹⁹⁾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만파식적 설화를 활용한 기존의 콘텐츠를 검토하고 문화콘텐츠적인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²⁰⁾

본고에서는 이 설화의 의의를 대금에 초점을 두어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보면, ‘萬波息’ 하게 할 수 있는 신이한 능력을 가진 대금의 신비성,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회자되었던 이야기라는 점에서 알 수 있는 대금의 친근함, 국가 차원에서 간직하고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볼 수 있는 黃鍾管으로서의 위상 등으로 그 의의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금은 箏箏(피리)와 더불어 우리 전통 음악에서 관악기를 대표하며 악곡의 주선율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또 대금은 현악기나 기타 악기와 달리 비교적 고정된 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음 즉 黃鍾管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위상으로 인해 조선시대의 궁중 음악이나

14) 『三國遺事』 卷2 「紀異」: 萬波息笛: … 明年壬午五月朔, 海官波珍噴朴夙清奏曰, 東海中有小山, 浮來向感恩寺, 隨波往來. 王異之, 命日官金春質占之, 曰聖考今爲海龍, 鎮護三韓. 抑又金公庾信乃三十三天之一子, 今降爲大臣, 二聖同德, 欲出守城之寶. 若陛下行幸海邊, 必得無價大寶. 王喜, 以其月七日, 駕幸利見臺, 望其山, 遣使審之, 山勢如龜頭, 上有一竿竹, 晝爲二, 夜合一. 使來奏之, 王御感恩寺宿, 明日午時, 竹合爲一, 天地震動, 風雨晦暗七日, 至其月十六日風霽波平. 王泛海入其山, 有龍奉黑玉帶來獻, 迎接共坐, 問曰, 此山與竹, 或判或合, 如何. 龍曰, 比如一手拍之無聲, 二手拍則有聲. 此竹之爲物, 合之然後有聲, 聖王以聲理天下之瑞也. 王取此竹, 作笛吹之, 天下和平. 今王考爲海中大龍, 庾信復爲天神, 二聖同心, 出此無價大寶, 令我獻之. 王驚喜, 以五色錦彩金玉酬賽之. 勅使斫竹出海時, 山與龍忽隱不現. … 駕還, 以其竹作笛, 藏於月城天尊庫. 吹此笛則兵退病愈, 旱雨雨晴, 風定波平, 號萬波息笛, 稱爲國寶.

15) 『三國遺事』 卷2 「紀異」: 元聖大王 … 貞元二年丙寅十月十一日, 日本王文慶, 舉兵欲伐新羅, 聞新羅有萬波息笛退兵, 以金五十兩, 遣使請其笛. 王謂使曰, 朕聞上世眞平王代有之耳, 今不知所在. 明年七月七日, 更遣使, 以金一千兩請之曰, 寡人願得見神物而還之矣. 王亦辭以前對, 以銀三千兩賜其使, 還金而不受. 八月, 使還, 藏其笛於內黃殿.

16) ‘萬波息笛’ 이야기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기록되어 있다.

17) 서인화(2008), 「대금의 상징성」, 『한국음악사학보』 40, 한국음악사학회. 3면 참조.

18) 이동철(2005), 「문무왕 호국용 설화의 교육적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16, 한민족문화학회.

19) 김남형(2009), 「만파식적 설화의 역사적 의미」, 『한국학논집』 38, 한국학연구원.

20) 조혜진(2012), 「고전설화 <만파식적>의 문화콘텐츠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3), 한국디자인문화학회.

실내악에서 특히 다음 곡들의 주선율을 담당하였다.

○ 吹打(萬波停息之曲) : 고려 시대부터 전해오는 大吹打曲을 관현악으로 편곡한 것으로, 특히 관악기 위주로 연주하는 곡을 萬波停息之曲이라고 부른다. 萬波停息之曲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萬波息笛’에서 유래하여 이름 붙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만큼 萬波息笛은 대금을 대표하면서, 조선시대까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 三絃靈山會相(管樂靈山會相, 表正萬方之曲) : 靈山會相의 한 갈래로 대금과 피리 등 관악기 위주의 합주곡이다. ‘表正萬方’은 『書經』 「仲虺之誥」 “天乃錫王勇智, 表正萬邦, 纘禹舊服.[하늘이 이에 왕에게 용기와 지혜를 내리시어, 온 세상에 儀表가 되게 하였으며, 禹임금의 옛일을 계승하게 하셨다.]”에서 따온 것이다.

○ 淸聲曲(청성 자진한잎, 堯天舜日之曲) : 가곡의 반주 음악을 주로 높은 음역에서 연주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것으로, 그 소리를 淸聲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는 ‘堯天舜日之曲’이라고도 하는데, 즉 태평성세를 의미한다. 堯天은 『論語』 「泰伯」 “子曰, 大哉, 堯之爲君也. 巍巍乎, 唯天爲大, 唯堯則之.…” [위대하도다. 堯의 임금됨이여. 높고 크도다, 오직 하늘이 크거늘 오직 堯만이 그것을 본받았다.…]”에서 가져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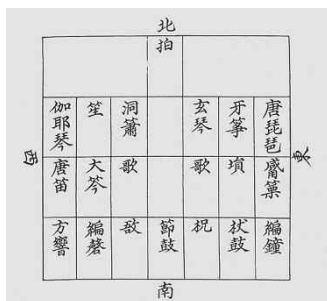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萬波停息之曲, 表正萬方之曲, 堯天舜日之曲 그리고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日昇月降 등의 곡은 대금이 주선율을 담당하거나 때로 대금 독주곡으로 연주하기도 한다. 즉 이 곡들은 대금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곡에 붙여진 명칭 즉 萬波停息, 表正萬方, 堯天舜日, 日昇月降 등은 대금이 상징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保民護國, 賢君政治, 太平盛世라고 설명할 수 있다.

IV. 大笏의 기록 : ‘大笏’ 과 ‘橫笛’

한문 문헌에서 대금은 한자어 ‘大笏’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橫笛’으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境界와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두 단어가 가지는 차이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²¹⁾

먼저, 大笏은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儀軌’에 자주 등장한다. 다음은 『景慕宮儀軌』의 「樂圖說」에서 대금을 언급한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登歌



21) 본고에서 살펴보는 대상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 수록된 한문 문헌으로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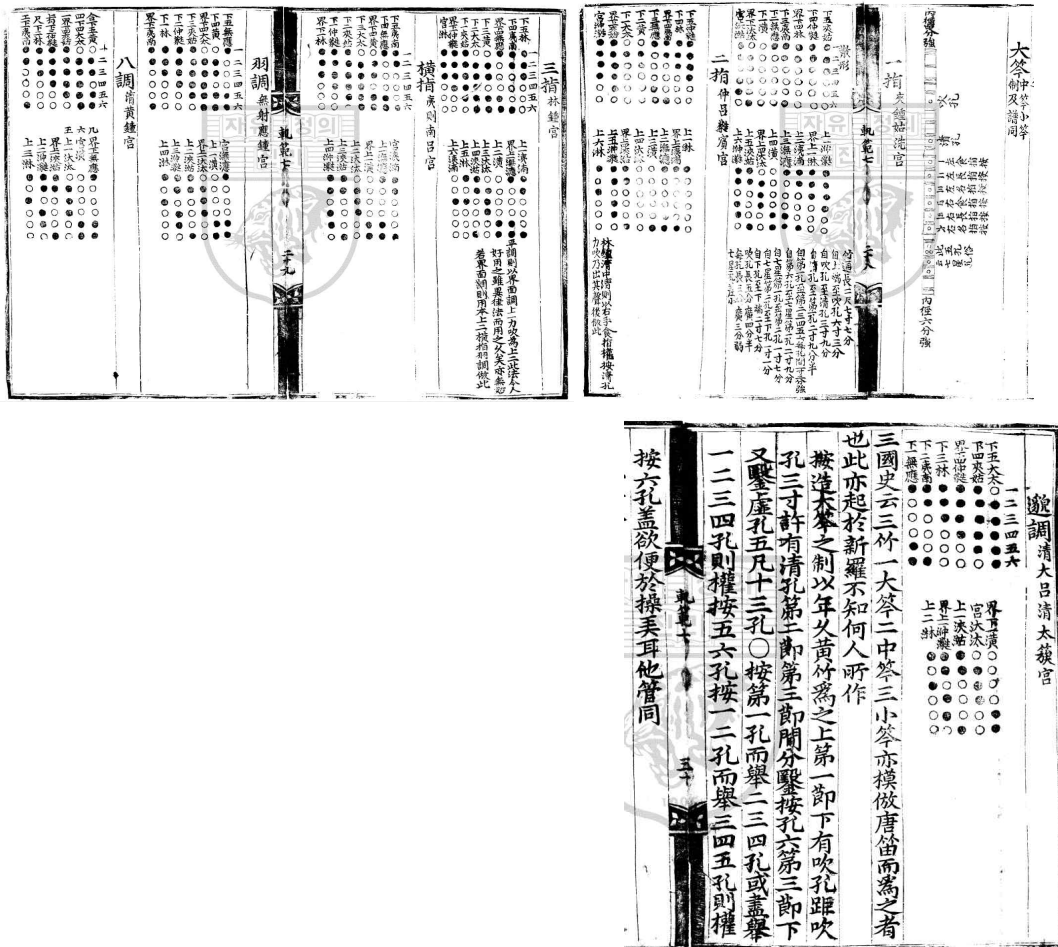
등가(登歌)는 당(堂) 위에 둔다. 가운데 어도(御道)를 열어 놓고, 박(拍) 하나는 북쪽 한 가운데에 둔다. 다음으로 현금(玄琴) 하나, 아쟁(牙箏) 하나, 당비파(唐琵琶) 하나는 동쪽에 두고, 통소(洞簫) 하나, 생(笙) 하나, 가야금(伽倻琴) 하나는 서쪽에 두어, 가로로 줄을 세워 제1행이 되게 한다. 다음으로 가인(歌人) 1인, 훈(塤) 하나, 필률(觿簫) 하나는 동쪽에 두고, 가인 1인, **대금(大笳)** 하나, 당적(唐笛) 하나는 서쪽에 두어 제2행이 되게 한다. 다음으로 절고(節鼓)를 중앙에 두고, 축(祝) 하나, 장고(杖鼓) 하나, 편종(編鍾) 하나는 동쪽에 두고, 어(敔) 하나, 편경(編磬) 하나, 방향(方響) 하나는 서쪽에 두어 제3행이 되게 하되, 모두 북쪽을 향하게 한다. 휘(麾)는 등가 서남쪽 모퉁이에 두고 조촉(照燭)은 섬돌 아래에 두되, 모두 북쪽을 향하게 한다. 【공인(工人)은 관복(冠服) 차림으로, 헌가(軒架)와 같다. 악사(樂師)는 복두(幘頭), 녹색(綠衫), 오정대(烏鞞帶), 흑피화(黑皮靴) 차림을 한다.】²²⁾

이 외에도 『宗廟儀軌』, 『進宴儀軌』, 『景慕宮樂器造成廳儀軌』 등의 다양한 의례에서 大笳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 儀軌란 ‘조선시대에 왕실이나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후세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일체의 관련 사실을 그림과 문자로 정리한 책’²³⁾이다. 큰 행사에는 음악을 연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금 등의 여러 악기를 陳列하고 사용할 것이며, 따라서 의례에 大笳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또한 대금은 樂書에도 자주 등장한다. 조선 성종 때 成俔 등이 편찬한 『樂學軌範』, 세종 때 鄭麟趾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高麗史』 제70-71권 「樂志」 등에서도 대금 관련 기록을 볼 수 있다. 『樂學軌範』에서는 당시의 악기를 雅部樂器, 唐部樂器, 鄉部樂器로 구분하고, 「鄉部樂器圖說」 아래에 대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樂學軌範』 卷之七, 「大笳」조의 내용이다.

22) 『景慕宮儀軌』 第一卷 「圖說」 「樂圖說」: 登歌在堂上. 中開御道. 拍一在北當中. 次玄琴一、牙箏一、唐琵琶一在東, 洞簫一、笙一、伽耶琴一在西, 橫列爲一行. 次歌一、塤一、觿簫一在東, 歌一、大笳一、唐笛一在西爲二行. 次節鼓居中, 祝一、杖鼓一、編鍾一在東, 敔一、編磬一、方響一在西爲三行, 俱北向. 麾在登歌西南隅, 照燭在階下, 俱北向. 【工人冠服, 與軒架同. 樂師幘頭、綠衫、烏鞞帶、黑皮靴.】 (번역: 박헌순, 오세옥 (공역), 2013.)

23)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대금의 모양 및 치수, 운지법, 調, 유래, 재료, 제작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는 대금의 운지법 등을 확정 보존하기 위한, 또 대금 제작에 참고하기 위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大箏’은 『朝鮮王朝實錄』과 『日省錄』 등의 역사서, 『惺所覆瓿藁』,²⁴⁾ 『星湖僊說』, 『燃藜室記述』, 『慵齋叢話』, 『弘齋全書』, 『林下筆記』 등의 雜錄類나 백과사전 성격의 저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 대금의 陳列과 배치, 유래, 악곡 등 의례 기록과 비슷한 성격의 내용 등이다.

이처럼 ‘大箏’은 儀軌, 樂書, 史書, 雜錄類, 類書類 등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의외로 한시와 산문 등 문학작품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대금을 칭하는 또 다른 명칭인 ‘橫笛’은 이와 반대로 儀軌, 樂書, 史書, 雜錄類, 類書類 등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주로 한시 등에서 볼 수 있다.

李穀, 『稼亭集』 제20권, 律詩, 「次三陟西樓八詠詩韻」:

牛背牧童

24) 許筠, 『惺所覆瓿藁』 卷之二十四, 「說部 三」 「惺翁識小錄 下」: 我國所用樂器俱是古制. 我國所用樂器, 俱是古制. 玄琴, 象古五絃而加一. 伽倻琴, 象古瑟而減十三絃. 方響, 腰鼓, 大箏及廟庭所用編鍾編磬暨祝故燠簫等器, 皆唐制. 而廟樂登歌樂章, 亦倣唐人所作. 其用於俗樂者, 如風入松, 瑞鶴鳴, 水龍吟, 五雲捧瑞圖等章. 宋道君時所賜大晟樂也. 猶可謂古樂存也. 而中國則自南北曲盛行之後, 唐宋以上古樂, 悉蕩然無餘, 所謂禮失求諸野者也.

愛汝生來無念慮 / 생래로 근심 걱정 없이 도롱이나 걸칠 뿐
披蓑橫笛任牛歸 / 피리 불며 소 타고 오는 너를 사랑한단다

奇大升, 『高峯集』 제1권, 詩, 「途中謾成八首」
牧童牛背橫笛 / 목동은 소 등에서 젓대를 불며
落日路繞溪邊 / 석양에 시냇가를 따라 가누나²⁵⁾

한국고전종합DB에서 ‘橫笛’을 키워드로 삼아 검색했을 때, 『한국문집총간』에서 297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한시의 詩句이다. 즉 작가들은 한시를 지을 때 大笒이라는 표현 대신 대부분 橫笛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 즉 ‘大笒’은 儀軌, 樂書, 史書, 雜錄類, 類書類에 주로 등장하고 한시에는 거의 쓰이지 않으며, ‘橫笛’은 儀軌, 樂書, 史書, 雜錄類, 類書類에 등장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한시의 詩句로 쓰인다는 사실을 통해, 한문 문헌에 등장하는 단어 ‘大笒’은 공식적인 표현이고 ‘橫笛’은 통상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우리의 전통 악기 大笒을 주제로 삼아 이를 문화콘텐츠로 구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이와 관련된 한문 문헌의 기록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음악과 악기로서의 대금이 아닌, 한문 문헌 기록 중의 대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 것이다.

II장에서는 젓대, 橫笛, 大笒 등 대금을 칭하는 명칭에 대해 검토해 보았으며, III장에서는 萬波息笛의 기록 및 萬波停息之曲, 表正萬方之曲, 堯天舜日之曲 등 곡명에 대한 고찰을 통해 대금이 상징하는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IV장에서는 한문 문헌에서 ‘大笒’과 ‘橫笛’이 각기 다른 성격의 문헌에 쓰이는 것을 통해 ‘大笒’은 공식적인 표현 ‘橫笛’은 통상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추정해 보았다.

본 논문의 목적을 한문 문헌 속의 대금 관련 기록 검토를 목적으로 삼았지만 더 많은 문헌을 더 넓게 섭렵하지 못하였다는 한계, 그리고 대금 관련 기록을 문화콘텐츠로 구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萬波息笛’과 같이 널리 알려진 이야기 외에, 새롭고 흥미로운 대금 관련 스토리텔링 소재를 한문 문헌에서 찾아보고자 하였지만 이에 대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다음 기회를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한다.

25) 한편 한국고전종합DB에서 ‘橫笛’은 ‘젓대’ 또는 ‘피리’로 번역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리’는 관악기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고전종합DB의 번역어 ‘피리’ 또한 대부분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악기에서 ‘피리’는 縱笛으로 ‘簫簴’를 칭할 때 쓰는 고유명사이다. 따라서 橫笛의 번역어로 ‘피리’보다는 ‘젓대’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惺所覆瓿稿』
『景慕宮儀軌』

- 김남형(2009), 「萬波息笛 설화의 역사적 의미」, 『한국학논집』 38, 한국학연구원.
김상현(1981), 「만파식적의 形成과 意義」, 『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
남재철(2008), 「新羅玉笛 考證」, 『동방한문학』 37, 동방한문학회
문주석(2006), 「신라대금형성고」, 『민족문화논총』,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박은옥(2013),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 초기의 횡취관악기에 대한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51, 한국음악사학회.
서인화(2008), 「대금의 상징성」, 『한국음악사학보』 40, 한국음악사학회.
이동철(2005), 「문무왕 호국용 설화의 교육적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16, 한민족문화학회.
이용식(2007), 『대금정악』, 국립문화재연구소.
조해진(2012), 「고전설화 <만파식적>의 문화콘텐츠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3),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홍섭(2000), 『악기로 본 삼국시대 음악 문화』, 책세상.

조선의 의학교과서 『신편의학정전』의 체계와 판본 연구

정경훈(원광대)

1. 서론
2. 『醫學正傳』의 유래와 유통
3. 『醫學正傳』의 정본 문제
4. 결론

1. 서론

『醫學正傳』은 명나라 사람인 虞搏(1438~1517)이 저술한 책으로 1515년 세상에 처음 소개된 후 조선에 신속히 유입되어 조선 의과시험 과목으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 서적이다. 『의학정전』은 『內徑』의 이론을 바탕으로 河間 劉完素, 子和 張從正, 東垣 李杲, 丹溪 朱震亨 등 金元四大家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책이다. 간단하면서도 병증을 이해하기 쉽고 치료법이 간결하게 정리되어있다. 수록된 처방은 우단이 충분한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을 정리하여 복잡하지 않고 동시대의 의사보다 높은 수준의 병증에 대한 치료가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 『의학정전』은 조선 의서에 영향을 끼쳤다. 『東醫寶鑑』을 비롯하여 『醫林撮要』에는 100차례 인용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醫書 편찬은 조선 건국과 아울러 왕성하였다. 태종은 의술에 능통하고 針灸에 밝은 자를 교수관으로 삼고 계절마다 약을 깨고 백성들의 질병을 다스리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¹⁾ 세종 때에 편찬된 『鄉藥集成方』을 비롯하여 『鄉藥集成方』을 편집하기 위하여 각 도 각 읍에서 생산되는 향약의 실태를 조사하여 만든 『鄉藥採取月令』, 15세기에 편찬한 한의 백과 전서적인 총서인 『醫方類聚』 등이 대표적 이다. 그리고 실전하지 않지만 朴英(1471~1540)의 『經驗方』, 『活人新方』, 金正國(1485~1541)이 찬한 『村家救急方』 등 전문 의료인이 아닌 사대부가 만든 의서까지 다양하게 편찬된다. 이런 의서의 편찬은 중기에도 계속 이어져, 선조시기 楊禮壽(?~1597)가 편찬한 역대 의학자들의 傳記인 『醫林撮要』와 광해군 때 완성된 許浚(1546~1615)의 『東醫寶鑑』 편찬으로 이어지면서 자주적인 한국 의학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조선에서의 전문의서 탄생은 중국에서 유입된 의학서적을 체계적으로 수용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河間 劉完素, 子和 張從正, 東垣 李杲, 丹溪 朱震亨 등 金元四大家의 의서가 조선에 유입된 주류를 이루면서 조선 의서에 큰 영향을 끼친다.²⁾ 『의방유취』에는 『玉機微義』, 『

1) 『太宗實錄』, 13권, 태종7년, 3월 29일. “乞差通醫術明針灸者, 爲教授官, 使之趁節採藥, 揀擇上供, 教訓生徒, 救療疾病.”

2) 정면·홍원식, 「金元四大家醫學이 朝鮮思朝醫學 形成에 미친 影響」, 『대한한의학회지』9집, 대한한의학회지, 1995.

『醫經小學』까지의 의서가 인용되었고 『의림촬요』에는 『의학정전』이³⁾, 『동의보감』에는 『醫學入門』, 『萬病回春』이 수용되며 明代 의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물들이다.⁴⁾

『의학정전』은 중국에서 1531년 간행되었고 불과 13년 후인 1544년 조선에 간행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매우 신속하게 도입되었다. 『의학정전』은 의관의 의학교과서로 널리 애용되었고 의관 과거 시험에도 필수 과목으로 지정될 정도였다. 심지어 『의학정전』 유입과 『동의보감』의 저술 이후 조선 의학계는 의서에서 앞 두 글자를 따서 보감과, 정전과, 회춘과, 입문과 등이 형성될 정도이니 그 가치는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의학정전』은 언제부터인가 『신편의학정전』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한국 모두에서 다시 간행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에서 소장된 『의학정전』의 해제를 보면, 『의학정전』, 『신편의학정전』 등 표제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이들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의학정전』과 『신편의학정전』의 구성과 내용도 다를 수 있다. 어느 것을 善本으로 삼아야 할지 혼동이

있지만 기존 연구된 논문을 보면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⁵⁾ 더욱이 각각의 논문에서 다른 『의학정전』 혹은 『신편의학정전』을 인용하며, 『의학정전』이라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⁶⁾

현재 학계에는 『동의보감』만이 판본의 체계적 연구를 통해 보고되어 이를 바탕으로 정밀한 연구와 한글 번역, 다양한 매체로 이용됨을 볼 수 있다. 반면 조선시대 유통된 대표적 의서의 판본 연구는 선행될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전무하다는 것은 기존연구의 심각한 오류와 앞으로의 연구에도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 시대 유입된 대표적 의서인 『의학정전』의 판본 연구를 통해 유통과 기존 발표된 몇몇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한다. 본고는 조선에서 출간된 『의학정전』으로 한정하고 『의학정전』의 핵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 「의학혹문」의 비교를 통해 『의학정전』의 선본을 찾고 이를 통해 정본화 문제를 제시 하고자 한다.

3) 김현·김남일, 「『否』卦의 활용을 중심으로 본 『醫林撮要』 속의 易學思想」, 『한국의사학회지』21집, 한국의사학회, 2008.

4) 김현관, 「『醫學正傳』이 朝鮮時代 醫學에 미친 영향에 대한 考察」, 경희대박사학위논문, 2005, 68~70면.

5) 『의학정전』에 대한 판본 언급은 김현관의 박사 논문에 여섯 중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 조선에서 처음 간행된 『의학정전』은 갑진자본이고 오사카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신편의학정전』의 판본에 대해서는 언급이나 『의학정전』과 『신편의학정전』과의 비교연구도 없다.

6) 『의학정전』은 조선의학사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다양한 논문에서 인용된다. 『의학정전』만 한정하여 연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용한, 「『醫學正傳』 해석」,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9집, 대한한의학원전학회, 1995.

김현, 김남일, 「『否』卦의 활용을 중심으로 본 『醫林撮要』 속의 易學思想」, 『한국의사학회지』21집, 한국의사학회, 2008.

김현관, 「『醫學正傳』이 朝鮮時代 醫學에 미친 영향에 대한 考察」, 경희대박사학위논문, 2005.

金憲寬, 車雄碩, 金南一, 「『醫學正傳』의 醫案分析을 통해 본 虞搏의 醫學理論에 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17집, 한국의사학회, 2004.

김형주, 「虞搏의 『醫學正傳』 中 「醫學或問」에 關한 研究」, 『한의학연구소논문집』23집,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2014.

2. 『醫學正傳』의 유래와 유통

虞搏은 절강 지역 義烏縣 사람으로 자는 天民, 호는 恒德老人으로 대대로 의사집안 있었다. 작은 할아버지 虞誠齋의 지도를 받아 의술을 접했고 원나라 의사였던 朱丹溪(1281~1358)를 사숙하면서 독자적인 의론을 수립하여 종합의서인 『의학정전』을 저술하였다.

논술한 많은 證의 총론은 『內經』의 요지를 버리로 삼았고 증상과 치료는 주단계의 학술 경험을 근본으로 삼았다. 맥법은 『脈經』에서 자료를 골라 썼고, 傷寒·內傷·어린이의 병은 각각 張仲景·李杲와 錢乙을 본받았다. 우단은 여러 의사들의 학설을 두루두루 참고하고 집안에 대대로 전하여 내려오는 것과 개인의 학술 경험을 결합하여 논술하였다.⁷⁾

이 책이 구체적으로 조선으로 유입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매우 소중하여 여겼다. 『의학정전』은 『의학입문』과 같이 공식적으로 科擧시험에서 醫科와 醫學 취재의 講書로 채택될 정도였다. 그리고 『續大典』, 『大典通編』에는 의과와 의학에서 『의학정전』을 강독한다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왕의 병증 치료에 기본 텍스트가 되기도 하였는데, 인조시기에는 여러 차례 『의학정전』을 근거로 치료하였다.⁸⁾ 그리고 사대부들의 중요 의학서적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礪溪隱錄』의 「敎選之制」에 필수 의학서적으로,⁹⁾ 『與猶堂全書』에는 홍역(麻疹)의 치료법으로 참고할 만한 서적으로 주목받았다.¹⁰⁾

『의학정전』은 조선에 유입되면서부터 큰 주목을 받았지만 소량으로 출간되어 귀한 서적이었다. 대체적으로 다른 의서들의 출간도 소량이었지만 『의학정전』은 내의원에서조차도 완비를 갖추지 못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왕명으로 출간을 지시하였고 인조는 申翊亮(1590~1650)에게 특별히 『의학정전』 출간을 지시한다.

신익량이 내의원 관원이 전하는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의서 가운데 『의학정전』 1부는 가장 완전한 책으로 오늘날 절실히 쓰이는 책입니다. 그러나 본원에 소장된 것은 단지 당판(唐板) 1질이 있을 뿐이고 민가에도 현존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 물건이 망실되거나 파손된다면 이 책이 마침내 절품되는 것이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전라 감사에게 본도에서 간행하게 하여 널리 유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¹¹⁾

1639년, 신익량은 내의원의 건의를 전하면서 『의학정전』은 의서 가운데 중요도가 가장 높은 의서임을 강조하고 현재 내의원에 중국에서 출간된 책만 있을 뿐 조선에서 출간된 『의학정

7) 『한의학대사전』,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정담, 2001. 참조

8) 『承政院日記』 仁祖 17년 10월 29일, “藥房三啓曰, 卽因下敎, 令諸醫及柳後聖·李燦等相議, 則以爲自上所患諸症中, 脹爲主症, 而近因熱候太甚, 連用涼劑, 此所以熱勢稍降, 而脹候又生者也. 脹候與熱候, 元出於一, 而及其既發, 亦須分其標本而治之, 而卽今所患, 熱重於脹, 則柴胡四物湯, 不可遽停. ……考諸方書, 其論尤似分明之故, 醫學正傳所論, 別紙謄書, 且將中滿分消丸本方, 並爲呈進, 以竣裁處. 答曰, 依啓. 丸藥勿爲劑入.”

9) 柳馨遠, 『礪溪隱錄』, 卷10, 「敎選之制」, “醫學. 纂圖, 王叔和脉經, 銅人經. 并背誦 素問難經, 傷寒論, 湯液本草, 醫學正傳, 只試諸病論. 針灸大全, 外科精義, 和劑方, 醫學入門, 東垣十書, 局方發揮, 脾胃論, 內外傷卡惑論, 格致餘論, 此事難知, 蘭室秘藏, 溯洄集中. 自願三書. 小學, 大典, 并臨文 ○取才則除醫學正傳, 外科精義, 醫學入門, 東垣十書, 大典. ○針灸醫取才得則脉經, 銅人經, 并誦 素問難經, 傷寒論, 針灸大全, 外科精義, 和劑指南.”

10)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7集, 一卷, 「麻科會通序」, <抄撮諸家姓氏書目>.

11) 『承政院日記』, 仁祖 17년 9월 18일, “申翊亮, 以內醫院官, 以都提調意啓曰, 醫書中, 醫學正傳一部, 最爲完備, 爲今日切用之書, 而本院所藏, 只有唐板一秩, 閭家亦無見存之處, 此件若或失破, 則此書遂絕, 甚爲可慮, 令全羅監司, 開刊於本道, 以廣其傳, 何如? 傳曰, 依啓.”

전』은 민간인들도 없는, 전무한 상태임을 알리고 신속한 출간을 요구하였고 인조는 즉시 허락을 하였다. 위의 기록으로 신익량에 의해 한차례 『의학정전』이 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익량은 본관은 평산으로 자는 君輔, 호는 象峯으로 1639년 동부승지와 우부승지를 역임하면서 『의학정전』의 간행을 진행하였다.

虞搏이 쓴 『醫學正傳』의 서문을 보면, 이 책의 완성은 저자 나이 78세였던 1515년(明, 武宗, 正德10 乙亥 正月)이지만 즉시 간행되지 않았고 사후 16년 뒤인 1531년(明, 世宗, 嘉靖10, 辛卯) 처음 간행되었다. 최초로 간행된 시기를 알 수 있는 단서는 「醫學正傳後再敘」에서 찾을 수 있다.

『의학정전』은 대어사(待御史) 동애(東崖) 우공의 숙조(叔祖)인 항덕노인이 지은 것으로 책을 보면 그 분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 동애께서 이 책을 교열 보셨고 시어사(侍御史) 즈티엔(枳田)의 장공이 순서를 정했으며 나는 이 책을 좋아해 열람하면서 그 분의 뜻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열람해 보니 항덕노인이 지은 것이 아니라고 여겼다. 노인의 뜻은 명가들의 뒤에 이름이 붙기를 원했고 여러 의가들이 이론 저서를 모아 하나로 완정하고자 했던 것이다.¹²⁾

후서의 저자는 史梧이다. 정확한 인물정보는 알 수 없으나 1521년 <辛巳科殿試金榜>에 <第二甲>, <賜進士出身>에서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있고, 마지막 연월일기에 “嘉靖辛卯仲春之吉莆田史梧識”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1531년 2월 푸텐에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기록으로 보아 후서의 작자 사오는 1500년대 지금의 푸젠성 푸텐시 일대에서 활약한 인물임을 대략 알 수 있다.

그는 진술을 살펴보면, 우단의 『의학정전』은 우단의 일족인 동애 우공이 교열을 보았고 시어사 장공이라는 인물이 순서를 정해 완성이 된 책이다. 우단이 『의학정전』의 본 내용을 저술했지만 체제와 교열은 다른 인물들에 의해 최장 16년 동안 진행되었다. 그래서 우단이 사후 16년 뒤인 1531년에 최초로 명나라에서 간행되었다.

현재 조선에서 최초로 간행된 『의학정전』은 甲辰字¹³⁾로 印刊되었고 현재 오사카도서관에 소장된 판본(이하 ‘오사카본’으로 명칭함)을 최초로 보고 있다. 오사카본은 조선을 거쳐 일본으로 유입된 본으로 ‘天文13년(1544)’의 기록으로 보여 1544년 이전 출간으로 보고 있다. 이를 보면 명나라에서 출간된 지 최장 13년 만에 조선으로 최초 유입되었고 동활자로 출간될 정도로 높은 중요도를 가진 서적임을 알 수 있다. 현재 학계에 보고된 『의학정전』의 판본을 정리하면, 최초본으로 보여 지는 ① 오사카본(1544년), ② 1585년(선조18), 『攷事撮要』에 수록된 「八道冊板」 중에 全州板木으로 출간되었다는 기록은 보이나 실체는 확인못함, ③ 1675년(숙종원년), 李王家藏書閣 목판본으로 임진왜란 이후 전주에서 판각한 것으로 추측, ④ 정조때 판본, 『嶠南冊錄』과 『鏤板考』의 기록으로 보아 전주판(完營版), 대구판(嶺營版)이 있을 것으로 추정, ⑤ 完營重刊本, 1819년(순조19) 이다.¹⁴⁾

12) 史梧, 『醫學正傳』, 『醫學正傳後再敘』, “醫學正傳, 待御東崖虞公叔祖恒德老人所著也, 觀其書可以知其人矣. 東崖即其書校之, 侍御枳田蔣公序之, 予喜其書而閱之, 以爲得其人矣. 閱之且久, 以爲非恒德老人所著也. 老人之志, 欲自附於名家之後, 故其集書諸家之成而會之一者也.”

13) 갑진자는 1484년(갑진년)에 성종의 명으로 주자소에서 만든 동활자로 갑진자는 갑인자·을해자 다음으로 오래 사용되었다.

14) 김헌관은 앞의 논문에서 『의학정전』의 판본을 5,6개로 추정하고 있지만 『신편의학정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하 판본에 대한 조사는 김헌관의 박사논문에 보고된 내용이다. 그러나 정확한 서지사항이나 주기가 없어 어

지금까지 언급된 『의학정전』의 출간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515년, 저자 우단이 쓴 서문에서 『의학정전』 완성.
- ② 1531년, 후서의 저자인 사오는 「의학정전후재서」에서 교열을 보고 출간.
- ③ 1544년, 갑진자 활자본(오사카본).
- ④ 1585년, 『攷事撮要』에 全州板本으로 출간되었다는 기록.
- ⑤ 1639년, 신익량은 내의원의 건의를 인조에게 알리며 『의학정전』의 출간 허락받음.
- ⑥ 1675년, 李王家藏書閣, 임진왜란 이후 전주에서 판각한 것으로 추측.
- ⑦ 1776~1799년, 完營版, 嶺營版. (『교남책록』과 『누판고』)
- ⑧ 1819년, 完營重刊本.

기존 『의학정전』 판본에 대한 조사와 새롭게 찾아낸 출간 기록을 보면, 1544년(오사카본, 갑진자본), 1585년(목판본), 1639년, 1819년 등 최소 네 차례 이상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의학정전』 소장되어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판본을 확인하면서 위의 기록과 상호비교하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장처	表題名	출간시기	형태사항	기타
장서각 ¹⁵⁾	醫學正傳	1725년	크기29.7×20.1cm/ 木板本/8권8책/ 半郭) 21.3×15.2cm	印章(李王家圖書之章) 刊記 없음
규장각 ^{a)16)}	醫學正傳	1819년	크기35.2×23.3cm/木版本/8권8책/ 四周雙邊, 半葉匡郭:24×17.2cm, 有界,11行20字/上下花紋	印章(集玉齋, 帝 室圖書之章) 刊記(歲己卯季 夏內醫院校正完 營重刊)
규장각 ^{b)17)}	醫學正傳	상동	상동	印章, 刊記 없음
규장각 ^{c)18)}	醫學正傳	상동	상동	印章(侍講院, 帝 室圖書之章) 刊記 없음
규장각 ^{d)19)}	醫學正傳	상동	상동	零本3책
국회도서관 20)	醫學正傳	1819년	8卷 8冊 : 四周雙邊, 半郭 24.4 × 17.5 cm,有界, 半郭 11行 20字, 註雙行, 上下二葉花紋魚尾 ; 35 × 22.7 cm	刊記(歲己卯季 夏內醫院校正完 營重刊)

면 판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김현관의 판본 조사를 확인하면서 오류를 잡고자 한다.

- 15) 청구기호 K3-364 (이하 장서각본)
- 16) 청구기호 奎中605-v.1-8 (이하 규장각^{a)}본)
- 17) 청구기호 奎中1095-v.1-8 (이하 규장각^{b)}본)
- 18) 청구기호 奎中2302-v.1-8 (이하 규장각^{c)}본)
- 19) 청구기호 海土한295-v.1-3 (이하 규장각^{d)}본)

『의학정전』은 장서각본과 규장각본, 국회도서관본에 각각 소장되어 있는데, 규장각에는 4종이 소장하고 있지만 모두 1819년에 간행된 동일한 책임을 알 수 있다. 국회도서관본도 1819년 저술 완영에서 중간본으로 출간되었다는 뚜렷한 간기가 있어 정확한 출간시기를 알 수 있다. 장서각본은 출간 시기에 대해 해제를 보면, 1725~1849년(영조~순조년간)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서각, 규장각,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의학정전』은 책의 편집체계는 모두 동일하다. 내의원에서 출간을 주관하였기에 동일한 체계에서 책, 권의 수를 같게 출간하였다. 장서각본은 규장각본, 국회도서관본과 판형자체가 다르고 판식도의 크기, 활자의 형태가 다른 뚜렷한 이본이다. 장서각본은 ‘李王家圖書之章’의 인장과 판형형태로 보아 정조년간 이전에 출간된 『의학정전』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서각본

장서각본은 앞서 출간 기록의 ④1585년, ⑤1639년, ⑥1675년 가운데 한 시기로 볼 수 있는데, 1639년 신익량의 진술을 근거한다면, 당시 『의학정전』은 내의원에 당판 1질 밖에 없고 민간에는 전혀 찾을 수 없어 급히 출판을 요청으로 보아 1585년의 『의학정전』은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기록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볼 수 있다. 1639년과 1675년의 출간 문제는, 앞서 인조의 빈번한 병환과 내의원 등에서 출간 독촉²¹⁾ 숙종원년인 1675년 보다 앞서 출간되었고 완주에서 방각본이 아닌 完營에서 출간되었다.²²⁾ 곧, 장서각본은 1639년 이후 최대 1675년까지 완주 완영에서 목판으로 인쇄된 완영본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의학정전』의 수요는 매우 광범위했다. 『邊例集要』에는 1608년(선조41)부터 1765년(영조41)까지 왜인들이 가지고 온 무역 물품과 그들이 구청한 물품에 대한 기록이 시대 순으로 서술되어 있고 己酉約條, 公貿易折價, 公貿易物量, 倭館公貿易規例, 使送船의 공무역 수량 등도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는 왜인들이 구매를 요청한 서적 가운데 『의학정전』이 있어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⑦ 정조재위시기(1776~1799)에 『교남책록』과 『누판고』의 기록으로 보아 완주와 대구에서 간행된 完營版, 嶺營版의 실체이다. 이 판본은 국회도서관본인 ⑧ 1819년 完營重刊本の 기록으로 보아 실제 간행되었다. 국회도서관본이 완영의 중간본이므로 완영에서 초판한 판목으로 중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장서각본은 형식이나 판목, 차례 등이 다른 형태의 책임을 볼 때 국회도서관본은 장서각본 이후 다시 완영에서 간행된 『의학정전』을 중간했음을 알 수 있다.

20) 청구기호 稀 610.952 0374ㅅ (이하 국회도서관본)

21) 각주8), 각주11) 참조.

22) 이태영, 「완판본과 완영목판」, 『기록문화의 땅 전주』, 전주역사박물관, 2006, 54면, 63면.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書誌學研究』50집, 한국서지학회, 2011, 446~467면 참조.



국회도서관본

국회도서관본은 『의학정전』은 책의 형태, 裝幀, 판식, 활자의 형태로 보아 앞서 출간된 장서각본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 조선시대에 유통된 대부분의 의서는 적은 양으로 출판되고 몇몇 의관이나 사대부 집안에서 소장되면서 쉽게 구하거나 접할 수 없는 서적이었다. 그러므로 필사본 형태로 의서가 생산, 유통되면서 원래 판본을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조선에서 간행된 『의학정전』은 일본에 소장된 활자본을 제외하고는 2종으로 확인된다. 활자본이나 장서각본은 간기가 따로 있지 않아 책의 물리적인 면을 위주로 그 시기를 알 수 있지만 1819년에 간행된 『의학정전』은 8책 최후에 ‘歲己卯季夏內醫院校正完營重刊’의 刊記를 통해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다. 1819년 마지막으로 거질의 『醫學正傳』 출간은 더 이상 없었고, 19세기 말엽부터는 목판이 아닌 신헌자로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3. 『醫學正傳』의 정본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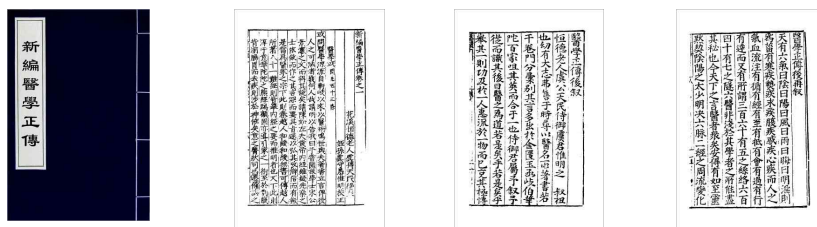
『의학정전』은 개인이 아닌 정부에서 편찬한 공식 조선의 의학교과서이다. 중요도가 높아 官撰으로 간행되었고 동활자와 목판으로 몇 차례 간행되었다. 의서를 비롯한 기술서적이나 법전 등은 관이 아닌 민가에서 유통되기 매우 어려웠고 몇몇 사대부들만이 소장할 정도로 귀했다. 그러므로 이들 서적은 인쇄형태가 아닌 개인 필사로 전해지는 경우가 대다수고 필사본 조차도 귀한 대접을 받을 정도였으니 그 가치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의학정전』이 조선시대 귀한 의학서적이고 관찬본임에도 정확한 내용으로 간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표제명이 『醫學正傳』, 『新編醫學正傳』 등 두 가지로 불리고 있다. 원래 다른 책인가, 혹은 표제명의 호칭이 단순 오류인가 아니면 판본 자체의 오류인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중국의 경우 교감학이 발달하여 각종 서적의 정본화가 보편적으로 우수하다. 의서의 경우도 고대 의서부터 현대까지 초판본과 오류까지 교정, 교감하면서 신활자로 출판되어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中國衛生書局에서 교감된 『의학정전』이 출간되었는데, 이곳에 출판된 『의학정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편의학정전』의 표제명과 혼돈해서 쓰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출간된 『의학정전』과 조선의 『의학정전』을 비교하며 어느 판본을 정본으로 삼아야 할지 살펴보도록 한다.

『의학정전』의 체계와 내용적 교감은 중국이나 조선은 같다. 장서각본은 각 권의 목록과 우단의 서문, 범례 순서로 배열되어 있고 8책 마지막에는 사오의 후제서가 없다. 그리고 표제명은 ‘醫學正傳’이고 각 권 시작 부분의 卷次名도 ‘醫學正傳’으로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1책, 卷1 시작에 있는 「醫學或問」에 대해 52條임을 밝히고 있다. 흑문에 앞서 ‘花溪恒德老人虞搏天民編集’, ‘姪孫虞守愚惟明校正’, ‘博採諸方集成一書故名曰正傳’의 기록이 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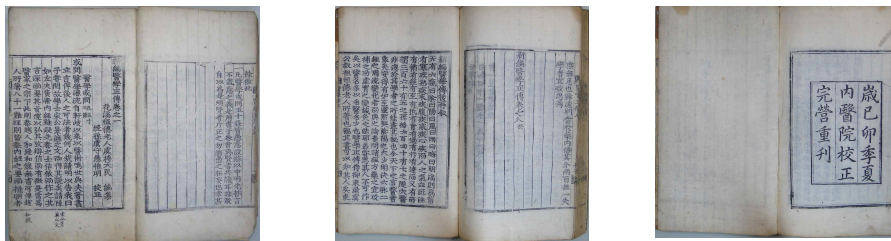
중국본은 표제명은 ‘新編醫學正傳’이고 각 권 시작의 표제명도 ‘新編醫學正傳’이다. 1책, 卷1 시작에 있는 「醫學或問」은 53條임을 밝히고 있고 ‘花溪恒德老人虞搏天民編集’, ‘姪孫虞守愚惟明校正’만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8책 마지막 부분에 뒷땅의 蔣詔가 지은 「醫學正傳後敘」와 사오의 후제서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에서 간행된 판본에서는 볼 수 없는 「醫學正傳後敘」가 있는데 연월일기에 보면 ‘嘉靖辛卯仲春之吉吳郡蔣詔識’라 하였다. 蔣詔는 1521년(正德16年) <辛巳科殿試金榜>에 第三甲 賜同進士出身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국본

23) 앞서 장서각본 사진 참조.

국회도서관은 표제명은 ‘醫學正傳’이고 각 권 시작의 표제명은 ‘新編醫學正傳’이다. 1책, 卷1 시작에 있는 「醫學或問」은 53條임을 밝히고 있고 ‘花溪恒德老人虞搏天民編集’, ‘姪孫虞守愚惟明校正’만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8책 마지막에는 본문 내용만 있고 장조와 사오의 「醫學正傳後敘」, 「醫學正傳後再敘」가 없고 刊記도 없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판본을 살펴보면 마지막에 장조의 「醫學正傳後敘」는 없지만 사오의 「醫學正傳後再敘」가 있고 간기가 있다.



개인소장본(죽하본)

	表題名	卷首題	序文	後序	後再敘	刊記
장서각본	醫學正傳	醫學正傳	○	×	×	×
중국본	新編醫學正傳	新編醫學正傳	○	○	○	×
국회도서관본	醫學正傳	新編醫學正傳	○	×	○	×
죽하본	醫學正傳	新編醫學正傳	○	×	○	○

『의학정전』의 첫부분에 수록된 「의학혹문」은 四書의 或問처럼 의학에 있어서의 몇몇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옛 사람이 마음속의 뜻을 말로 다 나타내지 못한 뜻을 풀어서 밝힌 것으로 문답 형식을 갖추고 있다. 우단이 「의학혹문」을 가장 먼저 수록한 것은 여러 의사들의 학설을 두루두루 참고하고 집안에 대대로 전하여 내려오는 것과 개인의 학술 경험을 결합을 강조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당시 의학적 논쟁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독창적인 주장을 펼치기 위함이었다.²⁴⁾

중요한 「의학혹문」에 대해 중국과 조선에서 간행된 판본이 각기 다르게 확인된다. 혹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서각본을 제외하고 같다. 조항의 내용은 모두 51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판본마다 조항의 숫자가 다르다.

장서각본은 「의학혹문」 33조에서 43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모두 누락되어 있다. 누락된 부분을 살펴보면 32조와 44조의 내용이 각각의 판에 있는 것으로 보아 내용자체가 누락이 아닌 零本인 것이다.

「장서각본」은 목록의 「의학혹문」조항과 본문의 「의학혹문」조항이 모두 52조로 표기되어 있

24) 김형주, 「虞搏의 『醫學正傳』 中 「醫學或問」에 關한 研究」, 『한의학연구소논문집』23집,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2014, 2면.

지만 중국본은 목록에서는 52조, 본문에서 53조로 일치하지 않고 다르다. 국회도서관본은 목록에 51조, 본문에서는 53조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목록 조항	내용 조항	기타
장서각본	52조	52조	본래 51조. 32조~44조 내용 누락, 零本.
중국본	52조	53조	본래 51조.
국회도서관본	51조	53조	본래 51조.
죽하본	51조	53조	본래 51조.

흑문의 내용과 조항의 나뉘 등은 모두 같지만 장서각본만 목록과 내용만 52조이고 나머지 판본은 맞지 않다. 장서각본도 본래 51조의 흑문은 52조로 오류를 범하고 있어 각 판본은 정확하게 출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 판본을 통해 『의학정전』의 정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운데 조선에서 간행된 판본은 후서가 모두 없다. 곧 사오의 후재서가 있는데, 후서나 후재서가 같은 해에 쓰여진 것으로 보아 후서의 누락은 조선에서 출간된 『의학정전』은 모두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장서각본은 서문만 있고 후서, 후재서, 간기가 없어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지만 1819년 간본 보다는 이른 시기로 볼 수 있지만 활자본 보다는 후대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完本으로 볼 수 없고 영본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회도서관본은 후서와 간기가 누락되어 있지만 죽하본을 통해 동일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죽하본은 후서가 없지만 후재서와 정확한 1819년 간행과 완영 중간본임을 알리는 간기가 있다.

조선판본 모두 「의학흑문」의 조항수와 후서가 없는 오류가 있어 정확성에 오점을 남겼지만 현전하는 『의학정전』의 정본을 정한다면 표제명과 卷首題은 『신편의학정전』으로 하는 것이 옳다. 국회도서관본은 후재서와 간기가 확인할 수 없어 개인소장본인 죽하본이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조선에서 간행된 『신편의학정전』의 정본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4. 결론

교과서는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책으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편찬한 서적이다. 특히 의술과 관련된 서적은 인간의 생명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방대한 지식이 담겨 있어야 하므로 주로 국가에서 편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요즘과 다르게 의학서적의 편찬은 국가적 일로 내의원의 엄격한 교열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다.

『의학정전』은 명나라 우단이 만든 최신 의학 서적이었고 조선에 즉시 수입되어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보통 의원부터 왕을 모시는 어의까지 신료도 높은 서적으로 인식되었다. 선조이후 몇 차례 판찬으로 간행되어 의과 시험의 교과서로 채택되기도 하였으며 조선 4대 학파인 정전파를 이룰 정도로 매우 중한 서적이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학정전』의 판본과 정본화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의학정전』의 판본과 유통, 자료의 정확성, 정본화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다.

『의학정전』은 저자 우박의 서문을 통해 1515년에 완성 되었고 바로 출간되지 않고 「醫學正傳後敘」와 「醫學正傳後再敘」를 통해 최소 1531년 이후에 간행되었다.

조선에서의 최초 간행은 갑진자로 출간된 오사카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후 『의학정전』 높은 활용도와 소량의 출간으로 여러 차례 출간을 요청하였고 『고사촬요』 등의 기록으로 보아 장서각본이 시 시기에 출간된 것으로 보인다. 단, 장서각본은 8책8권 완본 소개되어 있지만 최초 裝幀이나 改幀하는 과정에서 상당 수량이 누락된 영본이다.

조선에서 간행된 판본들은 『의학정전』, 『신편의학정전』 등 다르게 표제명이 존재하였고 국회도서관본도 후서와 간기가 확인할 수 없는 불완전한 본이다. 그리고 「의학혹문」의 조항수도 각각으로 다르다는 것도 확인했다. 그러므로 정확한 내외적 요소를 구비한 『의학정전』은 확인할 수 없다.

현존하는 조선에서 간행된 『의학정전』을 정본화 한다면 가장 후대본인 1819년 간행된 『신편의학정전』이 정확도가 높고 현재 개인소장본인 죽하본 『신편의학정전』을 가지고 정본화함이 마땅할 것이다.

참고자료

자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柳馨遠, 『礪溪隱錄』

丁若鏞, 『與猶堂全書』,

규장각, 『의학정전』

장서각, 『의학정전』

국회도서관, 『의학정전』

개인소장본, 『의학정전』

『한의학대사전』,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정담, 2001.

논문

김용한, 「醫學正傳 해석」,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9집, 대한한의학원전학회, 1995.

김현, 김남일, 「‘否’卦의 활용을 중심으로 본 『醫林撮要』 속의 易學思想」, 『한국의사학회지』21집, 한국의사학회, 2008.

김현관, 「『醫學正傳』이 朝鮮時代 醫學에 미친 영향에 대한 考察」, 경희대박사학위논문, 2005.


金憲寬, 車雄碩, 金南一, 「『醫學正傳』의 醫案分析을 통해 본 虞搏의 醫學理論에 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17집, 한국의사학회, 2004.

김형주, 「虞搏의 『醫學正傳』 中 「醫學或問」에 關한 研究」, 『한의학연구소논문집』23집,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2014.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書誌學研究』50집, 한국서지학회, 2011.

이태영, 「완판본과 완영목판」, 『기록문화의 땅 전주』, 전주역사박물관, 2006.

정면·홍원식, 「金元四大家醫學이 朝鮮思朝醫學 形成에 미친 影響」,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9집, 대한한의학원전학회, 1995.



기조강연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교과서 개발과 적용의 지향

/ 윤지훈(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조 강연>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교과서 개발과 적용의 지향

윤지훈(한국교육과정평가원)

- I. 서론
- II. 교과서 관련 정책 현안
- III.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교과서 개발 및 적용 방향
 - 1.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교과서상(像)
 - 2.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교과서 개발과 적용
- IV. 결론

I. 서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전 지구적 팬데믹 현상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다. 인류 사회가 드물게 겪는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은 기존에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학교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그간 대면 위주의 수업 방식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는 등 학교 현장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학업 성취 수준 저하와 학력 격차 심화를 비롯한 비대면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차츰 대면 수업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 역시 코로나 19가 현재 수준보다 심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百年大計’로 일컬어지는 교육의 특성상 이번의 기회에 장기적 안목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등장과 스마트기술의 발달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역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딥러닝, 머신러닝 등을 통해 자가 학습을 하는 시대에, 지식 습득이나 데이터 분석과 같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의 일은 더 이상 인간의 힘을 필요치 않는다. 대신 인간은 기계가 갖지 못한 지혜와 통찰력을 활용하여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 나가야 한다.¹⁾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지식을 관통하는 통찰력을 함양하고, 협동심, 소통, 공감능력 등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만이 지는 고유한 특성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 교육을 다룬 어느 연구에서는 ‘교사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자기 주

1) 최연구(2017),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교육 예측과 전망」, 『FUTURE HORIZON』(33), pp. 32-35 참조.

도적 학습을 강조하고 개별 학생의 흥미와 진도에 따른 개별 맞춤형 학습' 과 '창의·융합적 사고력과 협업적 사고, 문제해결력 등 21세기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한 교과 융합 및 통합 학습' 등을 미래 사회 학교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학습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미래 학교는 디지털 환경 구축을 통해 스마트 패드, 웹 환경, 증강 현실, 디지털 도서관 등의 스마트 학습 환경으로 변화하여 IoT, AR, VR,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교육 매체의 활용이 가능한 학습 공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²⁾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 학교 교육의 방향도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 교육에서 교수·학습 활동의 주요 기재로 활용하고 있는 교과서 역시 기존의 틀을 깨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과서 관련 정책의 현안을 먼저 짚어보고, 포스트코로나시대를 걸맞은 교과서상과 교과서 개발 및 적용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차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교과서 관련 정책 현안

교과서는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교수·학습하기에 알맞게 편집된 학습 자료로서의 학생용 도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과서가 학교 교육에서 다른 무엇보다 주요한 학습 자료의 하나로 기능하기 때문에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 목적, 외형 체계, 발행 절차, 사용 방식 등을 관련 법령에 명기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교육 목표 구현을 위한 교수·학습의 실질적 매개물이자 학습과 평가의 표준적 자료로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7958호 일부개정 2021. 03. 23.) 제29조에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학교 수업에서 교과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에서 교과서가 갖는 위상이 이렇듯 중요하다보니, 교육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교과서 관련 정책도 변화를 거듭하였다. 지난 2020년 10월 5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보면,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이란 정책 과제의 세부 추진 계획의 하나로 ‘교과서 패러다임 전환’이 제시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친 변화 가속화 및 불확실성 심화’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 경기침체의 장기화 예상 속에서 계층 간 이동성 약화 및 사회적 불평등은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미래교육의 정책 방향에 교과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³⁾

2) 주형미 외(2016), 『미래 사회 대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비전 연구(I): 초·중등학교 교과 교육의 방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16-10 참조.

3) 교육부(2020),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p. 7 참조.

[과제 1]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주진 방향	주요 내용
교원·학생 중심 제도 개선	<p>→</p> <p>(2022 개정 교육과정) 분권, 자율, 다양성, 공공성 강화 (고교학점제) 학사제도 개선, 공간조성 등 준비 철저 (중등 직업교육) 실습환경 개선, 사회진출 기회 확대 등 (교과서) 온라인 교과서 등 '만들어 가는 교과서' 체제</p>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교과서 관련 정책의 핵심은 “온라인 교과서 등 ‘만들어 가는 교과서’ 체제”의 구현이다. 기존의 출판사가 만들어 제공하던 서책형 교과서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사가 온·오프라인 교육에 적합한 온라인 교과서를 저작하여 사용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과서 관련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서책형 교과서가 변화하는 지식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면에는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교과서를 제작해서 사용해야 하므로 교사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교과 내용뿐 아니라 교재 제작에 대한 전문성도 교사가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필요에 따라 기존의 교과서를 선택한다면 여전히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교과서에 불만을 느껴 사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자신이 새롭게 교과서를 편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다양화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이 실현된다면 그간 학교 차원에서 선정한 교과서가 따로 있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교재를 편찬하여 사용하던 폐단을 없앨 수 있다.

사실 정부는 학교 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교사의 수업 전문성 및 창의성 신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서 개발·보급을 위해 점진적으로 교과서 자유발행제 관련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초등학교의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하고, 일부 인정 교과서에 대해 자율규제 방식으로 심사를 완화(인정도서 신청 시, 집필진이 교과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스스로 검증한 결과를 제출한 도서에 대해 기초조사를 제외. 본심사도 교과 내용이 아니라 헌법정신, 교육중립성, 지식재산권의 위배 여부만 심사)하여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한 교과서가 학교에서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가 만들어 가는 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온라인 교과서 등 ‘만들어 가는 교과서’ 체제”는 고교학점제 도입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025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교육과정 자율화, 가르치고 배우는 지식에 대한 교사·학습자의 선택권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선택 과목이 개설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선택 과목 교과서의 수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출판사가 제작하여 보급하던 교과서 체제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등 학교 안팎의 교육과정 자율화·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해당 교과목에 적합한 교과서를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전반적인 교육 정책의 방향상 미래의 교과서는 “온라인 교과서 등 ‘만들어 가는 교과서’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교사들에게 교과 내용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교재 제작에 대한 전문성을 함께 요구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라고 하겠다.⁴⁾

4) 최근 원격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수·학습 자료의 유형을 묻은 설문조사에서 ‘교사 자체 제작 자료’를 사용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교사를 대상으로 교재 제작에 관한 체계적 연수가 실시된다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양질의 교재를 제작할 수 있는 전문성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점례 외(2020), 『COVID-19 대응 온라인 개학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원격 수업 실태 및 개선 방향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20-2 참조.).

Ⅲ.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교과서 개발 및 적용 방향

1.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교과서상(像)

처음 국가에 의해 교육의 담론이 형성되고 운영되어 온 근대적 교육제도에서는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과거 학교가 지식의 전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던 시기에는 교과서의 내용이 절대적 진리로 간주되어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라는 사실만으로 내용의 타당성이나 중요성을 부여받았다. 이 시기의 교과서들은 정선된 지식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암기시키며 반복 연습하게 하는 데 편리하도록 제작되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산업 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 지식 기반 사회로 접어들면서 교과서를 둘러싼 기존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머물던 교과서가 학습자 개인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교과서 자체를 가르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목표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게 된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되었다. 세상의 어떤 지식 체계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동시대의 학자들이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상대적 인식론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바라보게 된 것이다.⁵⁾

교과서에 관한 인식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점차 심화되는 추세이다. 더 이상 교과서는 과거와 같이 정전(正典)으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에는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교과서에 연계하여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습과 경험을 연결시키는 생동적인 교수·학습 자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과서를 서책뿐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제작한, 교육과정 적합성을 충족시키는 넓은 의미의 교수·학습 자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지식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다.

최근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에서 개발한 ‘교과서를 활용한 학생의 자기주도적 5단계 비대면 학습’ 지침을 보면, 실제 수업에서 교과서가 교수·학습 자료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

*복수 응답 문항, 단위: 명(%)

구분	답지 교사 자체 제작 자료	EBS 온라인클래스 자료	KERIS (e학습터, 위두랑 등)	시도교육청 제공 자료	사설 교사 지원 사이트 (인디고 등) 자료	기타	무응답	복수 응답 인원
전체	1414(75.3)	734(39.1)	272(14.5)	124(6.6)	237(12.6)	209(11.1)	4(0.2)	1879
초등학교	397(65.5)	136(22.4)	181(29.9)	100(16.5)	195(32.2)	103(17.0)	2(0.3)	606
중학교	519(80.7)	278(43.2)	85(13.2)	15(2.3)	19(3.0)	63(9.8)	1(0.2)	643
고등학교	498(79.0)	320(50.8)	6(1.0)	9(1.4)	23(3.7)	43(6.8)	1(0.2)	630

5) 박소영·김혜숙·남창우·윤지훈·이동엽(2013),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교과서 일반 모형 개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연구보고 CRT 2013-5 참조.

6) 한국교육신문(2020.04.17.), 「초등 원격수업은 교과서로!」 참조.



이 모형은 교육 격차 발생을 우려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최대한 배제하고 학생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교과서를 주 매체로 삼아 온라인 수업을 설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교과서는 교수·학습 자료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위 그림을 보면 교사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탐구를 통해 성취기준 중심으로 탐구형 핵심 질문을 개발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문제를 제시하면,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 안내 절차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스스로 탐구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리고 교과서의 텍스트를 읽고 학습 활동 순서에 따라 텍스트 안에서 관련된 답을 찾은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질문의 답을 표현해 탑재하면, 자기평가와 교사의 피드백을 거쳐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일체형 교과서를 넘어 이를 구성하는 기본 콘텐츠 단위까지를 교과서로 규정하고, 이들을 자유롭게 개발, 유통, 활용할 수 있는 소통과 공유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도 생각해 볼 수 있다.⁷⁾ 앞서 교과서를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수·학습 자료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 교수·학습에 활용되는 다양한 개별 교육용 콘텐츠를 교과서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만약 일체형 교과서의 사용이 필요하다면 한 학기, 또는 한 학년 동안 사용할 교육용 콘텐츠를 하나로 모아서 활용하면 될 것이다. 명실상부 ‘만들어 가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교육용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보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에 ‘온라인 교육 콘텐츠 생태계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 민간, 개인(교원) 등이 참여하여 유·무료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공유·확산하는 개방형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육용 콘텐츠의 활용 제고를 위해 저작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며, 교육용 콘텐츠의 상호운용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질 관리를 담당할 전담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이다.⁸⁾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생태계 조성’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앞서 언급한 교과서에 대한 개념을 개별 교육용 콘텐츠 단위까지로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도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 조용기 외(2019), 『미래 사회 대비 교과용도서 편찬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특성 및 활용 체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T 2019-1 참조.

8) 교육부(2020),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p. 27 참조.

2.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교과서 개발 및 적용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근거해 만들어진다. 교육과정이 어떠한 내용과 형태로 규정되어 있느냐는 교과서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는 교육하는 방법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 형태를 결정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다. 2007 개정 교육과정기부터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기까지 교과서 편찬의 주요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

	편찬의 기본 방향	주요 내용	특징
2007	학생의 학습 능력과 창의력 신장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 편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개인차와 발달 단계 반영 ◦ 학습의 과정, 탐구 과정, 통합적인 사고력 신장 중시 ◦ 학습 과정 중심의 단원 전개 및 체제의 창의적 구안 ◦ 실생활에 응용 가능하도록 실용성, 유용성을 중시 -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으며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편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생활 경험을 반영한 흥미와 동기 유발 ◦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구성 ◦ 다양한 편집, 디자인 기법의 도입, 가독성의 제고 ◦ 개별 학습, 소집단 학습 등 직접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강조 • 생활 경험에서의 흥미와 동기 유발 강조 • 학습 유형, 직접 체험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강조(외형 체제 자율화)
2009	창의·인성교육에 적합한 현장·실생활 중심의 교과용도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 편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인성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 내용, 방법, 평가 구안 ◦ 학습의 과정, 탐구 과정, 통합적인 사고력 신장 중시 ◦ 나눔과 배려의 인성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방법과 활동 제시 -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으며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편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생활 경험을 반영한 내용 구성으로 흥미와 동기 유발 및 이해력 증진 ◦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구성 ◦ 다양한 편집 디자인 기법 도입, 가독성 제고 ◦ 사례 중심, 직접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 기본 방향 유지 • 이해력 강조 • 사례 중심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자료, 심화·보충이 가능한 학습 자료 제시
2015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적합하며, 핵심역량 함양을 도모하는 실생활 중심의 교과용도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인성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편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교과용도서 편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중, 공감, 소통, 협력, 참여, 정의, 배려 등의 인성 요소를 중심으로 인성 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개발 ◦ 교과 특성에 따라 교실 수업 단위에서 인성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내용 제시 ◦ 학생 참여와 협력 및 체험 학습이 강화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제시 - 지식의 창조 및 융합 능력을 신장하는 교과용도서 편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 ◦ 교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제시 ◦ 융·복합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 및 핵심역량 강조 • 자기 주도적 학습 강조 • 실생활과의 연계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강조

9) 윤지훈(2014), 「교과서 관련 정책의 변화와 한문교과서 개발 방향」, 『한자한문교육』35,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pp. 216-217의 표를 재구성함.

편찬의 기본 방향	주요 내용	특징
	<p>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용도서 편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도록 편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의 핵심적이며 필수적인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제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제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으며 실생활과 연계되도록 편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의 생활 경험을 반영한 내용으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도록 개발 실생활에 응용 가능하도록 실용성 및 유용성을 고려하여 개발 다양한 현상과 사례 및 직·간접적 체험 중심의 교육 내용,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제시 	

위 표를 보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이 정해지고, 그 기본 방향에 맞춰 편찬의 주요 내용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 및 적용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022년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미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교수·학습 및 평가 개선, 교육과정 분권화·자율화, 원격수업 경험 반영 등 미래형 교육기반 확대”를 골자로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 놓았다.¹⁰⁾



대체로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오던, 미래 사회의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의미하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될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표방했던 경험 및 활동에 기반한 실생활과 연계된 내용을 중심으로,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교과서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 목표를 인식하고 학습 과정을 모니터

10) 교육부(2020),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p. 5 참조.

링하며, 학습 결과를 창의적으로 재창출하여 지식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초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를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의 분권화 및 자율화를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의 경험을 반영한 시공간을 넘어선 교수·학습 및 평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교육과정과 차별된다. 그러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위와 같은 방향으로 실제 구현될 경우 새로 편찬될 교과서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니는 특징을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선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교육과정 총론의 큰 방향이 공식 문서를 통해 제시된 만큼 교과서 편찬의 방향성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새롭게 편찬될 교과서는 많은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교과와 기본 개념과 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형태로 조직되어야 한다. 즉, 교과서의 내용은 전이가가 높은 핵심적 사항을 위주로 제시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보충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해당 개념과 원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학습한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를 교수·학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실제 생활과 관련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교과서에 제공되는 교육용 콘텐츠는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수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콘텐츠들의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유연한 구조를 가진 콘텐츠로 개발해야 한다. 즉, 지식 전달 중심의 콘텐츠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과 협력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되, 원격 수업과 교실 수업, 온·오프라인 블렌딩 수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별 콘텐츠 단위의 유통을 염두에 둔 완성도 높은 콘텐츠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에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구조를 개방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IV. 결론 : 차기 한문과 교과서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본고는 차기 한문과 교과서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과서 관련 정책의 방향과 포스트코로나시대를 걸맞은 교과서 개발 및 적용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되는 기획 주제 발표들을 고려하여 개별 교과 차원이 아닌 범교과적 내용을 다루고자 했는데, 논의의 방향이 그러하다보니 다소 당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들로 지면이 채워졌다. 이에 기획 주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후 발표될 주제 발표의 활발한 논의의 장을 여는 차원에서 원고를 쓰면서 차기 한문과 교과서 개발과 관련하여 들었던 몇 가지 단상을 제시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현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 구성 체제, 인쇄 및 제본 상태 등도 변화한다. 따라서 한문과 교과서는 차기 교육과정에서 한문과가 어떠한 위상으로 자리매김하는가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차기 교육과정에서 한문과가 주요 교과와 하나로 자리매김한다면 더 바랄나위가 없겠으나, 아쉽게도 지금과 같은 선택과목의 하나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것을 꿈꾸기 보다는 현재 선택

과목 체제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한문의 경우 과목명을 학생 친화적으로 변경하고, 내용도 실생활과 연계된 것들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한자 어휘 및 성어를 중심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단문과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한시를 중심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많은 글감을 나열하기 보다는 현재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작품을 선별하여 여기서 한문 독해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면 현재보다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한문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지 않으면 교과목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선택과목인 한문 I의 경우도 현재보다 내용 및 수준을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거니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제시된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¹¹⁾인 융합선택과목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한문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해당 과목에 적합한 교과서를 적극 개발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융합선택과목의 교과서는 현행 교과서 제도에서 소위 ‘자유발행 적용 인정도서’로 분류되어 일반선택과목에 비해 교과서 집필에 자율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최근 EBS에서 방영된 6부작의 ‘당신의 문해력’이란 TV 프로그램을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글을 읽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휘력의 부재, 그것도 한자 어휘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한문 교육의 방향을 한자 어휘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옮겨 갈 수는 없겠지만, 기왕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한자 어휘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한자 어휘의 제시 방식에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교과서가 바뀌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과정의 변화는 주로 교육 내용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교과서의 구성 체제는 교육과정보다 교수·학습 방법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 코로나 19 및 4차 산업혁명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교수·학습 방법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심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그간 정형화되다시피 한 한문 교과서 구성 방식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와 시대 변화에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1) 교육부(2021),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참조.

2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문과 교과서 개발과 적용 논의의 필요성과 과제

발표자: 허철(단국대) / 토론자: 김병철(군포고)

언택트 시대에서 본 현행 교과서 체재와 구성 연구

발표자: 김왕규(한국교원대) / 토론자: 이군선(원광대)

온택트 시대를 대비한 고등학교 한문 I의 수업 모형 구안

발표자: 심규현(고양고) / 토론자: 이성형(공주대)

언택트 시대와 고교학점제를 고려한 자유발행 한문교과서 개발 방안

발표자: 손형태(전북교육정책연구소) / 토론자: 양대희(영생고)

漢文科에서 학생 스스로 質問하고 探究하는 學習은 가능한가?

발표자: 공민정(두루중) / 토론자: 김여명(교원대)

온택트 시대의 새로운 한문교과서 구성을 위한 제재 선정 방안과 실제 적용

발표자: 정효영(등촌중) / 토론자: 김은경(성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문과 교과서 개발과 적용 논의의 필요성과 과제

허철(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

1. 서론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17세기 흑사병의 대유행 이후 전세계에서 가장 유행하고 파급력이 큰 전염병이다. 코로나19를 둘러싼 여러 논쟁, 즉 기원이나 예방, 퇴치 등 의학적인 관점 말고도 사회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유발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봉쇄 등은 인간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용어의 등장과 함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전과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백신의 개발과 보급, 치료제의 상용화라는 의학적 문제에서 벗어나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전염병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시대가 오더라도 인간의 생활은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많은 예상이 도출되고 있다. 뉴노멀, 새로운 시대의 변화는 교육이라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사회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은 이미 예견되어 있다.

사실 1982년 이후 통신 수단의 발달과 함께 원격 교육의¹⁾ 장점이 부각되었고 다양한 매체, 예를 들어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 수단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지식 습득의 방법과 그 가치와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랫동안 주창되었으나, 현실사회에서 원격 교육은 학교 교육을 보조하는 수단이나 혹은 학교 교육을 수행할 수 없는 수요자들을 위한 다른 형태로 인식되었다. 한번도 동일 공간과 동일 시간이라는 원칙을 넘어선 원격 교육이 교육 현장의 주류가 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1년 간의 시간 동안 동일 공간이 폐쇄됨으로써 원격 교육은 동일 시간 만을 유지한 형태가 되었고, 학교 교육이 제공해 주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교육의 질 저하나 불평등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로 사용되었다. 그 모색을 통해 발견된 교육의 형태는 실제로는 코로나19 이전에 제시되었던 여러 방법들의 실천적 구현일 뿐이었다. 곧 원격교육의 다양한 방법론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차용되고 응용되며 발전했다. 그러나 이런 원격 교육의 형태가 근본적인 교육의 형태나 개념 변화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원격교육의 형태 혹은 교육 도구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실제 교육의 목적과 역할 등에 대한 관점의 변화까지 포함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인재들은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하며, 그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코로나19 사태와 무관하게 여겨지는 듯 하다. 한편 생각해보면 코로나19는 시대적 변화의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시대가 지향하는 모습은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인재상과 무관할 수 없다. 실제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교육은 근대 이후 형성된 교육과 완전히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근대 이전의 교육이 소수의 엘리트 양성을 위한 교육, 혹은 자발적 수요에 의한 직업 교육이었다면, 근대기 형성된 교육인 “질 좋은 노동력” 혹은 “평균 이상의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보통 능력과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을 양성”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간은 “자기주도적으로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파악하며 해결하는 과정에 필요한 역량을 지녀, 개인의 역할을 통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간형”이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역할이 구분되는 동시에 그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며, 주체적

1) 원격교육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국제통신교육협회(International Council for Correspondence Education)의 명칭이 국제원격교육협회(International Council for Distance Education)으로 바뀌면서였다.

생산자와 수동적 생산자가 플랫폼안에서 구분되거나 혹은 혼재할 것이다. 물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들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겠으나, 미래 산업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보통의 능력을 지닌 다수를 양성하는 목적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래 교육은 결국 전체보다는 개인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 맞춤형 교육 혹은 수요자 중심 교육을 통해 특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이거나 산업 사회에 필요한 소비형 인간 혹은 직업 중심의 인재상 구현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각 국에서 시행하는 선택형 교육과정의 확대나 고교학점제 등의 정책적 방향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SMART교육이란 기회의 평등이라는 선언을 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이미 불평등과 지식 계급화를 인정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 교육과 수요자 맞춤 교육이라는 현실적 요구 앞에서 한문과 교육이 지향해야 할 점은 명확해 보인다. 실제 한문교육은 근대 이전 지배계급과 관련한 형식과 내용이었으며, 근대 이후 보편 교육으로의 지향을 추구하였다. 1972년 한문과의 신설 이후 지금까지 50년을 가까운 동안 한문과 교육은 보통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보통교육은 교양교육이며, 그 사회에 필요한 교육적 가치와 이상을 모색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사회의 정체성과 함께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회는 다시 변화하여 보통 교육이면서도 학습자를 중심과 맞춤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한문과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지난 50여년 동안 애써 보통교육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거나 적응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적용이 한문과의 지향이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되고 있는 뉴노멀 교육을 4차 산업혁명기 교육의 지향과 인재상과 연결하여 살펴보고, 한문과 교육의 변화의 최종 결과물이자 변화 매개로서의 한문과 교과서가 지향해야 할 형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교육의 뉴노멀과 4차 산업 혁명의 시대

우리나라 교육부는 코로나 19 이후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의 핵심 가치를 “지속성”, “포용성”, “자율성”과 “안정과 건강”에 두고 유·초·중등교육은 국가 책무성 및 현장 자율성 강화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새로운 교원제도 마련, 학생 중심 미래형 학교 조성, 성장 지원 교육 안전망 구축,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미래 사회 핵심 인재양성, 고등 직업교육 내실화,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 디지털 전환 교육 기반 마련,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10개항을 선언한 바 있다. 이 선언의 배경에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있다.

우리는 21세기 초입에 맞닥뜨린 지식정보사회에 충분히 적응하기도 전에 지능정보사회라고도 불리는 4차 산업혁명사회를 다시금 맞이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정보기술이 발달되어 ‘물질’보다 ‘지식’의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사회 변화를 의미한다면,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는 정보와 지식 중심의 디지털 기술이 실제 세상으로까지 회귀하여 우리 삶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곧 새로운 시대는 이제까지 인간에 의해 생산되고 유통되던 지식과 삶의 형식이 사람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이 인류가 생성해 놓은 재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지식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그러한 생산을 지도하는 한편 다수의 사람들은 소비와 유통만을 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이미 현재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감성을 대신하는 기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로봇들이 실제 사용되어 커피를 제작하고 음식을 만들며 운전을 대신하고 정비를 하는 물리적 노동력을 대신하는 한편,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통역과 번역(특히 고전 한문 번역) 등은 물론이요, 다수의 추론과 의사 결정 권한을 넘어 창작까지도 대신하고 있다. 세상의 변화는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결과물과 인간의 결과물을 혼동할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러, 가상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수용하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날이 갈수록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인간은 이러한 알고리즘을 조

정하고 제작하는 계층과 기계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생산물을 소비하는 계층으로 분류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라는 역사적 사건은 이를 가속화하는 대표적 사건으로 인식될 것이다. 코로나19를 통해 인류는 갑작스럽게 비대면의 상황에 놓이게 되어 천천히 시간적 흐름에 의해 변화될 줄 알았던 지능정보사회의 변화를 바로 목도하는 현실이 되었다. 수 십년에서 수 백년이 소요될 줄 알았던 백신은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수집 데이터의 의해 1년도 안되는 시간 동안 개발되었고, 교육 현장은 현장 교육을 전면 금지 당한 상태에서 부수적 혹은 추가적 교육 수단으로 여겨졌던 원격 교육이 교육의 주된 형태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니 변화에 적응한 인간은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예전과 같은 형태로 회귀하려 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최근 교육에서 하이브리드와 블랜딩 교육 형태가 새로운 형태가 될 것이라는 예견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이다. 한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회의와 같은 대면 활동만이 전부였던 시대에서 갑작스런 비대면 회의와 업무를 거쳤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비대면이 대면에 비교해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머리 속에서의 예상이 아닌 실재를 통해 학습하였다. 이제 인류의 삶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될 것 혹은 그 장점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삶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앞으로 인류의 삶은 VR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레디플레이어 원에서 보여줬던 미래 사회의 모습이다. 루브르 박물관의 작품들을, 경복궁을 우리는 단순한 디바이스를 통해 실제 가본듯한 경험을 제공받게 되며, 수 많은 과학 실험들 또한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볼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되어 있다. KDB 산업은행 경제연구소(2020. 05. 25.)가 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 트렌드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코로나 19 이전 인터넷 강의로 대표되던 이러닝 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공교육 온라인 개학과 비대면(Untact)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에듀테크, 즉 교육과 ICT 기술이 접목된 교육산업으로의 트렌드 변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일방향의 온라인 교육에서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원격토론, 학습보고서 작성 등이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화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공교육의 위기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에듀테크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공교육과 에듀테크의 접목을 통해 K-에듀 발전의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KDI 경제정보센터).

월E에서 본 것과 같이 인류는 소비의 주체자로 경제를 운영하는 사회로 변화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시대가 우리 앞에 조금씩 보여지고 있고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지금까지 교육에서 추구했던 인재상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은 최근 지식습득-암기 중심의 수동적 교육보다는 다양한 역량 함양 중심의 능동적 교육을 강조하고, 사회의 변화 요구에 맞추어 학교 교육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비록 현재 우리가 진단하고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미래 핵심역량 교육이 사회정의와 불평등 완화의 필요성, 미래사회에서 발생하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 역량의 개념적 취지가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어떻게 매개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점 등의 한계점들이 있음에도, 선진국들은 역량 기반의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평가제도, 교원 전문성 향상을 비롯한 교육혁신을 실천하면서 총체적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도 다르지 않다. 국내 교육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학교는 유연하고 복합적인 학교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며, 학제 역시 유연화되어 무학년 및 무학급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학교 인프라는 테크놀로지와 지역사회가 중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자치 및 학교동공체가 활성화될 것이고, 평가는 학생의 삶 및 학습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다. 교사는 학습디자

이너, 컨설턴트, 멘토, 네트워크 관리자 등의 역할이 중시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래사회에서 학교의 소멸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지만(OECD, 2001), 오히려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학교는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이외의 곳에서 미래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나 준비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학교는 여전히 유효하다 할 수 있다. 문제는 학교의 형태와 교육의 내용, 그리고 교육이 지향하는 인재상에 있다.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육의 변화는 교육 철학 및 목표 영역에서는 평생교육, 개성 교육, 협력, 인간존중 등을 지향하며,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삶 중심의 교육과정을 추구하고, 교육내용 영역에서는 역량 및 시민성 중심의 교육을, 교육방법 영역에서는 다양한 테크놀로지 및 네트워크 기반의 교육을, 교육복지 영역에서는 교육 소외자 및 소수자를 위한 교육복지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인재상에 관한 관점도 중요하다. World Economic Forum(2016)에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의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이 중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능력에 대한 분류이다. 어떤 능력을 지닌 인재상을 구현해야 하는가이다. 인지능력과 신체능력 중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지능력이다. 한문교과교육인 인지적 교육이기 때문이다. “유연한 인지, 창의성, 논리적 추리력, 문제 민감성, 수학적 추리력, 시각화 능력”이다. 또한 기본능력으로 “능동적 학습력, 발표력, 독해력, 문장력, ICT 역량”을 직무처리 역량으로 “경청, 비판적 사고, 모니터링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미래 인재상은 ICT 역량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 추리력과 창의성을 갖추면서도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능력 중 문식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래 문식성, 혹은 디지털 문식성은 단순히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식을 통해 논리적으로 추리하고 창의하며 이를 다시 새로운 지식 창출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혹자는 4차 산업혁명이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된다면, 상당수의 인간이 미래에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교사, 학부모, 학생을 위한 미래 교육 길잡이」와 「미국 100대 명문 사립 고교가 물고 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대혁신 ‘점수가 아니라 역량이다.’ 성적 없는 성적표」에서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평생교육대학 류태호 교수는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대중화로 감소하지만, 이는 인간의 지위가 높아진 결과라는 의견이다. 즉, 인간은 단순한 업무를 인공지능에 넘기고 더 복잡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갖춘 지식 자본가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을 소유한 물질 자본가를 중심으로 한 소위 슈퍼리치 경제가 출현할 수도 있다. 이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다양화된 욕망을 충족하는 데 소비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출현을 촉진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사회는 비판적 사고를 갖고 사회적 기술과 인지적 능력을 토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융복합(또는 ‘통섭형 인재’ 또는 ‘하이브리드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최근 미국 100대 사립 고등학교는 ‘역량 평가’ 추진하고 있다. 역량 중심 성적표로 전환하고 있다. 기존 성적표와 달리 과목명과 과목별 점수가 없다. 대신 학생이 가진 역량의 수준을 알려주면서 학생의 자질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분석적 창의적 사고, 복합적 의사소통, 리더십과 팀워크, 디지털, 양적 리터러시, 세계적 시각, 적응력과 진취성, 모험 정신, 진실성과 윤리적 의사결정, 마음의 습관, 사고방식 등 8가지다. 다시 말해,

기존의 교육의 틀로는 미래 인재 양성을 할 수 없음을 이미 파악하고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Z세대로 불리는 학습자의 특성은 과업을 동시에 처리하고, 연봉보다 직업의 의미를 더 큰 동기부여로 삼으며, 자기 주도적인 문제 해결자의 성향을 보이고 정보와 미디어 활용에 능숙하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이러한 미국의 변화가 정답은 아니라면서 한국형 모델 개발해야 문화 차이도 역량 중심 교육의 도입을 위해서 고려할 부분이다. 미래에 관한 것이지만 공상의 미래가 아닌 우리 앞에 닥친 미래에 관한 논의이다.

3. 한문과 교과서 변화에 필요한 기본 관점

교육 분야에서는 이미 '학습 동기만 있으면,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는 시대',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는 시대'이다. ICT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은 이미 잘 알려진 칸 아카데미(Khan Academy) 등의 인터넷 동영상 교육뿐 아니라 강의실 없는 대학으로 유명한 '미니네르바 스쿨(Minerva School)', 개별화 교육, 메이커 교육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등지에서는 무크「MOOC(www.mooc.org)」로 혼자 공부하고 명문대학에 합격하는 학생의 사례를 소개하며, 2015년에 출범한 한국형 K-MOOC(www.kmooc.kr) 도 대학의 고품질 강의는 물론 생활영어나 골프, 요가 같은 취미 수업부터 부동산이나 재테크까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로, 여기에 교수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채팅 수업도 늘어나면서 수업 시간 동안 수강생과 교수가 질문을 주고받는 'Learn by doing' 교육 방식을 이용한 MOOC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교실이 되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수준별 학습이 이뤄지는 '에듀테크(EduTech)의 스마트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에듀테크(Education Technology)라는 명칭을 통해 어댑티브 러닝(Adaptive Learning), 소셜 네트워크 학습 플랫폼, 태블릿 PC를 이용한 증강학습, 교육용 게임, 빅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학습 코칭 등 배움의 형태도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교육부 이미 사회, 과학, 영어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AR, VR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자기 주도 학습법인 '디지털 교과서'의 보급을 시작했고, 인공지능(AI)을 통한 학생 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가르치는 영어교육 시스템을 공교육에 처음 도입한 데 이어 이를 단계적으로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다시 한문교과로 논의를 줄여보고자 한다. 한문교과는 현재까지 어휘와 관련한 언어 생활과 고전 독해력 향상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하였다. 때에 따라서는 어휘를, 때에 따라서는 독해력을 갖춘 인재를, 또 때에 따라서는 이해와 감상능력을 지향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한자와 한자를 이용한 한문텍스트의 독해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성교육 혹은 도덕적 인성 교육, 동아시아 한자문화권과의 상호 이해 등을 최종적 목표 혹은 의의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목표가 의의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유효한 인재상 구현 혹은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만일 긍정적인 대답이라면 한문교과가 미래에 유효한 지식 습득의 교과가 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변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필자는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는 한문교과가 지향할 미래 인재 교육의 방향이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듯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네이버나 구글 혹은 다양한 인터넷 자원들로 이제 필요한 지식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자동 통역과 번역기 등의 도구는 이러한 지식 탐색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곧 지식에 대한 개념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알고 있는 정보의 양보다는 수많은 정보의 질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곧 교육 현장에서는 ‘암기가 필요한 기억력 테스트 영역인 5지 선다 중 정답을 찾는 지식’은 인공지능 등 대부분 에듀테크의 기술로 대체할 수 있지만, 창의성이 필요해 인공지능의 능력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은 인간이 해야 하므로 그런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교육 패러다임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곧 비판적 사고 능력과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더 나아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기본 역량을 갖춘 인재이다.

현재의 한문교과서를 비추어보았을 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비판적 사고 능력 뿐 데이터 처리 능력 등과 융합적 사고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비판적 안목으로 재고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쉬운 교과서는 모든 지식을 집대성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해 주는 교과서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 능력과 창의성 등을 논리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과서이자 위계 학습을 통해 전학습과 후학습을 연계해 주는 체계를 갖춘 교과서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한문교과서가 지향해야 하는 점은 한문과의 학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은 무엇이며, 지식의 분석과 창의력은 타 교과에 비해 어떤 면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상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 관점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이다.

언급하였듯 미래 사회의 교육은 중등 단계로부터 무학년 및 무학급제가 예상되고 있으며, 학습자의 선호와 능력에 따라 어댑티브 러닝, 곧 수요자 맞춤형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교사의 역할에 대한 정의도 달라지고 있음은 위에서 언급하였다. 다시 말해,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개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개별 능력의 발달 정도가 달라지는 형태적·질적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별 맞춤형이면서도 학교 교육의 특성을 살린 공교육의 특성도 함께 포함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학년 혹은 학제에 따른 균질적 목표 도달, 다시 말해 성취 정도에 대한 일정한 요구를 재설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근대 이전 개별화된 교육과 근대 이후 학교제도의 도입을 통한 보통 교육이 혼합되는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현재의 공교육 시스템에 수요자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한 개별 학습 내용이 제공되는 동시에 균질적 교육을 위한 목표점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럼 한문교과가 이렇듯 수요자 특성이나 요구에 맞는 교육 내용을 차별화·세분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주지하듯 한문과의 성취 목표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어휘를 습득하고 활용하는가에 대한 측정이나 어느 정도의 독해력에 따라 성취수준과 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나 적용은 없다. 또한 한문교과의 교육 의의에 대한 객관적 수준이나 기준에 대한 제시도 뒤따르고 있지 않다. 곧 어휘학습을 통한 언어생활이나 기초 독해력 향상을 세분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울만한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중·고등 분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배정 한자만 익히면 한문과의 성취수준을 취득한 것처럼 간주된다. 곧 모든 교육에 있어 위계화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한문교육 연구자들이 이미 여러 차례 위계화에 대해 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문교육은 변함없는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문교과서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를 중심에 놓고 대주제와 소주제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한 방향만을 쫓아가고 있다. 실제 한문교과서가 국가수준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내용 변화 측면에서 필자는 동의하기 어렵다. 맞춤형 교육, 혹은 수요자 중심 교육을 내부 내용의 정치화에 두지 않고, 형식적 틀만 쫓고 있는 형국이다. 수요자 중심교육이란 수요자들이 무엇을 학습하고 자기 역량화할 수 있는 것인가이다. 수요자들이 한문교과를 통해 습득한 내용이 자신의 삶에 어떤 긍정적 영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맞춤형 교육이란 개별 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성취 수준에 따라 다음 성취를 제시하는 위계화된 교육을 말한다. 위계화는 곧 각 위계에 따른 각기 다른 성취 목표가 제시되어야 함이며,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는 이러한 성취를 효율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틀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수-학습과 평가는 모두 교과서를 통해 제안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과서는 유형의 것이면서도 무형을 포함한 모든 교육 활동과 학습 활동의 길잡이로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전자교과서의 개발과 오프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교과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각각의 역할에 대한 구분이 명료화해야 한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현재의 교과서는 학업 성취에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고 비판하며, 정리하고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하여 판단하는 구성과 절차가 아니라, 저자에 의해 제시된 인지적 내용을 수용하는 과정으로만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곧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서 제작이 아니라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제시하고 있는 현재의 교과서는 결국 수동적 학습 내용 전달 밖에 할수 없다. 때에 따라서 한문교사가 필요한 내용을 재구성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새롭게 구성하더라도 한문교과의 본질적 특성이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수동적 암기와 반복, 교사의 지식 전달에 의한 수동성을 탈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어교육의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달에 초점을 맞춘 것일 뿐 주도적 학습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 교과에서 학습자의 주도적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재미는 모르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자신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그 해결 방법과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한문교과서의 제작 원리와 방향은 이런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문교과의 목표에 대한 재설정 뿐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내용의 세분화,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한문교과 혹은 종합학문 기초로서의 한문교과에 대한 인식은 이런 개별 연구와 수행이 뒤따르고 나서 논의될 수 있다.

세 번째 관점은 한문교과의 과목 구성과 내용 구성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고민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은 그 조직의 문화(culture), 비전(vision), 독자성(identity), 다름(difference)이 있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되어갈수록 고도화, 전문화된 인재와 보통 교양을 가진 사람으로 구분될 것이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제시한 바 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이러한 사회 변화에 기반하고 있는 개념이다. 선택과 집중이 한문교과에서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 50여년 동안 한문교과가 걸어왔던 길이 근대 이전 한자와 한문이 주요 문자와 주된 기록 수단이었던 때와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자와 한문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나 주장에서 우리는 그러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한문교과는 여전히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문사철 등의 동양 고전 문헌이나 사상, 전통문화, 우리의 일상 언어 등 한문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타 교과와 비교해 보면 너무 넓어서 마치 모든 것들에

연결되어 있거나 배경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물과 같이 모든 것과 섞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한자와 한문 텍스트라는 시각적 부호와 표기가 타 교과와 다를 뿐 한문교과가 추구하는 목표나 의의가 타 교과를 통해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곧 한문 교과 고유의 특수한 교육적 효과와 의의를 설명하기 어렵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취와 사를 해야 함에도 전통의 모든 것을 어떤 것도 변별하지 않고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곧 SWOT 등의 다양한 분석 방법론을 통해 한문교과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미래사회에서 한문교과가 지향해야 하는 바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그 목표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한문교과가 모든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교양교과가 되어야 하는가, 곧 필수교과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전체 사회의 변화와 교육의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위상의 문제가 반드시 한문교과가 이루어야 할 성취이자 목표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한문교과의 구체적인 목표를 단순화할 필요가 발생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단순화된 목표에 따라 개별 교과목으로 세분할 수도 있다. 곧 한문교과서는 한문교과교육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들이 취사 선택한 목표를 지향하는 구성이 되어야 한다.

4. 결론

교과교육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현실에 발을 딛고 눈으로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다리를 들어 어느 방향으로 발을 옮길지 고민하는 성찰적 태도와 미래지향적 태도를 요구한다. 미래 사회에 변화에 대한 통찰력으로 교육과정의 설계와 변화를 가설하고 실험 방법을 제시하며, 실험을 통해 미래 인재상의 구현 여부에 도달하였는가를 살피는 것은 교과교육연구자의 주된 역할 중 하나이다.

도, 우린, 상품의 기획·개발·선전의 주체가 누구인지, 신상품의 효용성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그 副作用과 濫用, 誤用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늘, ‘萬里霧中’이다.

갯빛 雲霧 속에서 위기감을 감지한 누구인가 “고교학점제하에서 한문 과목은 그야말로 百尺竿頭에 놓인 운명”³⁾이라고 촉급하게 絶叫했고, 꼼꼼하게 새 상품의 사용 설명서를 들여다본 누구인가 “고교학점제 도입이 교과 위기가 아닌 한문 교과에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다방면으로 동시에 일어나 더욱 발전하는 機會”⁴⁾일수도 있다고 나지막이 呻吟했다. ‘百尺竿頭’와 ‘機會’ 사이에 길은 있는 것인지, 참으로 苦痛스럽지만, 다시 한문교육학 연구자로서 길을 나선다. 里程標는 고등학교 한문과 ‘선택과목’ 교과목 편제[구조화]와 ‘선택과목’ 단원 구성 방안이지만, 채비를 온전하게 꾸리기엔 힘에 부쳐, 이 글에서는, 동학들의 선행 연구 성과⁵⁾를 힘입어, 凡朴하게 자료를 제시하고 疏略하게 의견을 기술한다. 동학들의 문제 제기와 비평을 수용하여 다시 旅裝을 꾸리기로 한다.

II. ‘選擇科目’ 教科目 編制 方案

1. 교육부 과목 구조 개편 방안

국가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고교학점제를 정의했고,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될 것을 強制하면서, 학생이 과목의 내용·위계를 고려해 (과목을)선택할 수 있도록 과목 구조 개편 방안을 내 놓았다.⁶⁾

<표 1> 학생 선택 중심 과목구조 개편 방안>

- 3) 윤지훈(2019), 27면. 참조.
 4) 배희정(2020), 147면. 참조.
 5) 윤지훈(2019)과 배희정(2020)이 고교학점제 및 차기 교육과정 개정 관련 선행 연구이다. 이 번 학회 발표 내용 가운데, 손형태(2021), 「언택트 시대와 고교학점제를 고려한 자유발행 한문 교과서 개발 방안」이 주목된다. 필자에게 교정 중인 미발표 논고와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준 손형태 동학에게 깊이 감사한다.
 6) 교육부(2021a), 14면. 참조. 참고로 교육부가 제시한 고교학점제에서의 선택과목 과목 이수 시기 및 과목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고교학점제에서의 과목 이수 시기 및 과목 예시(보통교과) ＞				
편제	공통과목	선택과목		
		일반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이수 시기	1학년 1~2학기	1학년 2학기 ~ 3학년 2학기		
과목 예시	수학(기본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윤리와 사상, 생명과학 I	인공지능 수학 여행지리, 융합과학	심화수학 국제정치, 고급 물리학

2 한국한문교육학회 2021년 춘계 학술대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과서 개발과 적용의 지향 및 교재 개발을 위한 한문 교육컨텐츠의 발굴 및 활용

< 현행 >		< 개편 방안 >		
교과	과목	교과	과목	과목 성격
보통	공통과목	보통	공통과목	기초소양 및 기본학력 함양, 학문의 기본 이해 내용 과목 (학생 수준에 따른 대체 이수 과목 포함)
	일반선택과목		일반 선택	교과별 학문 내의 분화된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 선택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
전문	전문교과 I (특목고)		진로 선택	교과별 심화학습(일반선택과목의 심화 과정) 및 진로 관련 과목
	전문교과 II (특성화고)	전문	전문공통	직업세계 진출을 위한 기본과목
			전공일반	학과별 기초 역량 함양 과목
			전공실무	NCS 능력단위 기반 과목

<표 1>를 따져본다.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4개의 교과 영역, 12개의 교과(군), 7개의 공통과목으로 편성되었다.⁷⁾ ‘방안’의 핵심은 7개의 공통 과목은 ‘기초소양 및 기본학력 함양’이라는 명분하에 그대로 유지했고, 이 전의 체육·예술 영역[체육, 예술], 그리고 생활·교양 영역[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과 전문교과 I 을 함께 ‘選擇科目’이라는 美名 아래 一括 묶었다. 동학들이 우려하듯이, 생활·교양 영역[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안에서의 선택도 버거운데, 공통과목을 제외한 교과 전체를 대상으로 학습자의 선택을 받아야하는 形局이다. 진로와 연계한 학습자의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包裝된, ‘改編’이 아닌 ‘改惡’의 결과물이다.

2. 한문과교수협의회 및 한문교육학 관련 학회 공통 안

2020년 7월 1일, 전국한문과교수협의회장 김우정교수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 개편 방향’ 구안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에 참석하였고, 이 협의회 전에 한문교육학 관련 학회에 교과목 편제 및 구조화 방안 자문을 구하였다. 이 회의에 제안된 안이 <표 2>, <표 3>인데, 필자가 임의로 협의회 및 학회 공통 안으로 명명한다.

<표 2> 협의회 및 학회 1안⁸⁾

교과(군)	필수 과목	선택과목			
		기초	일반선택	진로선택	심화선택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문예 창작 입문, 문학 개론,...
한문			실용한자, 한자문화권의 이해, 기초 한문	중급 한문, 동양고전 기초, 한국한문고전 기초	고급 한문, 한시 감상, 한문 산문 감상, 동양고전 독해, 한국한문고전 독해
수학	수학	기본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	심화 수학 I, 심화 수학 II,...

<표 3> 협의회 및 학회 2안⁹⁾

7) 4개의 교과 영역과 교과(군)은 기초 영역[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영역[사회(역사/도덕 포함)], 체육·예술 영역[체육, 예술], 그리고 생활·교양 영역[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이다. 7개의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 사회, 통합 과학, 과학탐구실험이다.

8)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 개편 방향’ 구안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2020, 7.1

9)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 개편 방향’ 구안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교과(군)	필수 과목	선택과목			
		기초	일반선택	진로선택	심화선택
기술· 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생명과학, ...	
한문			실용 한자, 한자문화의 이해, 기초 한문	중급 한문, 동양고전 기초, 한 국한문고전 기초	고급 한문, 한시 감상, 한문 산문 감상, 동양고전 독해, 한국한문고전 독해
영어	영 어	기본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심화영어회화 I, ...
영어 외 외국어			독일어 I, ...	독일어 II, ...	전공 기초 독일어, 독일어 회화 I, 독일어 회화 II, ...
교양				철학, 논리학, ...	

1안은 ‘한문’을 국어, 수학, 영어 등과 동일한 위상을 지닌 교과로 편제하고, 선택과목 교과목을 구조화한 것이다. ‘한문’ 교과의 특수성 곧, 국어과와 한문과의 공통 교과 내용을 고려한 것인데, 이 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협의록에 자세하다.¹⁰⁾ 2안은 1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미리 전제하고, 그 대안으로 마련한 것인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편제에서 제2외국어와 분리한 점을 강조했다. 2안의 대안으로서의 여타의 안 또한 협의록에 기술되었다.¹¹⁾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2외국어/한문’ 영역 세미나 안

2021년 3.2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제2외국어/한문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위한 세미나’를 開催하였다. 현행 한문과 교육과정의 현황과 쟁점을 摘示하고, 차기 교육과정 개발 방향과 교과목 구성 방안을 마련했는데, <표 4>의 例示이다.

<표 4> 고교학점제에서의 보통교과[한문] 과목 예시¹²⁾

2020, 7.1

10)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 개편 방향’ 구안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2020, 7.1. “제3차 교육과정 이전까지 ‘한문’은 ‘국어’의 병행교과 또는 부속교과로 편제되어왔음. 이는 ‘한문’의 교과 내용이 한국어와 분리할 수 없는 요소가 많기 때문. 다만 ‘국어’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도 상당하고 한글전용 정책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하는바 ‘국어’의 일부 선택과목이 되는 것은 사회적 논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한문’이 ‘외국어’ 교과가 아닌 역시 분명하므로, ‘영어 외 외국어’ 군에 포함시키는 것도 교과 성격에 합치하지 않음. [1안]은 이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한문’교과의 특수성과 ‘국어’와의 연계성을 아울러 고려한 안임.”

11)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 개편 방향’ 구안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2020, 7.1 “[2안]은 [1안]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외국어’ 교과에서 분리하는 것이 핵심임. 만약 편제구조상 [2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면, ‘영어 외 외국어’를 ‘영어 외 외국어와 한문’ 또는 ‘영어 외 외국어/한문’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임.”

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1), 83면. 참조.

4 한국한문교육학회 2021년 춘계 학술대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과서 개발과 적용의 지향 및 교재 개발을 위한 한문 교육컨텐츠의 발굴 및 활용

교과	과목	과목 예시(1안)	과목 예시(2안)
보통 교과	공통과목	기본 한문	기본 한문
	일반선택과목	한문 I, 한문 II	한문 I
	융합선택과목	여행 한문, 실용 한문, 고사성어 한문 등	여행 한문, 실용 한문, 고사성어 한문 등
	진로선택과목	한문 산문 감상, 한시 감상, 동 양고전의 이해, 한국한문고전의 이해 등	한문 산문 감상, 한시 감상, 동 양고전의 이해, 한국한문고전의 이해 등

<표 4>에서 ‘기본 한문’이라는 공통과목 개설이 注目된다. 공통과목 개설의 난점을 豫見¹³⁾하면서도, “한문과 같이 중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어 있는 교과들은 학습의 위계성 및 체계성을 고려하여 중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기본과목의 개설을 보장해 줄 필요”¹⁴⁾를 강조했다. 교육부에서 규정한, 선택과목의 하위 3가지 유형의 선택과목의 성격¹⁵⁾에 따라 (1안), (2안)에서 교과목을 개발하고 구조화했는데, 특히 융합선택과목 취지에 맞는 부분을 특화하여 몇 개 과목의 개설을 例示했다.¹⁶⁾ 고교학점제 체제 아래에서 한문 교과목과 관련된 학생들의 선택폭을 다양화하기 위한 苦肉之策이었음을

특히 특목고를 중심으로 개설되던 전문교과 I의 교과목들이 보통교과의 진로선택과목으로 편제되어 특목고가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개설 가능한 과목으로 가능하다면, 한문과의 경우는 다른 교과에 비해 선택과목이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한문과 선택과목의 재구조화는 무엇보다 다른 교과 선택과목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새로운 교과목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¹⁷⁾

라는 논의에서 感知할 수 있다.

4. 고등학교 한문과 ‘선택과목’ 교과목 편제 試案

필자는 동학들의 선행 연구 성과와 몇 가지 방안을 참고하여 고등학교 한문과 ‘선택과목’ 교과목 편제 및 구조화 시안을 <표 5>로 제시한다.

<표 5> 한문과 ‘선택과목’ 교과목 편제 시안

- 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1), 82면. 참조. “하지만 정책 방향 상 모든 교과에 공통과목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를 가리킨다.
- 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1), 82면. 참조.
- 15) 교육부(2021a), 14면. 참조.
- 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1), 83면. 참조. “예를 들어, 문화재나 명승·고적 여행에서 마주할 수 있는 한자 및 한문 관련 내용을 교과 내용으로 하는 ‘여행 한문’, 일상생활속에서 자주 활용하는 한자 어휘 및 명언·명구를 교과 내용으로 하는 ‘실용 한문’, 고사성어의 내력을 교과 내용으로 하는 ‘고사성어 한문’ 등”
- 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1), 83면. 참조.

교과	과목		과목 예시(안)
보통 교과	공통과목		기본 한문/한문 ¹⁸⁾
	선택 과목	일반선택과 목	* 과목 성격 : 교과별 학문내의 분화된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 - 실용한자와 한자어, 실용고사성어, 실용한문, 한문단문[명언·명구·격언], 한시 감상, 한문 소설 감상, 한국한문고전읽기
		융합선택과 목	* 과목 성격 : 교과내, 교과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 국어 어휘와 한문, 국문학과 한문, 역사학과 한문, 동양 철학과 한문, 사회문 화와 한문, 우주 천문과 한문, 자연 생태와 한문, 인문 지리와 한문, 예술과 한문, 동양 미학과 한문, 여행지리와 한문, 글쓰기와 한문, 인성교육과 한문, 가정교육과 한문, 문화유적답사와 한문
		진로선택과 목	* 과목 성격 : 교과별 심화학습(일반선택과목의 심화 과정) 및 진로 관련 과목 동양고전읽기, 인문학과 한문, 자연과학과 한문, 사회과학과 한문, 예체능과 한문, 한의학과 한문, 한국문화관광과 한문, 글쓰기와 한문, 자연[풍수]지리와 한문, 문헌정보[출판문화]와 한문, 평생교육과 한문, 경제·경영과 한문, 정치 학과 한문, 스토리구성작가와 한문, 문화컨텐츠학과 한문, 교육과 한문

‘百尺竿頭’와 ‘機會’ 사이에서 필자가 마련한 試案은, 條理가 부족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지만, 몇 가지를 前提한다. *표로 기술한, 교육부가 규정한 선택과목의 성격¹⁹⁾을 따랐다. 한문과의 독립 교과 편제를 기본으로 하였다. 한문과의 공통 과목 개설을 주장했다. 한문과의 독립 교과 편제와 공통 과목 개설은, 교육과정 개발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되뇌이는 ‘(군소)교과 이기주의’가 아니라, 한문과가 保持한 교육 내용의 현재적·미래적 가치를 展望한 것이다. 공통과목 개설의 경우, “기초소양 및 기본학력 함양, 학문의 기본 이해 내용 과목”이라는 과목 성격에 근거하여 볼 때, 한문과를 포함한 모든 교과는 공통과목을 개설할 責務가 있다. 선무당-교육과정 개발진들의 窺판에 끌려가고 싶지 않지만, ‘선택과목’ 교과목을 開發·作名·編制했는데, 향후 한문과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는 동학들의 참고 자료로서의 활용이 바로 시안의 기능일터이다.

Ⅲ. ‘選擇科目’ 교과목 단위 구성 방안

1. 單元 構成 原理와 模型

주지하듯이 교과서 개발의 핵심 과제는 단위 구성인데, 논의에 앞서 단위 구성의 원리와 모형을 먼저 기술한다. 기실, 단위 구성의 원리는 한문과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교과의 명칭, 교과의 내용, 교과의 교수·학습 및 평가의 측면에서, 개별 교과는 일정한 특수성 내지 정체성을 보지하지만, 교과서 (대)단위 구성의 원리는 두루 적용 가능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원리는 이렇다. 우선, (고등학교)학습자의 需要 副應이다. 교육부는 고교

18) 공통과목명 ‘기본한문’, ‘한문’은 중학교의 경우, ‘생활 한문’이라는 중학교 한문 改名을 염두했다.

19) 교육부(2021a), 14면. 참조.

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연구학교를 운영했는데, “학교는 학생 수요 조사를 거쳐 개설 과목을 정하고, 학생은 수강 신청을 통해 이수할 과목을 확정”²⁰⁾하는 교육과정 운영의 변화를 주목했다. 둘째는 進路 및 適性 連繫이다. “진로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교육”²¹⁾을 念頭했다. 셋째는 자기 주도 학습인데, “학생 스스로 의미있는 지식을 모으고 진로와 학업을 디자인”²²⁾할 수 있는 체제에 呼應한다. 넷째, 문제 해결 학습이다.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학습자 상의 하나로 창의와 혁신을 거론했는데, 그 요소는 다름 아닌 융합적 사고, 문제해결력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른바 블렌디드 학습(Blended learning)이다. 애써, 교육부 문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혼합형 학습은 ‘언택트’ 시대에 符合한다.

다음으로, 한문과 ‘선택과목’ 교과목 단위 구성의 지향점과 모형을 기술한다. 국가의 제도 도입과 교육과정 개정에 비록 동참하지만, 학습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최첨단 기술과 교수 방법을 힘써 동원하지만, 한문과 ‘선택과목’ 교과목 개발 및 교과서 단위 구성의 지향점은 ‘한문과 기반’에 있다고 필자는 강조한다. 이전의 논의²³⁾에서 이 점을 말했다. 필요한 내용을 인용한다.

〈표 1〉 한문과 기반 단위 구성의 지향점

한문과 기반	한문과 기반 단위 구성의 지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와 한문 자료에 담겨 있는 다양한 영역의 폭넓은 지식 ·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 · 독창적 아이디어 산출

한자·한문에 대한 어학적, 문학적 지식과 한문 고전 자료에 담겨 있는 다양한 영역의 폭넓은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타 교과와 타 학문 영역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하여 활용하고, 독창적 아이디어를 산출한다. 필자의 생각으론, ‘志向’ 하되 ‘基盤’을 잃지 않아야 한문과의 正體性を 확보할 수 있다. 보아왔듯이, ‘칼춤’의 결과는 언제나 ‘無用’하거나 ‘自害’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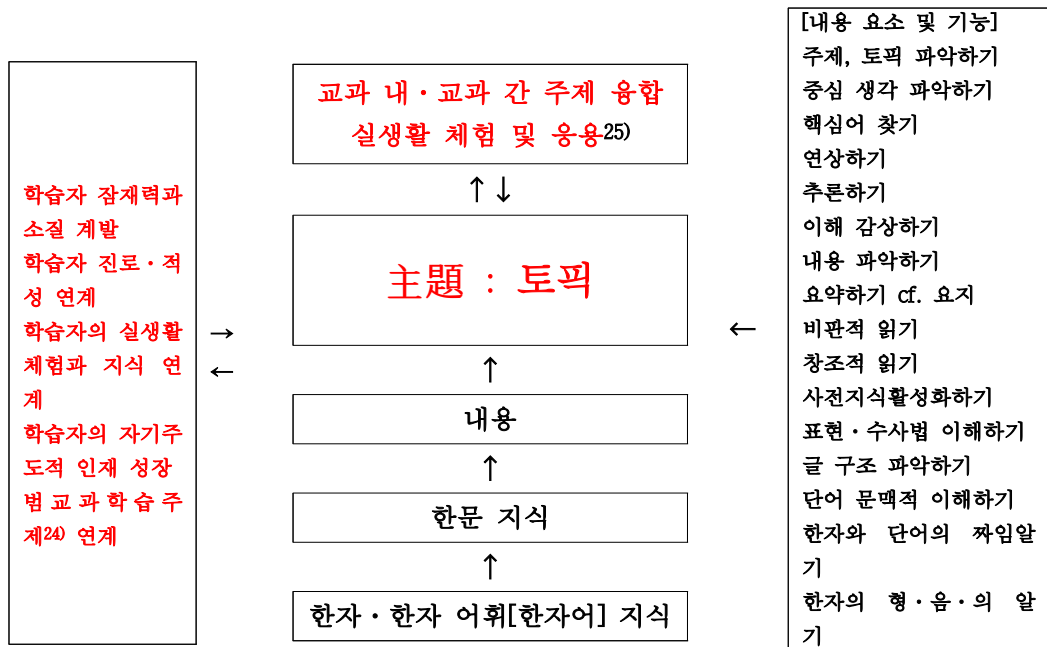
단위 구성의 ‘模型’은 어려운 작업이다. 교과의 내용 영역을 包括하되, 핵심 요소를 確定하고 이를 단계화·구조화하는 일인데, 이전의 논의를 變容하여, 주제 중심 ‘융합선택과목’ 단위 구성의 모형을 圖式化했다. 한문과 기반, 단계·절차, 학습자를 重視했고, 고등학교 한문과 선택과목 가운데 ‘융합선택과목’의 과목 성격-교과 내·교과간 주제 융합, 실생활 체험 응용-을 고려하여, 주제 중심을 標榜했다. 정치한 논의는 후일을 기한다.

20) 교육부(2021a), 6면. 참조.

21) 교육부(2021a), 10면. 참조.

22) 교육부(2021a), 10면. 참조.

23) 김왕규(2020), 12면. 참조. 이전의 논의에서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의 지향이란 측면에서 기술했는데, 이 글에서는 한문과 기반 단위 구성의 지향점이란 관점으로 설명한다. 관점은 다르지만, ‘융합’과 ‘한문과 기반’이 공통 핵심이기 때문에 變通한다.



〈그림 1〉 주제 중심 ‘융합선택과목’ (대)단원 구성 모형

2. 대단원 구성 방안

(대)단원 구성의 원리, 지향점, 그리고 모형은 교과서 개발, 대단원 구성의 배경 지식으로 작동한다.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 원리나 지식의 ‘實際’ 에로의 적용은 좀 더 구체적이고 정밀한 작업을 요구한다. 필자는 학계에 한문 교과서 단원 구성의 원리와 방안을 보고했고, 故事成語 대단원 구성에 투입하여 원리를 適用했다.²⁶⁾ 고등학교 한문과 ‘선택과목’ 교과목 대단원 구성은 교육부의 문건을 通察해 볼 때, 주제 중심이 適合하다. 위의 원리, 모형과도 合致된다.

〈표〉 주제 중심 한문과 ‘선택과목’ 대단원 구성 예시

24)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경우, 예컨대,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들 수 있다.

25) 교육부(2021a), 6면. 참조.

26) 김왕규(2008; 2012). 참조.

대단원[主題 中心 大單元]						
대단원	대단원 도입부	소단원 1~4				대단원 정리부
소단원		소단원 1	소단원 2	소단원 3	소단원 4	
학습 목표	대단원 목표	소단원 목표 1	소단원 목표 2	소단원 목표 3	소단원 목표 4	목표 달성 확인
텍스트 (제재, 글)	사진, 삽화, 글	崔興孝·李澄	金聖器	金弘道	崔北	요약 정리 평가 문항
차시	0~1	1~2	1~2	1~2	1~2	0~1
분량	1~2면	4~6면	4~6면	4~6면	4~6면	1~2면
소단원 전개 방식		原理	原理	原理	原理	
		原理	適用	發展	整理	
		原理	適用	發展	補充.深化	
		原理	適用 1	適用 2	整理	

간단하게 설명한다. 고등학교 한문과 ‘선택과목’ 교과목은 일반선택, 융합선택, 그리고 진로선택 3개의 교과목으로 區劃되는데, 특히 융합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에로의 적용이 수월하다. 主題 중심은 단위 구성 모형과 교과목 성격 규정의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학습자 잠재력과 소질 계발’, 그리고 ‘학습자 진로·적성 연계’에 초점을 둔 것이다.

가령, 주제를 ‘예술가의 정신과 인생’이라 해 보자. 음악, 미술, 연극, 공연, 영화 관련 학과를 지망하는 학습자들의 진로, 적성과 연계할 수 있고, 그들의 적성을 계발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현행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所載 텍스트로 崔興孝·李澄, 金聖器, 金弘道, 崔北, 그리고 심화 학습으로 秋史와 歲寒圖²⁷⁾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 불굴의 예술 정신을 지닌 두 명의 옛 인물을 만나보자.²⁸⁾
-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말해보자.²⁹⁾
- 스승까지 감동시킬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을 지닌 예인의 정신세계를 이해해 보자.³⁰⁾
- 선인들의 예술 세계에 대한 글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³¹⁾
- 조선 후기의 화가 최북은 자신을 ‘붓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기 그림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최북이 그린 그림은 어땠는지 상상하며 이야기를 읽어 보자.³²⁾

27) 진재교 외(2018), 142면. 참조. 26단원. 추사와 세한도

28) 송재소 외(2018), 74면. 참조. 10단원. 조선 예술가

29) 이향배 외(2018), 80면. 참조. 13단원. 꿈에 대한 열정

30) 안재철 외(2018), 54면. 참조. 7단원. 소리에 대한 열정

31) 김영진 외(2018), 140면. 참조. 17단원. 세상을 담은 그림

32) 심경호 외(2018), 122면. 참조. 15단원. 예술가의 삶

라는 소단원 학습 목표와 도입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술가의 정신과 인생’ 이라는, 결코 기록하지 않는, 주제를 한문 고전 자료 속 예술가의 삶에 투영된 ‘불굴의 예술 정신’, ‘음악에 대한 열정’, ‘에인의 정신세계’, ‘예술 세계’, ‘자부심’ 등을 통해 구현하였는데, 학습자의 진로·적성과 연계하는 한편 교과 간·계열 간 주제와統合했다. 주제 중심 고등학교 ‘선택과목’ 대단원 구성의 一例이다.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를 一瞥해 보면, 주제 통합 대단원 구성의 주제로 예컨대, 언어와 문학, 경제·경영, 의학, 자연지리, 법과 정치 등을 선정할 수 있다. 텍스트의 분량, 수준, 번역문 제시 유무 등의 제반 문제는 차후 논의한다.

IV. 餘言：向後 課題

몇 가지 과제를 필자 자신과 한문교육학 구성원에게 던진다. 무엇보다, 소위 ‘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정’ 渦流 속에서 중등학교 한문과의 총론 편제가 우리의 목줄을 죄는 일인데, 학회와 한문과 교수협의회, 평가원 담당 연구원의 주의를 환기를 부탁한다. ‘선택과목’의 하위 영역인 일반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의 한문과 교과목 개발, 과목명, 영역 편제 등의 문제도 현안 과제일 터이다. ‘선택과목’ 교과목으로 한문 교과서 개발의 핵심 사항인 단위 구성의 실제 작업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았지만,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과 관련된, 한문과 선택과목 과목 가이드 내용 개발 및 홍보³³⁾ 문제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인데, 우린, 몰라서 무관심하고, 알아도 무기력하여 外面하곤 한다. 한편, 교육부 문건의 한 귀퉁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 제도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2028년 적용) ‘과 관련된 논의 착수 운운’³⁴⁾이라는 기술 항목을 銳意 注視해야 한다. 그들은 비밀리에 작업을 마치고, 곧잘, 느닷없이 우리를 驚愕시키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우릴 옥조인다. 慘憺하다.

[參考 文獻]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2018?),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생의 진로·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가이드 북(Guide Book)』

교육부(2021a),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

교육부(2021b), 「2025년,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 구현-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발표」[보도자료]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서울특별시교육청(2018.5.18),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과목 안내

33) [부록 2~9] 참조. 한편, 배회정(2020)의 연구가 동학들의 수고를 덜어 주었다. 고맙다.

34) 교육부(2021a), 20면. 참조. [부록 1] 참조.

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1), 『제2외국어/한문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위한 세미나』[연구자료 ORM 2021-28]

김왕규(2008), 「한문 교과서 단위 구성의 원리와 방안」, 『漢文教育研究』 31, 한국한문교육학회, pp.35-69

김왕규(2012), 「고사성어 교수·학습 활동 및 단위 구성 방안」, 『漢文教育研究』 38, 한국한문교육학회, pp.51-76

김왕규(2020), 「한문과 기반 융합 교육의 방향과 교과서 구현 양상」, 『漢文教育研究』 55, 한국한문교육학회, pp.5-28

배희정(2020),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한문과 교육의 현재와 과제」, 『漢文教育研究』 54, 한국한문교육학회, pp.123-150

손형태(2021.4.10.), 「언택트 시대와 고교학점제를 고려한 자유발행 한문교과서 개발 방안」, 2021 한문교육학회 전국학술발표대회 자료집 게재 예정(미발표논고)

윤지훈(2019), 「고교학점제 대비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漢字漢文教育』47,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pp.25-40

[교과서 : 고등학교 한문 I]

송재소 외(2018), 『한문 I』, 다락원.

심경호 외(2018), 『한문 I』, 미래엔.

이향배 외(2018), 『한문 I』, 대명사.

김영진 외(2018), 『한문 I』, 씨마스.

안재철 외(2018), 『한문 I』, 지학사.

진재교 외(2018), 『한문 I』, 장원교육.

김성중 외(2018), 『한문 I』, 이젠미디어.

김용재 외(2018), 『한문 I』, 와이비엠.

오형민 외(2018), 『한문 I』, 금성출판사.

신표섭 외(2018), 『한문 I』, 대학서림.

안대회 외(2018), 『한문 I』, 천재교과서.

박성규 외(2018), 『한문 I』, 동아출판.

이동재 외(2018), 『한문 I』, 비상교육.

[부록 1] 고교학점제 추진 주요 일정(안)³⁵⁾

35) 교육부(2021a), 35면. 참조.

< 고교학점제 추진 주요 일정(안) >

※ 고교학점제는 2022년 특성화고 도입 및 전체 일반계고에 대한 제도 부분도입(신입생부터 적용)을 거쳐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본격 시행 예정

		'20	'21	'22	'23	'24	'25
		도입 준비기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 (일반계고) 학점제 부분 도입			본격시행
교육 과정	2015 교육 과정		2015 교육과정 일부개정	일부 개정된 교육과정 적용(고1~)			
	2022 교육 과정	기초연구	2022 교육과정 주요사항 발표	2022 교육과정 개정			2022 교육과정 적용(고1~)
평가제도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전 학년 적용				성취평가제 확대 도입(고1~)
대입제도			미래형 대입 논의 착수			'28학년도 대입방향 발표	
법령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지침			학교 밖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최소학업성취 도달 지도 검토			마이스터(I) 도입
연구· 선도학교 확대		일반계고(1,680교)					모든 일반계고 및 직업계고 연구·선도학교 운영 경험 축적
					과학고(20교)		
		외고·국제고·자사고(76교) 중 일반고 전환(예정) 학교					
		직업계고(520교)					
		특수학교(2교 이상)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		494교 (~'20)	233교	549교	567교	-	학교공간 조성 연차적 지원 (시도별 추진계획에 근거 추후 변경 가능)
교·강사		교사 대상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22, 1,600여명) 학점제 운영을 위해 교원 자격·임용·배치 개선					

[부록 2]³⁶⁾

36)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100면. 참조.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과 기를 수 있는 교과임. 선인들의 삶과 지혜,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임.

○ 목표

-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로 이루어진 한자 어휘를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내용 체계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한문의 이해	• 한자와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의 모양·음·뜻 • 부수 • 필순 • 파임 • 단어의 짜임 • 실시와 허사 • 문사의 활용
	• 한문의 독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의 구조 • 문장 성분의 생략과 도치 • 문장의 유형 • 소리 내어 읽기

○ 과목 관련 정보

관련 과목 및 학제	관련 직업
<div>일반 선택</div> <div>한문 I</div> <div>선택-전제</div> <div>한문 II</div>	인문학 관련 교수, 한문교사 등
<div>관련 학과</div> <p>법학과, 행정학과, 국어국문학과, 동양어관련 학과, 철학과, 국사학과, 고고학과, 한문교육과, 한의예과 등</p>	

[부록 3]³⁷⁾

37)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101면. 참조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한자를 중심으로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한문 자료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임.

○ 목표

-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내용 체계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한문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의 어휘 • 한문의 독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의 모양·음·뜻 • 실사의 허사 • 문장의 구조 • 소리 내어 읽기 • 내용과 주제 • 단어의 짜임 • 문사의 활용 • 문장 성분의 생략과 도치 • 끊어 읽기 • 이해와 감상
한문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 한문과 인성 • 한문과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용어 • 성어 •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 학습 용어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

○ 과목 관련 정보

한문 교과 및 위계	관련 직업
<div>필수 선택</div> <div>한문 I</div> <div>선택 선택</div> <div>한문 II</div>	<div>인문학 관련 교수, 한문교사 등</div>
	<div>관련 학과</div> <div>법학과, 행정학과, 국어국문학과, 동양어문 관련 학과, 철학과, 국사학과, 고고학과, 한문교육과, 한의예과 등</div>

[부록 4]³⁸⁾

38)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16면. 참조

14 한국한문교육학회 2021년 춘계 학술대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과서 개발과 적용의 지향 및 교재 개발을 위한 한문 교육컨텐츠의 발굴 및 활용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인 국어 사용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며 가치 있는 국어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 목표

-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작품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익힌다.
-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및 문법 탐구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갖춘다.
- 국어의 가치와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국어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른다.

○ 내용 체계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듣기·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성 • 의사소통 과정의 점진과 조정 • 대화 토론 협상 • 담화 관습의 성찰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의 본질 • 목적에 따른 담화 또는 글의 유형 •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의 구성 요소 •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상호 작용 • 한 편의 글과 해제 • 읽기 과정의 점진과 조정 • 비판적·문제 해결적 읽기 • 관청과 표현 방법의 평가 • 연문·예술·사회·문화·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화제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상호 작용 • 책임감 있게 쓰기 • 쓰기 맥락 • 고쳐 쓰기 • 설득하는 글, 청서를 표현하는 글
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의 본질 •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 • 국어 규범과 국어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실제 • 음운의 변동 • 문법 요소의 특성과 사용 •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 국어 사용과 국어 발전 의식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의 본질 • 문학의 갈래와 역사 • 문학의 수용과 생산 • 문학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적 구조 • 서정 • 서사 • 극 • 교술 • 문학 갈래의 역사 •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 • 시대별 대표작 • 갈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 • 문학의 주체적 수용과 생활화

○ 과목 관련 정보

관련 과목 및 단계	관련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국어 일반 선택: 회화와 직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전문 선택: 실용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마니언서, 기자, 번역가, 시인, 소설가, 극작가, 드라마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 평론가, 출판 편집자, 독서 치류사, 인문사회 계열 교수, 카피라이터, 광고 및 홍보 전문가, 언어학 연구원, 교육학 연구원, 일반 공무원 등
관련 인증 및 자격증	관련 학과
KE중 한국어 능력 시험, 한국 실용 글쓰기 검정, 국어 능력 인증 시험,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기초 국어 능력 인증 시험, 한국 독서 능력 검정 시험 등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도서관학전공과, 문예창작과, 문헌정보학과, 언어과학과, 언어치료학과, 통번역학과, 신문방송학과, 언론홍보학과, 행정학과 등

[부록 5]³⁹⁾

39)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19면. 참조

우리 역사가 형성·발전되어 온 과정을 이해하여 역사적으로 사고하고 현대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우리 민족이 역사 속에서 발휘해 온 역량을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역사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기르는 과목이다.

○ 목표

- 중학교에서 학습한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치사를 중심으로 경제·사회·문화사를 아우르면서 한국사의 특성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한다.
- 오늘날의 우리 삶이 역사의 산물임을 이해하고 한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를 역사적으로 인식한다.
- 우리 민족이 외부 세계와 교류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음을 인식한다.
- 한국사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종합적인 탐구 활동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키운다.
- 우리가 역사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현대 사회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 내용 체계

대주제	소주제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 • 고조선의 발전과 여러 나라의 성장 •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선사 문화
고대 국가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국의 성장과 가야 • 남북국의 성립과 발전 • 삼국 간의 경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 • 고대의 문화와 대외 교류
고려의 성립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의 성립과 통치 체제의 정비 • 대몽 항쟁과 변방 자주화의 노력 • 무신 정권의 성립과 농민·한민의 봉기 • 고려 문화와 대외 교류
조선의 성립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의 통치 체제 정비 • 경제적 변동 • 왜란과 호란 • 사상과 문화의 변화 • 정치 운영의 변화와 사회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항과 개화 정책의 실시 • 일제의 침략과 국권 수호 운동의 전개 • 근대 국가 수립 노력 • 독도와 간도
일제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와 3·1 운동 • 1930년대 이후 일제의 식민 통치와 국내외 민족 운동 • 192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와 국내외 민족 운동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수립과 6·25 전쟁 • 경제 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 •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노력 • 현대 세계의 변화

○ 과목 관련 정보

관련 과목 및 영역	관련 직업
<p>공통</p> <p>한국사</p> <p>일반 선택</p> <p>전체 선택</p>	<p>학예사규레이터, 문화재 보존원, 역사학 자, 인문 과학 연구원, 박물관, 문화재청, 지역 문화원, 국가 기록원, 문화재 및 문화 관련 연구소, 중등 교사, 대학 교수, 여행상품 개발원(관광기획자) 등</p>
관련 인물 및 자료	관련 학과
<p>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6급)</p>	<p>국사학과, 한국사학과, 역사교육과, 고고학 과,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사학 과, 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등</p>

[부록 6]⁴⁰⁾

40)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2018), 15면, 참조.

16 한국한문교육학회 2021년 춘계 학술대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과서 개발과 적용의 지향 및 교재 개발을 위한 한문 교육컨텐츠의 발굴 및 활용



문학·언어학

■ 계열 소개

문학과 어학 관련 전공의 경우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해당 언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문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도 폭넓게 습득해야 한다. 전공 관련 기초 과목은 주로 해당 국가의 언어 관련 과목, 문학 관련 과목, 문화 관련 과목으로 구성된다. 대학에 따라 1학년 교과과정에서 글쓰기와 영어를 필수 기초과목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 고등학교에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국어, 영어, 수학의 일반선택 전 과목과 사회 교과목의 일반선택의 경우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체육·예술'에서 음악, 미술, 연극 등도 기본 학습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교양 일반선택 과목 중 다양한 제2외국어 과목 및 한문Ⅰ, 철학, 논리학, 심리학, 종교학, 논술, 진로선택에서는 심화된 제2외국어 과목 및 한문Ⅱ 등이 관련 있다.

진로선택과목

- **[기초]** 고전 읽기, 심화국어, 영미문학읽기 **[탐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사
- **[체육·예술]**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제 2외국어 (선택), 한문Ⅱ 등

■ 대학에서 배우는 필수 이수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 과	이수 과목 예시
국문, 서양어, 동양어	글쓰기와 말하기, 영어, 국문학입문, 문학의 이론, 현대 대표시읽기, 한국사회언어의 이해, 국어학입문, 현대대표소설읽기, 고전문학강독, 고전문학 등

[부록 7]⁴¹⁾

41)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2018), 16면, 참조.

인문학

■ 계열 소개

인문학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영역으로 역사, 고고학, 철학, 윤리 등이 있다. 역사학과 고고학 관련 전공은 인간과 사회의 기원과 발전을 탐구한다. 과거의 사실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이 필요하며, 세부 전공에 따라서는 고급 외국어 실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철학은 인간의 삶과 세계 운행의 근본원리를 탐구하고, 윤리학은 인간의 행동,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규범과 원리를 탐구한다. 인간과 세계의 근원적 가치를 논하는 학문이므로 인문학 전반을 깊이 이해하고, 세부 전공에 따라서는 외국어에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고등학교에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역사학, 고고학, 철학, 윤리와 관련한 주요 고교과목은 국어과목의 일반선택에서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진로선택에서 고전읽기가 관련이 있다. 영어는 전체 과목이 관련 있다. 사회교과에서는 역사학, 고고학에서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철학과 윤리에서는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과 관련된다. 생활·교양 교과목의 일반선택에서 다양한 제2외국어 과목, 한문 I, 철학, 종교학, 논리학, 논술이 관련 있다.

진로선택과목

- **[기초]** 고전 읽기, 심화국어, 영미문학읽기 **[탐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생활과 과학
- **[생활·교양]** 제 2외국어 (선택), 한문 II 등

■ 대학에서 배우는 필수 이수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 과	이수 과목 예시
역사 고고학	역사학입문, 고고학개론, 한국사입문, 동양사입문, 서양사입문, 한국고대사, 동양고대사, 서양고대사, 한국중세사, 동양중세사, 서양중세사, 한국현대사 등
철학, 윤리학	철학입문, 서양철학개론, 동양철학개론, 논리학,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등으로 구성

[부록 8]⁴²⁾

42)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2018), 19면, 참조.

18 한국한문교육학회 2021년 춘계 학술대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과서 개발과 적용의 지향 및 교재 개발을 위한 한문 교육컨텐츠의 발굴 및 활용

간호·보건계

■ 계열 소개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약학과 등이 있으며, 생명과학과 화학 관련 강좌가 주를 이룬다.

- **[간호학과]** 인간의 건강과 관련하여 인간, 환경, 간호학의 상호관계를 규명, 실천하는 학문으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적 특성을 통합하고 있다.
- **[임상병리학과]** 기초의학, 생명 과학으로부터 나온 응용 생명 과학의 한 분야인 만큼 전공기초 및 전공과목으로 기본적인 자연과학, 기초의학과 생명 과학 과목 그리고 여러 임상 검사학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교육, 실습 등이 있다.
- **[약학과]** 생명현상에 관계되는 물질에 관한 종합 응용과학으로서 자연과학의 특수 응용분야인 만큼 약학과 교육과정은 의약품에 관한 학술적 이론과 지식을 교육하고, 우수한 의약품의 개발 능력이 필요하다.

■ 고등학교에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간호학과에서는 인간 돌봄에 대한 간호철학과 지식 획득에 필요한 의사소통 관련 과목 및 심리학, 사회학, 인간관계학 등도 다루고 있다. 임상병리학과와 물리치료학과 학습에 기초가 되는 과목은 과학 교과 중 화학 I, 생명과학 I 가 해당한다.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 윤리의식을 갖추고 환자와의 의사소통과 심리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물리치료사의 직업의 특성상 질병 및 외상에 의한 신체적 손상을 가진 환자들과의 의사소통과 심리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과목의 기초로는 사회 교과 중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등을 들 수 있으며, 교양교과 중에서 보건, 심리학, 철학, 진로와 직업 등도 관련이 있다.

진로선택과목

- **[탐구]** 화학 II, 생명과학 II, 융합과학, 생활과 과학 등
- **[생활·교양]** (한의학과의 경우) 한문 II, 중국어 II

■ 대학에서 배우는 필수 이수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 과	이수 과목 예시
간호학	생물학, 심리학 개론, 화학, 생명의료 윤리, 간호학개론, 병원미생물학, 간호통계학, 영양과 식이, 의사소통/인간관계, 기본간호학 및 실습, 지역사회간호학 등
임상병리	인체해부학, 임상분자생물학, 임상혈액학, 조직검사학실습, 생화학, 면역학, 조직학, 기생충학, 임상생리학, 임상세균학 및 실습, 분자생물학 및 실습(임상) 등
약학	약품생화학1, 약품분석학1, 약품물리1, 약물치료학, 약학통계학, 약학실습4, 약학개론(PBL), 약품분석화학1, 물리약학1, 유기약화학, 생화학1, 생약학1

[부록 9]⁴³⁾

43)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2018), 20면, 참조.

의학계열

■ 계열 소개

의예과, 수의예과, 한의예과 등이 있으며, 생명과학과 화학 관련 강좌가 주를 이룬다.

- [의예과]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여 인체의 보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기초 의학, 임상 의학, 사회 의학 등이 있다.
- [수의예과] 동물의 보건과 환경 위생 및 각종 질병 예방과 진료는 물론 공통 전염병의 예방과 진료 등과 관련된 과목을 배우며 나아가 인간과 동물의 관계와 관련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의과학이다.
- [한의예과] 한의학의 연구와 진료 능력을 소유하고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갖출 수 있도록 동양 철학을 비롯한 인접학문에 대한 폭 넓은 교양과 한의학 전공 학습의 기초를 토대로 함

■ 고등학교에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므로 입학 시 면접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합적인 인성을 함양하는 데도 치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어 교과의 화법과 작문, 영어 교과의 다양한 과목, 사회 교과 중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생활·교양 교과의 심리학 등이 유리하다. 각 대학의 교과과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예과/본과 과정 중 의료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사회 교과의 정치와 법을 이수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과학 교과 중 일반선택 과목, 수학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다. 좀 더 심화된 내용의 학습을 원하는 학생은 전문교과 I 의 과학계열 내 '화학실험이나 생명과학 실험' 과목을 이수할 수도 있다.

한의예과는 한문의 해독력이 필요하므로 생활교양의 한문 I, 중국어 I 등을 이수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간호학과 학습에 기초가 되는 과목은 과학 교과 중 화학 I, 생명과학 I 등이 해당한다.

진로선택과목

- [탐구] 화학 II, 생명과학 II, 융합과학, 생활과 과학 등
- [생활·교양] (한의예과의 경우) 한문 II, 중국어 II

■ 대학에서 배우는 필수 이수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 과	이수 과목 예시
의예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및 실험1, 일반물리학, 기초영어, 생명과 윤리, 의료정보학 및 실습, 인간심리학, 의학화학, 올바른 건강관리 등
수의예	동물비교해부학 및 실험, 동물영양학 및 농산업 경제·경영학, 수의해부학 및 실험, 동물생태학, 생물실험통계학 및 실습, 동물복지와 수의사, 국제수의법규 등
한의예	한의학정보학, 한문 I, 의학영어, 한의철학, 중국어회화, 의학한문 I, 의사학, 생리학, 생리학실습, 생화학 및 실습, 의학기공학 I, 본초학총론 I, 의학한문 II, 의사학 II 등

온택트 시대를 대비한 고등학교 한문 I 의 수업 모형 구안¹⁾

- ‘이별’ 을 주제로 한 한문 · 음악 · 중국어 융합 수업에 대하여 -

심규현(고양고등학교)

目次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교과서 분석
- III. 융합 수업 교수-학습 모형 설계
- IV.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교육 현장의 변화는 실로 대단했다. 대면 수업에서의 학습 동기 유발에 몰두하던 교사들이, 이제 원격 수업이라는 생소한 환경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노력의 첫발을 디디게 되었다.

공교육에서의 원격 수업은 이번이 첫 도전이었기에 교사는 긴장했고 학생들은 신기해했다. 그러나 새로운 공기를 느끼는 것도 잠시, 학생들이 점차 무기력한 방관자가 되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학습자가 수업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게 할 방법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던 중,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흥미 유발 방법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누구나 공감하며 독창적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 그리고 ‘원격 수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수업 방식’ 이 그것이다.

한문 I 교과서 13종의 한시를 분석한 결과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게 만든 ‘이별’의 감정이 수업의 주제로 적합하다 판단되었고, 한문 교과서의 이별 관련 한시와 융합 수업을 할 수 있는 타 교과의 요소도 함께 찾았다. 음악 교과의 다양한 음악 감상에 관한 이야기, 중국어 교과의 해음(諧音)현상으로 인해 금기시되는 선물 이야기 등이 함께 융합 수업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였다.

원격 수업은 물론, 그 안에서의 융합 수업도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1인의 교사가 할 수 있는 ‘교과 내 수업형’ 융합 수업 방법을 선택하였고, 자칫 교육과정

1) 이 논문은 필자의 공주대학교 석사 논문(2020.8.)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전 연구에서는 두 교과의 융합으로 수업을 설계했던 것을 세 교과의 융합으로 확장하였고, 수업의 주제를 ‘이별’로 한정된 것이 이전 연구와 다르다.

을 벗어나는 수업을 하지 않도록 세 교과와 성취기준을 면밀히 살펴 수업 설계에 참고하였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측면에서는 평가와 기록의 연구에 미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나 그 부분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기고 실제 수업 설계에 대한 제안까지를 본 연구의 책임으로 다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한문 교육, 융합 수업, 성취기준

I. 서론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편화 되어가는 원격 수업에서 학습자가 흥미를 갖고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면서, 우리 교육은 대면(contact) 수업 환경이 아닌 비대면(untact) 환경에 내몰렸다. 그 안에서 교사와 학생은 온라인으로 서로를 이으며 온택트(ontact)²⁾ 교육 시대를 열었다.

사실 일반 기업에서는 이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들이 자리잡혀 쓰이고 있는데, 교육 현장만큼은 사회 변화의 속도보다 한참 느리다는 평을 받아왔다. 그러다 맞닥뜨린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교사와 학생은 마음의 준비와 단계적인 교육도 없이 원격 수업에 필요한 여러 정보통신기술을 익히기 시작했다. 2020학년도에는 교사와 학생이 학교에서 만난 날보다 원격으로 만나 수업한 날이 더 많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아이들을 수업에 참여 시켜 보려는 교사들의 노력은 실로 눈물겨웠다. 자체적으로 연수를 찾아 듣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며 과거와는 사뭇 다른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늘 학생이 배움의 중심이 되게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새로운 방식의 수업에 대한 신기함을 느끼는 것도 잠시, 점차 무기력한 방관자가 되어가곤 했다. 교실 수업을 컴퓨터나 휴대전화 화면안으로 가져오면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까지 이뤄내기란 쉽지 않았다. 본 연구자 역시 예외가 아니었기에 고민을 거듭하던 중, 온택트 시대에 맞는 학습자 흥미 유발 방법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 누구나 공감하며 독창적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
- 공간적 제약이 없는 원격 수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수업 방식'

그리하여 수업의 주제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게 만든 '이별'을 선택하였다. 대부분의 한문 교과서에 실린 이별 관련 한시, 중국

2) '온라인(online)'과 '비대면(untact)'을 결합한 합성어

2 한국한문교육학회 2021년 춘계 학술대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과서 개발과 적용의 지향 및 교재 개발을 위한 한문 교육컨텐츠의 발굴 및 활용

이별 시를 바탕으로 창작된 가곡 감상에 대한 음악 교과의 교수법, 해음(諧音)현상으로 인한 중국어 교과의 선물 금기 품목 이야기 등 세 교과에서 공히 ‘이별’을 주제로 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여러 교과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주제이기에 수업의 방식은 자연스레 융합 수업을 선택하였다. 이별 후 극대화되는 인간의 감정은 문학이나 예술로 다양하게 표현돼 왔고, 이별을 떠올려 금기시되는 선물 문화는 중국어 발음 학습 시 종종 함께 다뤄지는 부분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각 교과의 성취기준을 파악하고 교과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수업 설계에 반영하였다.

II 장에서는 융합 수업의 이론적 배경과 한문 I 교과서 내 이별을 주제로 한 한시 감상 부분을 분석하고, 음악과와 중국어과에서 동일 주제에 대해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았다. 그것을 토대로 III 장에서는 실제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융합 수업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고, 마지막 IV 장에서는 결론과 연구자의 제언으로 끝을 맺었다.

II. 이론적 배경 및 교과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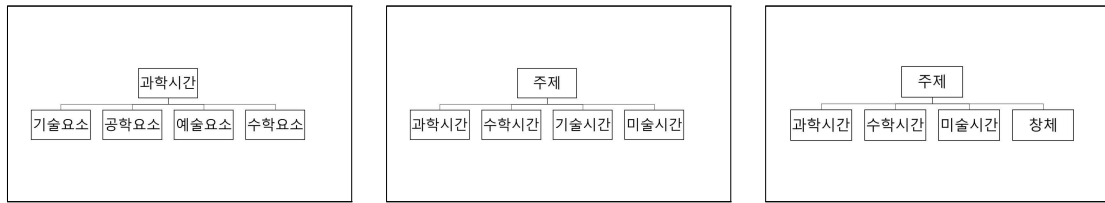
교육과정이 국가에서 고시된 후 실제로 학교 교육에 적용되는 것은 교사의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의지에 따라 성패가 나뉜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 설계 역시 학생들이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도록 이뤄져야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융합 교육의 세 가지 형태를 알아보고, 융합 수업을 처음 시도해보는 교사에게도 부담이 크지 않은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 융합 교육은 정부가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STEAM 교육 강화에 대해 발표한 데에 따라,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관심받기 시작했다. 교육 과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STEAM 융합 교육 형태는 다음과 같다.³⁾

<표 I> STEAM 융합교육 형태

교과 내 수업형	교과 연계 수업형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학교 활용형
중심 교과와 타 교과 요소 연계	주제 중심으로 관련된 여러 교과를 연계, 교육과정 재구성	주제 중심으로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

3) 신재한(2013), p.79



<표1>의 융합 교육 형태 가운데 첫 번째 ‘교과 내 수업형’이 1인의 교사가 본인의 교과에서 융합 수업을 시도해볼 수 있는 모델이다. 김왕규(2020)의 선행연구⁴⁾에서 ‘타 교과나 타 학문 영역과 융합하되, 타 교과의 내용에 함몰되거나 타 학문 영역의 자료 제공 및 보조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을 지양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본고에서 역시 한문 교과를 중심으로 수업하는 융합 수업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1. 한문 I 교과서 분석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 중에서도 ‘이별’을 수업의 주제로 선정하고자 함은, 한문 교과뿐 아니라 음악, 중국어 등의 교과에서 이미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며, 단순한 희로애락의 감정 보다 한층 더 폭발적이고 과장된 감정의 표현이 많아 학습자의 공감을 끌어내는 활동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한문 교과서 속 ‘이별’의 감정은 한시, 고사성어 등 다양한 부분을 통해 언급되고 있고 다수의 교과서 내 한시 관련 활동은 이미 융합 수업의 토대를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3종의 교과서를 모두 분석하되 중복되는 비슷한 활동은 하나로 정리한다.

<표2> 한문 I 교과서 속 ‘이별’ 관련 한시 감상 활동

교과서	활동 내용
A	이별을 소재로 한 가요의 가사 읽고 표현 특징 알아보기
B	이별의 정서를 잘 드러내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생각하기
C	몽크 「이별」 그림 보고 느껴지는 감정 말하기
D	한시 「춘망사(春望詞)」를 번안하여 만든 가곡 「동심초」의 가사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하기
E	한시 내용을 4컷 만화로 표현하기
F	한시 읽고 내용에 맞는 그림 그리기
G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마인드맵 만들기
H	‘버드나무 류(柳)’와 ‘머물 류(留)’의 해음현상

4) 김왕규(2020), p.6

I	정지상 「송인(送人)」, 신사임당 「유대관련망친정(踰大關嶺望親庭)」 감상 후 이별의 감정이 잘 드러나도록 랩 가사 짓기
J	자신이 이별한 경험 나누기

아래에 A~K의 활동에 대한 수업 시 활용 방법을 제시하여 III장의 융합 수업 교수-학습 모형 설계 시 참고하고자 한다.

가. 시대를 초월한 이별의 감정

A 교과서에서는 가수 박진영의 가요 「대낮에 한 이별」의 가사를 제시하고, 학생이 노랫말의 주인공이라 생각하며 가사를 음미한 후 과장 및 역설 표현을 찾아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말해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대낮에 한 이별」

남 마지막 인사를 주고받고 엉엉 울면서
서로를 한 번 꼭 안아 보고서
잘해준 게 하나도 없어 맘이 아프다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 주었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괜찮아지면
그때 친구로 다시 만나서
서로의 곁에 있어 주잔 말을 남기고서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봤어
햇살이 밝아서 햇살이 아주 따뜻해서
눈물이 말랐어 생각보단 아주 빨리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숨도 못 쉬었었어
근데 햇살이 밝아서 햇살이 밝아서
괜찮았어

여 헤어지기 직전에 그만 참지를 못하고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을 했어
우리 혹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냐고
이제 얘기를 다 끝낸 후인데
그러자 너도 바보같이 대답을 못 하고

멍하니 나만 바라보고 있어
우린 알고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헤어지기가 너무 두려운 거야
햇살이 밝아서 햇살이 아주 따뜻해서
눈물이 말랐어 생각보단 아주 빨리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숨도 못 쉬었었어
근데 햇살이 밝아서 햇살이 밝아서
괜찮았어

남 햇살이 밝아서 아픔을 잊을 수 있었어

여 햇살이 밝아서 눈물을 멈출 수 있었어

남 햇살이 밝아서 하늘이 너무 고마웠어

여 햇살이 밝아서

남 햇살이 밝아서

남&여 괜찮았어

위의 가사는 이별하는 남녀의 심경을 ‘숨을 못 쉰다’, ‘죽을 것 같다’ 등 과장된 표현으로 묘사했는가 하면, 힘든 마음과 대비되는 ‘햇살이 밝아서’, ‘괜찮았어’와 같은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기도 했다. 한시 역시 의미를 직접 드러내는

대신 반어나 과장법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뜻을 전달하는데, 여러 교과서에 수록된 정지상의 한시 「송인(送人)」에 쓰인 수사법과 닮아있다.

「송인」

雨歇長提草色多. 비 그친 긴 독에 풀빛 진한데
送君南浦動悲歌. 남포에 임 보내니 노랫가락 구슬퍼라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은 언제 마를 건가?
別淚年年添綠波. 이별의 눈물만 해마다 푸른 물결 위에 더하네

우리나라의 뛰어난 이별 시로 꼽히는 만큼, 시어 하나하나가 이별의 감정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화자의 눈물과 겹쳐 보이는 상황인데, 비 온 뒤의 푸르른 자연 묘사가 마치 보색 대비처럼 슬픔을 더욱 짙어 보이게 만든다. 承句에서 ‘悲歌’ 한 단어를 통해 슬픔을 직접 묘사한 것 말고는 모두 간접적으로 화자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轉句의 반어적 표현과 結句의 과장법은 호들갑스러워 보인다고보다 이별을 힘들어하는 화자의 심경을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게 하였다.

고려 시대의 한시와 현대의 가요가 이토록 닮은꼴을 한 것은, 이별 후 드는 감정이 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임을 걸 다시금 느끼게 한다. 따라서 쉬운 가요를 통한 접근은 작품에의 몰입을 높이고 한시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B 교과서의 ‘이별의 정서를 잘 드러내는 방법’과 관련된 활동은 이러한 반어, 역설, 과장 등의 수사 기법을 통해 구상해 볼 수 있다.

나. 예술로 표현된 이별의 감정

C와 D 교과서에서는 각각 그림과 음악을 한시 수업에 접목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C 교과서는 학생들이 몽크의 「이별」을 보고 떠오르는 감정을 이야기해보는 활동을 통해 이별의 정서에 서서히 몰입하도록 하였다. <그림1>이 해당 그림으로서, 남녀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우선 남성은 주로 검은색 혹은 피 같은 빨간색으로 어둡게, 여성은 흰색 혹은 금빛으로 밝게 채색되어 있다. 또한 여성은 이목구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부드러운 윤곽을 통해 어딘가 홀가분하게 떠나는 듯한 느낌을 안기기에 충분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두 남녀 서로 간의 행복한 사랑보다는 남성의 짝사랑 혹은 이별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이는 실제로 학생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돌아온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III장에서 교수학습 모형의 설계 시 해당 상황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림1> 몽크의 「이별」



D 교과서에서는 설도(薛濤)⁵⁾의 한시 「춘망사」를 번안해 만든 가곡 「동심초」⁶⁾의 가사를 읽고 드는 느낌을 이야기해보는 활동이 등장한다. 시와 가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춘망사」

花開不同賞	꽃 피었는데 함께할 이 없고
花落不同悲	꽃 저도 함께 슬퍼할 이 없네
欲問相思處	그리운 그대 어디 계시나요?
花開花落時	꽃은 한창 피고 지는 때인데

攬草結同心	풀 뜯어 한 마음으로 매듭 지어서
將以遺知音	내맘 아실 님에게 보내려 하네
春愁正斷絕	봄 시름 잦아들 적에
春鳥復哀吟	봄 새가 다시 또 애달피 우네
風花日將老	바람에 꽃잎은 날로 시들고
佳期猶渺渺	아름다운 기약은 오히려 아득한데
不結同心人	그대와 한 마음 맺지 못하고
空結同心草	부질없이 풀잎만 맺으려하고

那堪花滿枝	가지마다 피어난 꽃 어찌 보려나
翻作兩相思	날리면 모두 그리움 되겠지
玉箸垂朝鏡	아침마다 거울에 떨어는 눈물
春風知不知	이 마음을 봄바람은 알까

5) 설도(薛濤, 768~830) : 당나라 여류시인. 빼어난 미모에 글재주까지 뛰어나 관청에서 연회가 있을 때 참여하여 시를 지었고, 벼슬에 오르지 못했음에도 ‘여교서(女敎書)’라고 칭해질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6) 이 작품은 시인 김소월의 스승으로 알려진 김억(金億, 1896~?)이, 설도 작품의 세 번째 오언 절구 ‘風花日將老 佳期猶渺渺 不結同心人 空結同心草’를 번역하여 지은 가사이다.

봄을 맞아 피고 지는 생동하는 자연을 보고 입을 그리는 마음을 탁월하게 표현하였고, 위의 시를 바탕으로 지어진 가곡 「동심초」 가사의 일부도 아래와 같이 비슷하다.

「동심초」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맘과 맘은 맺지 못하고,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는고.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는고.

위의 가곡은 유튜브에서 소프라노 조수미⁷⁾의 공연을 찾아 들려주면 더욱더 생생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시에 등장하는 동심초가 실제로 있는 식물은 아니지만 한 시 속에서 창조된 화초가 긴 세월 동안 ‘마음과 마음을 맺고 싶은 마음’을 상징하는 식물로 자리매김 한 점이 흥미롭다. 수업 중에는 음악 감상과 더불어 이러한 화자의 정을 느껴보도록 한다.

다. 이별의 감정 표현하기

E 교과서는 한시의 내용을 4컷 만화로 그리는 활동을, F 교과서는 한시의 내용에 맞는 그림 그리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몽크의 「이별」을 통해, 그림의 주제를 전달하는 방법이 비단 사람의 표정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바, 이별한 인물들을 각기 표현하는 색상과 윤곽선 등 여러 장치를 활용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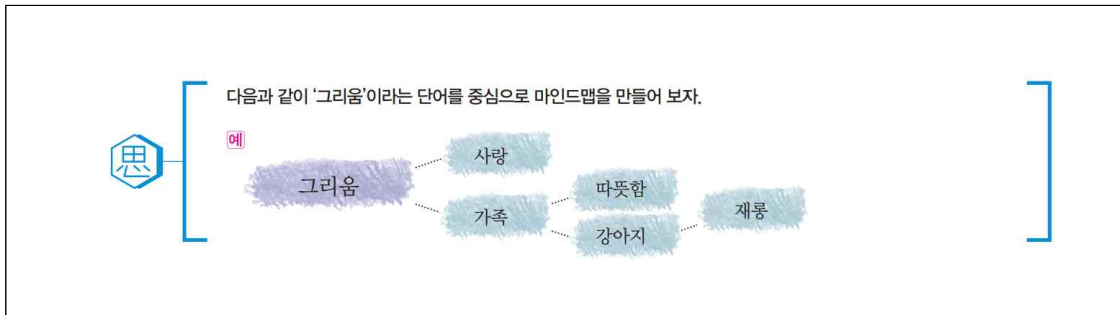
라. 이별 관련 단어 학습

G 교과서는 <그림2>와 같은 마인드맵을 활용해 학생들이 ‘그리움’과 관련된 감정 및 소재를 확장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하게 하고 있다. 그리움의 대상인 가족, ‘가족’ 하면 떠오르는 ‘따뜻한’ 감정과 대상인 ‘강아지’, 그 강아지의 ‘재롱’으로 이어지는 생각의 연결고리는 조별 활동으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에도 좋고 다양한 어휘를 활용한 창작활동으로 이어지기도 좋은 활동이다.

<그림2> 어휘 ‘그리움’ 중심의 마인드맵

7) cake kim, 「Sumi Jo(조수미) - 동심초」, YouTube^{kr}, 2014.2.27., <https://www.youtube.com/watch?v=P6HKrjtDKNs>

8) 한국한문교육학회 2021년 춘계 학술대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과서 개발과 적용의 지향 및 교재 개발을 위한 한문 교육컨텐츠의 발굴 및 활용



H 교과서에서는 왕유(王維)의 「송원이사안서(送元二使安西)」를 예로 들어, 한시에 쓰인 해음현상을 이야기했다. 이는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도 화자의 감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요소다.

「송원이사안서」

渭城朝雨浥輕塵 위성의 아침 비가 먼지를 적시니
 客舍青青柳色新 객사의 푸른 버들 더욱 산뜻하구나
 勸君更進一杯酒 그대여 한 잔 술 더 마시고 가게
 西出陽關無故人 양관에 가면 벗도 없지 않은가

위의 시에는 친구를 떠나보내기 아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표현돼 있지 않다. 그러나 이별의 감정을 달래는 매개물인 버들가지와 술을 활용해 이별의 정을 탁월하게 표현해냈다. 중국에서는 길 떠나는 이에게 버들가지를 꺾어 주며 전송하는 풍습(折楊柳)이 있다. 버드나무를 뜻하는 ‘버드나무 류(柳)’의 발음이, 상대가 이곳에 더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의 ‘머물 류(留)’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한시에서 우리는 ‘실 사(絲)’를 활용해 ‘생각할 사(思)’를, ‘연밥 연(蓮)’을 통해 ‘불쌍히 여길 려(憐)’을, 연꽃을 의미하는 ‘부용(芙蓉)’을 통해 남편의 얼굴 ‘부용(夫容)’을 떠올리게 하는 해음현상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마. 자신의 경험 나누기

옛 이별 시를 보며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이에게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I 교과서와 J 교과서는 학생이 실제로 겪은 이별을 떠올리거나,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창작활동을 제시하였다. 랩 가사 짓기라는 좀 더 친숙한 방법의 감정 표현 연습, 친구들과 교감하는 시간은 수업 내 학습 목표를 초월해 우정을 돈독하게 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2. 음악 교과서 분석

공자는 평소 제자들에게 ‘立於禮, 立於樂(예로 서고 음악으로 완성하라)’을 당부하였고, 『예기(禮記)』 중 「악기(樂記)」에는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말을 길게 해서 노래를 하고, 노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손과 발을 움직여 춤을 춘다’⁸⁾고 하였다. 즉, 음악적 요소는 한시 수업과 떼려야 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한문 I의 한시 감상 수업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음악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두 작가 왕유, 맹호연의 작품이 서양의 음악으로 재탄생된 부분을 통해 교과 내 수업형 융합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단, 자칫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업이 되지 않도록 음악과 교육과정 내 성취기준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자 한다. <표3>은 한시 관련된 한문 I의 성취기준과 음악과의 해당 성취기준을 발췌한 것이다. [12음02-03]은 선택교과 ‘음악’, ‘[12감비01-04]’은 진로 교과의 ‘음악 감상과 비평’의 성취기준이다.

<표3> 한문 I, 음악 성취기준

한문 I	음악
[12한문 I 02-08]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12음02-03]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12감비01-04] 음악 작품이 지닌 음악적 의도와 특징을 이해하여 설명한다.

음악 교육과정에서 역시 여러 분야의 음악을 듣고 비교할 수 있게, 즉 음악 편식을 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⁹⁾ 음악 감상과 비평 과목의 목표 중 하나가 ‘다양한 시대, 지역 및 종류의 음악을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¹⁰⁾는 것으로, 이런 맥락에서 가요나 팝송을 주로 듣는 우리 청소년 학습자들에게 한시를 기반으로 한 서양 가곡 감상은 음악적 감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슈베르트, 쇼팽, 브람스와 더불어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 1860-1911)는, 베토벤의 중국 서정시 번안서 『중국 피리』에서

8) 황병기(2013), p.134

9) 정미영 외 3인(2018), p.17

10) 교육부(2015a), p.38

10 한국한문교육학회 2021년 춘계 학술대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과서 개발과 적용의 지향 및 교재 개발을 위한 한문 교육컨텐츠의 발굴 및 활용

영감을 얻어 「대지의 노래(Das Lied von der Erde)」를 작곡하였다. <표4>는 악장 별 영감이 된 원시(原詩)의 작가와 제목, 베트케 시집 내 제목, 그리고 말러가 「대지의 노래」에서 사용한 제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4> 원시에서 베트케와 말러로 넘어가는 제목상의 변화¹¹⁾

악장	시인	원시	베트케	말러
1악장	이백 (李白)	비가행 (悲歌行)	Das Trinklied vom Jammer der Erde 현세(現世)의 비탄에 대한 주가(酒歌)	베트케와 동일
2악장	전기(?) (錢起?)	?	Die Einsame im Herbst 가을에 고독한 자(여성)	Der Einsame im Herbst 가을에 고독한 자(남성)
3악장	이백(?) (李白?)	?	Der Pavillon aus Porzellan 도자기 정자	Von der Jugend 청춘에 대하여
4악장	이백 (李白)	채련곡 (採蓮曲)	Am Ufer 해변에서	Von der Schönheit 아름다움에 대하여
5악장	이백 (李白)	춘일취기언지 (春日醉起言志)	Der Trunkener im Frühling 봄에 술 취한 자	Der Trunkene im Frühling 봄에 술 취한 자
6악장	맹호연 (孟浩然)	숙업사산방대정대부지 (宿業師山房待丁大不至)	In Erwartung des Freundes 친구를 기다리며	Der Abschied 작별
	왕유 (王維)	송별 (送別)	Der Abschied des Freundes 친구와의 작별	

본고에서는 ‘이별’을 주제로 한 6악장의 두 작품을 살펴보고, III장의 수업 설계 시에도 6악장에 대한 감상을 진행하려 한다. 교향곡의 음색마저 동양적인 색채가 짙어 한시를 떠올리며 감상하기에 큰 도움이 된다. 우리가 눈과 마음으로 감상하던 한시를 청각을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대지의 노래」를 작곡할 당시 말러는 큰딸을 잃고 본인의 건강마저 좋지 않아 삶과 죽음, 이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였다. 그런 본인의 감정과 유사한 중국 한시에 공감하며 작곡에 임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때때로 공연되고 있다. 본 교향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가 있어서 ‘가곡 교향곡’이라 불리는데, <표5>와 <표6>을 통해 중국 한시와 번안된 가곡의 가사¹²⁾를 비교해 볼 수 있다.

<표5> 맹호연의 시와 「대지의 노래」 가사 비교

宿業師山房待丁大不至	대지의 노래
夕陽度西嶺 群壑倏已暝 석양이 서쪽 고개를 지나니 여러 골짜기가 갑자기 어둑어둑.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모든 골짜기에 저녁이 자신의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오, 보라! 마치 은빛 작은 배처럼 달이 파란 하늘의 바다에서 떠다니는 것을 나는 어두운 소나무 숲 뒤에서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낀다.
松月生夜涼 風泉滿清聽 소나무의 달로 밤의 서늘한 기운 생기고 바람 부	

11) 김문경(2010), p.757

12) 김문경(2010), pp.795-797

<p>는 샘으로 온통 맑은 소리 들려</p> <p>樵人歸欲盡 煙鳥棲初定</p> <p>나무꾼은 돌아가길 다하였고 아지랑이 속 새는 둥지에 깃드네.</p> <p>之子期宿來 孤琴候蘿徑</p> <p>그대에게 가서 잠자길 기약하여 외로이 비파 타 며 담쟁이 좁은 길에서 기다리네.</p>	<p>시냇물은 어둠 속에서 아름다운 곡조를 노래 부르 고, 꽃들은 황혼 빛 아래 점점 창백해져 간다. 대지는 안식의 잠을 자며 깊이 숨을 쉰다. 모든 동경은 이제 꿈으로 바뀌니, 고단한 일꾼들은 집으로 돌아가, 잊혀진 행복과 젊음을 꿈속에서 새롭게 배우노라! 새들은 조용히 가지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고, 세상은 잠 속으로 빠져든다.</p> <p>(이하 생략)</p>
---	---

비록 가곡은 독일어로 돼 있지만, 해석을 보면 맹호연과 왕유의 원시 내용을 충
분히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연 실황을 유튜브에서 찾아 들어보면 더욱 실감
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표6〉 왕유의 시와 「대지의 노래」 가사 비교



送別	대지의 노래
<p>下馬飲君酒</p> <p>말에서 내려 그대에게 술을 권하며</p> <p>問君何所之</p> <p>물노니, 어디로 가시오</p> <p>君言不得意</p> <p>그대는 말하길, 뜻을 이루지 못해</p> <p>歸臥南山陲</p> <p>남산으로 돌아가 숨으려 하오</p> <p>但去莫復聞</p> <p>마음대로 떠나시오, 다시 묻지 않을 테니</p> <p>白雲無盡時</p> <p>흰 구름은 다하는 때가 없는 법이오</p>	<p>그는 말에서 내리고 작별의 잔을 건네준다. 그가 묻는다. 어디로 가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그가 흐릿한 목소리로 말하길 그대, 나의 벗이여, 세상은 내게 호의를 보이지 않았다네!</p> <p>내가 어디에 가느냐고? 나는 간다네, 산속을 방황한다네. 내 고독한 마음이 쉴 곳을 찾는다네. 나는 내고향, 내 집으로 돌아가노니, 결코 머나먼 곳을 방황하지 않으리. 내 마음은 고요하고 때를 기다리노라! 사랑스러운 대지는 봄을 맞아 도처에 꽃을 피우고 초록빛으로 단장하니 저 멀리 곳곳마다 영원히 파랗게 빛나는도다! 영원히…… 영원히……</p>

동양의 한시와 서양의 교향곡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표현 방법이 글이든 음악이든 동서고금 구분 없이 인간의 감정은 닮았음을 느낄 수 있다.

3. 중국어 I 교과서 분석

본 절에서는 한시의 내용과 융합 수업을 할 수 있는 중국어 I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의 이별 시를 수업한 후, 시점을 현재로 옮겨 중국의 이별 관련 선물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중국어 I의 발음 수업 시에는 성조만 달라도 달라지는 단어의 의미, 발음이 비슷해서 떠올리게 되는 다른 뜻의 단어 등을 학습한다. 한시를 해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일상 회화 중에도 다양한 해음현상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긴다. 이 가운데 ‘이별’을 떠올려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지 않는 두 가지 물건에 대한 설명이 여러 교과서에 등장한다. 한 교과서의 해당 내용을 발췌하면 <표7>과 같다.

<표7> 해음현상으로 인한 기피 선물

<p>중국 이야기 중국 문화 속 발음 이야기!</p> <p>★ 중국에서 피해야 하는 선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p>  <p>‘우산(伞 sǎn)’은 ‘흘러지다’는 뜻의 ‘散 sàn’과 발음이 비슷해서 기피합니다.</p>	<p>중국 이야기 중국 문화 속 발음 이야기!</p> <p>★ 중국에서 피해야 하는 선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p>  <p>‘배(梨 lí)’는 ‘떠나다’는 뜻의 ‘离 lí’와 발음이 같고, ‘배를 나누다(分梨 fēn lí)’도 ‘헤어지다’라는 뜻의 ‘分离 fēnlí’와 발음이 같아서 기피합니다.</p>
---	--

단어의 발음이 무언가 좋지 않은 상황을 연상 시켜 언급을 피하게 되는 것이 더러 있지만, 본고에서는 위와 같이 이별을 떠올리는 물건과 발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음악과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표8>과 같은 성취기준을 참고한다.

<표8> 한문 I, 중국어 I 성취기준

한문 I	중국어 I
[12한문 I 03-01]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12중 I -05-02]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국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한다.
[12한문 I 05-02]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12중 I -05-03] 중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활용하여 모둠 활동에 참여한다. [12중 I -05-04] 중국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를 비교 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	--

아래와 같은 중국어 I 성취기준 해설¹³⁾의 두 가지 설명은, 중국어의 문화 관련 학습요소인 해음현상의 학습 방향이 될 수 있다.

- 중국 문화와 우리 문화를 상호 비교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이별’을 주제로 한문 I, 음악, 중국어 I 의 교과서 내용 및 성취기준을 알아보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장에서 실제 융합 수업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해보고자 한다.

III. 융합 수업 교수-학습 모형 설계

본 장에서는 ‘이별’을 주제로 한문 I, 음악, 중국어 I 세 교과서의 융합 수업을 설계한다. 중심교과가 한문 I 인 만큼, 교수-학습 모형 설계 시 <표9>의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

<표9> 한문 I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성취기준	[12한문 I 02-08]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12한문 I 03-01]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12한문 I 05-02]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교수· 학습 방법	‘이해와 감상’을 학습할 때에는 토의·토론하기, 역할 놀이 학습, 그림·만화 활용하기, 연극·방송 대본 만들기, 역사 신문 만들기, 가상 인터뷰하기,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 , 감상문 쓰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유의 사항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 : 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시·소설·수필 또는 대중가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찾아보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한다. ¹⁴⁾

13) 교육부(2015b), pp.257-258

14) 교육부(2015c), pp.35-36

14 한국한문교육학회 2021년 춘계 학술대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과서 개발과 적용의 지향 및 교재 개발을 위한 한문 교육컨텐츠의 발굴 및 활용

<표9>를 토대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교수 방법의 틀을 제시하면 <표10>과 같다.

<표10> 융합 수업 설계

대주제	이별을 주제로 한 한시 감상	
융합 수업 교과 성취기준	음악	[12음02-03]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12감비01-04] 음악 작품이 지닌 음악적 의도와 특징을 이해하여 설명한다.
	중국어 I	[12중 I -05-02]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국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한다. [12중 I -05-03] 중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모둠 활동에 참여한다. [12중 I -05-04] 중국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를 비교 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하는 태도를 갖는다.
학습목표	한시의 내용과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	
수업내용	한시를 해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한다.	
교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참여 시간을 넉넉히 주기 위해 두 시간 블록타임으로 진행한다. - 한시를 읽고, 이를 바탕으로 작곡된 음악을 감상한 후 본인의 느낀점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반화된 원격 수업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한다. 	

<표10>에서 설정한 학습 목표 등은 본 장의 융합 수업 교수-학습 지도안의 도입, 전개, 마무리 각 단계 활동 구상의 바탕이 된다. 원격 수업 방법을 제안하되 주로 ZOOM을 활용하며 때때로 SNS 등 원격 수업의 초보자도 활용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다.

1. 도입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수업 자료
		교사활동	학생활동	
도입	인사 및 출석	· 인사 및 출석 확인	· 인사	ZOOM, SNS, PPT
	전시 학습 확인	· 여러 가지 한시 제목을 제시하며 주제를 질문	· 지난 시간의 활동 내용을 떠올리며 교사의 질문에 대답	
	흥미 유발	· 몽크의 「이별」을 제목을 가리고 그림만 보여주며, 어떤 느낌인지 말해보게 함	· 그림을 보고 느낀 대로 자유롭게 말하기	
	학습 목표 제시	· PPT로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를 읽고 내용을 파악	

인사 후 본 수업의 주제인 ‘이별’을 느낄 수 있도록, 우선 몽크의 그림을 보여준다. <표11>은 실제로 학생들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답을 받은 본 연구자의 SNS를 캡처한 것이다. 그림 속 남녀가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는 것 같은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그림의 제목도 모르는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표11> 몽크의 「이별」을 본 학생들의 감상

<p>그림속 남녀는 어떤 상황 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p> <p>남자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아파 보이고 여자는 꽃길 걷고 있는 거 같아요. 흑백 대조 때문에 더 그래 보여요</p> <p>남자는 마음이 아파 비이거 여자는 남자를 떠나는 것 처럼 보여요</p> <p>여자가 남자를 찾고 가는 것 같아요. 여자는 미련 없는데 남자는 슬퍼 보여요. 나래 말대로 흑백 색 대비 때문에 더 들어 비교가 돼요</p>	<p>남자가 작사하면서 고백했는데 차였어요. 여자는 알고보니 남친이 있었거든요</p> <p>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p> <p>남자가 여자한테 반해서 고백했는데 차인 거 같아요</p> <p>아름답고 눈부신 여자를 짝사랑하고 있는 남자 같아요. 그냥 술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 같아서요</p> <p>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남자는 결코 있는 여자와 과거의 복합된 사연이 있었고, 그래서 길을 걸을 중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나무 뒤로 숨고, 한숨 돌리는 것 같아요.</p>	<p>남자가 여자랑 헤어진 거 같은데요</p> <p>여자가 아픈 남자를 두고 그냥 가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남자는 지친 표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데 여자는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그쪽으로 가까이와 해 이미 말을 뱉었어요 (ㅂ)</p> <p>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하려는데 긴장하는 거 같아요</p> <p>여자가 죽어서 남자가 슬퍼하는 것 같아요</p> <p>여자의 머리카락이 남자의 머리에 이어져 있고 남자가 가슴에 손을 얹을 것을 보니 남자가 여자를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있는 거 같아요</p>	<p>여자와 남자가 죽음과 삶으로 나누어 지는 거 같아요. 나무와 풀이 있는 남자 쪽은 아직 이승 여자가 향하고 있는 비두를 바다는 저승이어서 남자는 자신이 아직 살아 있음에 안도해서 놀한 가슴을 열어 내리고 있는 거 같고 여자는 영혼이 되어서 아무런 기억과 미련 없이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고 있는 거 같아요</p> <p>남자가 여자를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p> <p>서로 다른 남녀가 이별을 맺었고 남자는 슬퍼하는 것 같아요</p> <p>남자랑 여자가 헤어진 거 같은데 남자는 아직 여자에게 미련이 남은 거 같고 여자는 이제 남자에게 아무 감정이 없는 거 같아요</p>	<p>남자는 여자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 여자는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p> <p>남자가 여자를 좋아했는데 여자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면 도통 여자의 화장할 분가 같아요. 이유는 남녀 복장의 색차이가 확연하고 여자의 형체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남자가 여자를 추억하며 환상을 보고 있는 거 같아요</p> <p>남자랑 여자랑 헤어지는 거 같아요. 여자는 미련 없이 떠나는 거 같고 남자는 그 모습에 후회하는 거 같아요</p> <p>이별을 한 남녀 인 것 같아요. 여자는 이미 떠났지만 남자는 이별하기전의 여자의 화장 용모며 마음이 아파 나무에 기대있는 걸로 보여요</p>
--	---	--	--	--

자유롭게 생각을 답하게 한 뒤 작품의 제목과 상황을 설명하니 더욱 공감대가 형성되는 느낌이었다. 원격 수업 기간에 진행된 활동이기에 SNS 댓글 활동으로 진행하였고, 손들고 발표하는 것보다 오히려 진지하게 사고하고 말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발표보다 인터넷 채팅 교류를 편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위의 댓글 활동 후에는 비록 원격 수업 기간이라 몸은 떨어져 있지만, 생각은 하나로 맺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동심초(同心草)’에 빗대 이야기하며, 오늘의 학습 목표인 ‘한시의 내용과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를 제시하였다.

2. 전개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수업 자료
		교사활동	학생활동	
전개	한시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맹호연의 「宿業師山房待丁大不至」, 왕유의 「送別」 원문, 「대지의 노래」 가사와 함께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곡의 가사를 참고로 하여 한시의 뜻을 추측 	ZOOM, YouTube, 학습지, PPT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과 함께 하는 한시 감상 - YouTube에서 가곡 교향곡인 「대지의 노래」 6악장을 틀어줌 · 모둠활동 - ZOOM 모둠별 방 활동 피드백 제공 - 모둠원별 참여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을 듣고 한시를 읽음 - 한시에 나타난 이별에 대한 태도를 해석 · 모둠활동 - ZOOM 모둠별 방 활동 참여 - 해석, 발표 등 역할 균등 분배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OOM 조별활동을 해제하고, 전체 학생이 각 모둠 발표에 경청 · 전체 모둠 활동, 한시 해석에 대한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구절을 나눠 해석 내용을 발표하고, 타 모둠 발표 시 경청함 	
	실생활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별에 대한 동서고금을 막론한 감정을 이해한 후, 이별을 떠올려서 중국에서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지 않는 선물 (우산, 배)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에서 중국인의 금기 선물 중 ‘이별’ 과 관련된 우산, 배를 검색해서 발표 · 중국어의 발음을 따라해보며 해음 현상 및 중국인의 실생활 이해 	

전개 활동은 주로 ZOOM에서 진행한다. 맹호연의 「宿業師山房待丁大不至」과 왕유의 「送別」을 해석 없는 학습지로 공유하고, 관련된 「대지의 노래」 가곡 가사만 함께 제시한다. 그런 다음 다 같이 두 시와 관련된 「대지의 노래」 6악장을 유튜브 공연 실황으로 들어본다. 학급 전체가 함께 공연을 감상하고, 이어서 모둠별로 모여 해당 시를 해석해보도록 한다. 이때 교사가 조별 방에 들어가서 진행되는 상황을 틈틈이 확인하고 질문도 받는다. 해석이 마무리되면 모둠별로 해석한 화면을 공유하며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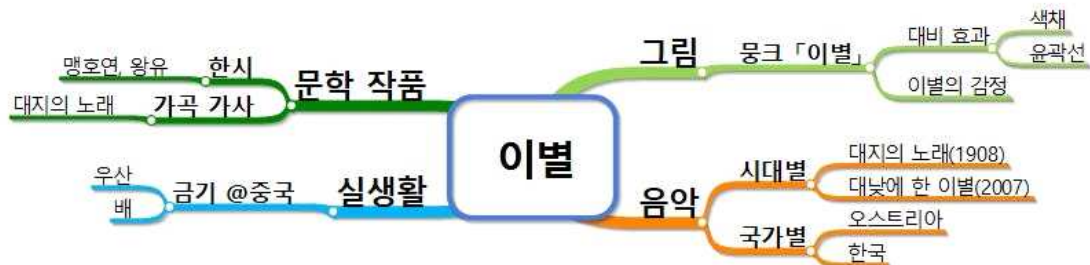
이어지는 활동으로, 이별이 떠올라서 사랑하는 사람과 주고받지 않는 선물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ZOOM 채팅방에서 댓글로 올려도 좋고, 실제 음성으로 발표를 해도 괜찮다. 우리나라에 신발을 선물하면 받은 이가 신고 도망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발음이 ‘이별’을 떠올려서 우산을 주지 않거나 배를 나눠 먹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산(雨傘)’의 ‘傘(sǎn)’이 흩어진다는 뜻의 ‘散(sàn)’과 발음이 같고, ‘배를 나누다(分梨 fēn lí)’의 발음이 ‘헤어지다(分離 fēnlí)’와 발음이 같아서 기피한다. 이를 통해 현대 중국인의 생활과 관련된 문화를 파악하여 실제 교류 시 참고하기로 하며 ‘이별’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 학습은 마친다.

3. 마무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수업 자료
		교사활동	학생활동	
마무리	총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인드맵으로 오늘의 활동 정리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별의 정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효과적인지 얘기 나누며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마인드맵을 참고하여 스스로 만들어 봄 오늘 접한 미술, 음악 등 예술작품과 문학작품, 그리고 해음현상을 통해 파악한 중국인의 실생활 등을 떠올리며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고민 	ZOOM
	차시 수업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진영의 「대낮에 한 이별」 1분 듣기 후, 다음 시간 한시의 수사법에 대한 수업을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장, 역설 등 한시의 수사법의 종류를 떠올리며 차시 수업내용을 예측함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오늘 학습한 한시, 서양 가곡, 중국어 등을 종합하여 ‘이별’을 중심단어로 두고 마인드맵을 그리게 한다. Think Wise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컴퓨터로 작업해도 되고, 종이에 손으로 써서 사진을 찍어 학급 친구들과 공유해도 괜찮다. <그림3>은 Think Wise로 제작한 마인드맵이다.

<그림3> 본시 학습 내용 정리 마인드맵



지금까지 ‘이별’을 주제로 한 한시의 한문 I -음악-중국어 I 융합 수업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해보았다. 1년간 원격 수업을 진행해본 결과, 비록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몸은 멀어졌지만, 우리의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답게 교사의 우려보다 적응을 잘해가고 있다. 다만 참여할 기회가 많이 제공될수록 학생들은 더욱 주인의식을 갖고 새로운 수업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따라서, 2020년 초반에 많은 교사가 선택했던 강의식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기보다는 학생 참여의 기회를 늘려줄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 본고 역시 그 고민의 결과로 융합 수업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해 보았고, 앞으로 꾸준히 학생들에게 적용해보고 발전 시켜 나갈 생각이다.

IV. 결론 및 제언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는 원격 수업을 해본 적 없는 본 연구자와 같은 교사의 입장에서, 쉽고 단순하지만 학생의 흥미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융합 수업으로 원격 수업을 설계해보았다.

1인의 교사가 처음으로 융합 수업에 도전해보고 싶을 때, 원격 수업이라는 환경을 활용해 온택트 시대에 맞는 수업을 설계할 때 적용해 볼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선구자적인 화려한 기술 이용을 제시하지는 못해도, 누구나 쉽게 당장이라도 쓸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문 I, 음악, 중국어 I의 세 교과서를 분석하여 공통으로 등장하는 ‘이별’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각 교과의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수업을 위해 성취 기준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융합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만으로도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시야를 넓히게 한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떠오르게 했다. 비록 기존의 ZOOM 프로그램 사용을 기본으로 설계한 수업이지만, 새로 단장한 EBS 온라인클래스가 안정화되면 국내 기반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풍성한 실시간 양방향 원격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련의 과정 중 평가와 기록의 설계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융합·연계 교육 관련 평가를 하여 학습자의 성장과 수업 개선을 도모한다.’¹⁵⁾는 한문 I 교육과정의 평가 방향으로 후속 연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1인의 교사가 모든 교과를 파악하여 진행하는 교과 내 수업형 융합 교육이 아닌, 각 교과 교사가 해당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수업하는 교과 연계 수업형 융합 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 또한 기대하는 바이다.

15) 교육부(2015c), pp.42-43

[참고문헌]

- 교육부(2015a), 『음악과 교육과정(제2015-74호)-별책12』
- 교육부(2015b),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별책16』
- 교육부(2015c), 『한문과 교육과정(제2015-74호)-별책17』
- 김문경(2010), 『김문경의 구스타프 말러』, 밀물.
- 신재한(2013), 『STEAM 융합교육의 이론과 실재』, 교육과학사.
- 황병기(2013), 『가야금 명인 황병기의 논어 백 가락』, 풀빛.
-
- 김성중 외 4인(2018), 『고등학교 한문 I』, 이젠미디어.
- 김영진 외 7인(2018), 『고등학교 한문 I』, 씨마스.
- 김용재 외 5인(2018), 『고등학교 한문 I』, 와이비엠.
- 박성규 외 5인(2018), 『고등학교 한문 I』, 동아출판.
- 송재소 외 6인(2018), 『고등학교 한문 I』, 다락원.
- 신승희 외 4인(2018), 『고등학교 중국어 I』, 천재교과서.
- 신표섭 외 3인(2018), 『고등학교 한문 I』, 대학서림.
- 심경호 외 5인(2018), 『고등학교 한문 I』, 미래엔.
- 오형민 외 3인(2018), 『고등학교 한문 I』, 금성출판사.
- 안대회 외 6인(2018), 『고등학교 한문 I』, 천재교과서.
- 안재철 외 5인(2018), 『고등학교 한문 I』, 지학사.
- 이동재 외 4인(2018), 『고등학교 한문 I』, 비상교육.
- 이향배 외 3인(2018), 『고등학교 한문 I』, 대명사.
- 정미영 외 3인(2018), 『음악 감상과 비평』, 천재교과서.
- 진재교 외 3인(2018), 『고등학교 한문 I』, 장원교육.
-
- 김왕규(2020), 「한문과 기반 융합 교육의 방향과 교과서 구현 양상」, 『漢文教育研究』 55, 한국한문교육학회, 5~28면.
- 심규현(2020), 『고등학교 한문 I의 융합 수업 모형 구안』, 공주대학교 석사논문.
-
- cake kim, 「Sumi Jo(조수미) - 동심초」, YouTubekr, 2014.2.27.,
<https://www.youtube.com/watch?v=P6HKrjtDKNs> (2021.3.1.)
- Lee Joseph, 「Mahler-Das Lied von der Erde 대지의노래 - 메조소프라노 장은, 테너 김태환, 피아노 석유경」, YouTubekr, 2013.11.5,
<https://www.youtube.com/watch?v=JDWD28eQ8H4> (2021.3.1.)

[Abstract]

Exploring various teaching models to be integrated in Chinese Characters I

Gyuhyun Shim*

The coronavirus disease has remarkably transformed the way in which we teach and learn (at schools). Teachers who are habituated to stimulating learning motives under a face-to-face environment have now taken their first endeavor to provide the same under an unfamiliar circumstance, namely remote classrooms.

In their first attempt – particularly for public schools – at remote classroom, teachers were uptight and students were curious. However, it didn't take long for students to be seen left out in the communication with lack of interactions. Teachers, including the author of this dissertation, felt they were in dire need of devising ways to get students involved, and two key aspects were considered; 'Selecting a broad topic that resonates with wider group to bring interactions and share creative thoughts' and 'Capitalizing on the strengths of remote schooling'.

Having examined 13 types of Chinese poetries in Chinese Characters I, 'farewell' was chosen – a topic extensively dealt in various forms of art globally. In addition, 'farewell' stood out in various text books such as farewell-related poetry in Chinese Characters, a song written based on farewell-related poetry in Music and gifts that rhyme with 'farewell' in Chinese Language.

Given convergence education within remote environment being in its early stage, it was designed with consideration for applying classroom-type convergence education by a single teacher and avoiding overstepping the boundaries of the other subjects' curriculums by carefully assessing the achievement goals.

Considering three subjects being converged, a block time system was proposed in order to secure longer class period, and it was pragmatically developed with professor-learning model in mind.

From an integration perspective on 'curriculum-class-assessment-records', this study lacks research on assessment and recording, which are kept as a follow-up, and focuses on putting forward realistic classroom scenarios.

Key words: Education on Chinese Characters, Convergence Education, Achievement Goals

* Teacher, Koyang High School / skhskh@korea.kr

언택트 시대와 고교학점제를 고려한 자유발행 한문 교과서 개발 방안

손형태(전북 부안고, 전북교육정책연구소 파견)

언택트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¹⁶⁾로 교육 환경과 수업 틀에 대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마치 서당과 향교, 서원과 국학으로 이루어졌던 조선의 교육 환경과 학습 방식이 갑오개혁(1894) 이후 학교라는 근대 교육의 환경과 틀로 바뀐 것에 비유할 만하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 변화 중 가장 큰 부분은 대면과 등교를 통해 이루어지던 교육 방식이 비대면과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졌고, 일상화된 점이다.¹⁷⁾

팬데믹(Pandemic)¹⁸⁾ 상황에서 기존에 익숙하던 등교와 대면이라는 교육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의 교육과 그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원격 교육, 원격 수업,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교육 방법과 용어들이 나타났다.

특히 세계적 감염병 유행 상황 속에서 접촉을 피한다는 의미의 '언택트(Untact)'와 대면 접촉을 피해 온라인으로 만난다는 '온택트(Ontact)'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언택트는 '접촉(Contact)'과 '하지 않는(Un)'다는 의미를 연결한 비대면·비접촉을 의미하는 용어¹⁹⁾이며, 온택트는 언택트라는 용어에 온라인(Online)의 'On'을 합성하여 만든 용어²⁰⁾이다. 이러한 용어는 본래 경제 용어로 새로운 소비 경향의 등장과 함께 사용된 용어였으나, 코로나 19의 등장과 함께 사회·경제·정치·교육 등의 분야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코로나 19 이후의 시대를 흔히 '언택트 시대', '온택트 시대'로 부른다.

코로나 19의 백신(Vaccine) 개발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대유행(Pandemic)의 장기화와 팬데믹의 발병 확산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언택트, 온택트 등의 비대면과 온라인 방식은 교육 분야에서도 하나의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코로나 19의 방역단계가 격상될수록 등교 중지로 인해 비대면 교육 활동과 온라인 수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출석·대면을 통한 교육 활동과 더불어 온라인 교육 활동과 수업방식의 다양화, 그리고 교육 효과의 적절성 등

16)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명칭은 질병관리청(<http://www.kdca.go.kr>)의 공식 명칭이다.

17) 기존에는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으나, 교육부의 교육과정 총론 개정 고시(2020.12.)로 원격 수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8)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태

19) 「모바일 환경에 의한 언택트 전시 공간 사례 연구」, 박정아,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2020, 통권 65호. 77쪽.

20)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제공.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44172&cid=43667&categoryId=43667>)

에서 많은 교육적 고민이 발생하고 있다. 학력 격차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온라인 교육 환경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교사들 역시 불만족 수치가 높은 상황이다.²¹⁾

고교학점제와 한문 교육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2020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원격 수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었고, 쌍방향 수업, 온라인 강의 등 수업방식의 틀이 상당 부분 정착되었다. 이 과정에서 'EBS 온라인클래스'는 물론이고, 'ZOOM'과 마이크로소프트의 'Teams', 구글의 'Meet'와 '클래스룸', Youtube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단방향, 쌍방향 수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물론 여전히 가정 배경 요인(사회경제적 지위, SES)에 의해 온라인 수업의 접근성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지원과 학교의 노력 등으로 해결하는 과정 중이고, 언택트 시대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의 온라인 접근성과 시스템적 문제는 IT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언택트, 온택트 시대에서 교육적으로 걱정해야 할 부분은 교육의 질에 관한 문제이다. 대면 수업에서 학생의 학습과 학력에 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비대면 수업으로는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의 내용이 제대로 학습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근거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 측면에서는 여러 과목을 전반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시간적, 물리적 부족²²⁾으로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에서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 때문에 학습자들은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과목은 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비중이 높은 과목과 자신이 진학할 대학의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²³⁾인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시행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보편향후 학습자의 관심과 진로에 맞는 선택적 과목 이수는 보편화, 또는 더욱 심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0년부터 마이스터고(산업 수요 맞춤형)는 고교학점제가 이미 전면 도입되었으

21) 연합뉴스(2021.03.29.) “교사 86%, 잦은 오류에 EBS 온라인클래스에 불만족”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9153600530?input=1195m>

22) 고등학교 1학년이 1학기에 공부하는 일반적인 과목 수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학탐구실험, 체육, 음악, 미술, 기술·가정, 생활·교양 과목 등 10여 개 과목으로 과목당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의 횟수를 최소 기준으로 잡아도 1학기에 약 30회 이상의 평가를 치러야 한다. 이는 교과목 관련 평가로, 이외의 독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학교 행사, 자율활동, 학교 대회 등과 관련한 학교 활동은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

23)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교육부 2021.2.16.) 9쪽

며, 2022~24년까지는 일반고에도 부분 도입이 된다. 그리고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본격 시행된다.²⁴⁾

< 고교학점제 추진계획(로드맵) >

	2021	2022	2023	2024	2025
학점제 도입	마이스터고 ('20~)	특성화고 도입, 일반계고 제도 부분 도입			전체 고교 전면 적용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 발표	2022 교육과정 개정 고시			2022 교육과정 적용 (고1~)
평가제도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전 학년 적용	성취평가제 안착 기반 마련 (모니터링 체제 구축, 교원의 평가 전문성 제고)			성취평가제 확대 도입 (고1~)
연구·선도학교 확대	일반계고(1,680교)				모든 일반계고 및 직업계고 연구·선도학교 운영 경험 축적
		과학고(20개교)			
	외고·국제고·자사고(76개교) 중 일반 고 전환(예정) 학교				
	직업계고 (520개교)				
		특수학교(2개교 이상)			
학점제형 공간조성	233개교	549개교	567개교	-	학교공간 조성 연차적 지원 (시도별 추진 계획에 근거, 추후 변경 가능)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보도자료(교육부 2021.2.17.) 발췌 자료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온라인 수업 방식과 학생의 과목 선택이 강조되는 교육 흐름 속에서 한문 교육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그리고 한문 교육과 한문 과목 수업의 질을 담보하고 더욱 개선할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특히 진로·진학과 입시 경쟁에서 나날이 설 곳을 잃어가는 고등학교의 한문 교육과 수업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 AI 융합 교육이 언택트, 온택트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한문 교사들은 과연 어떤 시선과 생각으로 미래의 한문 교육에 관해 고민하고 있을까?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24)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교육부 2021.2.16.) 3쪽

2021년 초, 고등학교와 대학 관련 교육계의 최대 이슈는 '고교학점제'였다. 교육부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고교학점제의 실현을 위해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021.02.16.)'을 발표²⁵⁾했고, 이는 교육계의 상당한 호응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 역시 나오게 했다.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는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위해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변경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뿐 아니라 기존 출결 여부에 따라 진급과 졸업이 결정되었던 것을 학점 이수와 출결 여부를 동시에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으며, 평가의 기준도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게 변경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학교의 변화 >

	과거의 학교 운영		고교학점제에서의 변화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중심 획일적 교육과정 ■ 대학 진학 중심(일반계고) ■ 학급별 시간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 진학, 취업, 예체능 등 진로 존중 ■ 학생 개인별 시간표
학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일수만 채우면 졸업 ■ 학업 참여 동기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 + 학점 취득해야 졸업 ■ 학업 이행 책무성 부여
교수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학교 교사의 수업 수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학교 수업, 온라인 수업 수강 ■ 학교 밖 전문가 수업 참여
학습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학급 중심의 생활 ■ 일반교실 중심의 획일적 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과목 중심의 이동수업 ■ 학습·지원·공용공간 등 다변화
고교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다양화가 서열화 초래 ■ 학교별 분절적 교육과정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에서 학생별 맞춤형 교육 ■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보도자료(교육부 2021.2.17.) 발췌 자료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통한 교육의 변혁이 한문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또 이러한 변화를 한문 교육계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 논고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고등학교 한문 교육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과 준비해야 할 점, 향후 한문 교육의 대안 제시 등을 중점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고교학점제 이전의 한문 교육 상황

25) 중앙일보(2021.02.18.) “2025년 고교도 대학처럼 과목 선택…학점 못 따면 졸업 못해” : <https://news.joins.com/article/23994470>

고교학점제가 한문 교육에 끼칠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교학점제 이전의 한문 교육 상황을 짚어봐야 한다. 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고교학점제가 한문 교육에 끼칠 긍정적인 부분보다 한문 교육의 위축과 위상 저하 등과 관련된 염려스러운 부분과 그에 대한 대안 고민이다. 염려스러운 부분 중 가장 큰 것이 한문 과목 교원의 증감인데, 고교학점제 이전의 교육과정 속에서 한문 과목 교원의 변화를 통해 한문 교과 위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부분적으로 살핀 후 고교학점제가 한문 교육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해 보겠다.

현재 한문 과목을 담당하는 전국 한문 교사는 몇 명이나 되고, 이 중 고등학교에는 몇 명의 한문 교사가 있을까? 현재 한문 과목 자격 소지자는 2020년 기준으로 중학교가 2,133명, 일반 고등학교가 1,318명이다.²⁶⁾ 그러나 한문 과목 자격을 소지했다고 해서 실제로 한문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통계자료(2020)에 의하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한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는 1,172명²⁷⁾으로 한문 과목 자격 소지자인 1,318명보다 146명이 적다.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 단위제로 운영되고 한문 과목이 제2외국어들과 함께 생활·교양(군)의 과목으로 편제되어 있어서 한문 과목의 담당 교과목별 인원수를 교육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학교는 한문 과목 편제가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여러 과목과 함께 선택 교과 영역에 있어서 한문 과목 자체의 담당 인원 통계는 파악이 어렵다.²⁸⁾ 이는 자율고등학교 통계에서도 담당 인원 파악은 불가능하고 한문 과목 자격 통계만 제시된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로 볼 때, 전국의 한문 자격 교원 또는 한문 과목 담당 교원은 일반 고등학교 한문 과목 담당 1,172명, 특수목적고 한문 과목 담당 31명, 특성화고 한문 과목 담당 153명, 자율고 한문 과목 자격 교원 98명²⁹⁾, 중학교 한문 과목 자격 교원 2,133명으로 총 3,587명(또는 그 이하)으로 추정된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고등학교의 한문 담당 과목 교원이 증가할까? 그리고 한문 과목 개설 학교, 한문 과목 시수, 한문 과목 선택 학생 인원 등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략적인 방향이 제시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고교학점제와 그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행되지 않았기에 단정해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이후의 한문 교육과 한문 수업의 상황을 단편적으로나마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³⁰⁾가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한문과의 쇠퇴가 시작되었고, 이후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대학 입시 등과 결부되어 한문 교

26) 교육통계(2020) '1-4-33 출신별 자격증 과목별 교원수(중학교)', '1-6-30 출신별 자격증 과목별 교원수(일반 고등학교)' : <https://kess.kedi.re.kr>

27) 교육통계(2020) '1-6-24 담당 교과목별 교원수'

28) 교육통계(2020)에서 중학교 한문 과목 담당 교원의 숫자는 파악할 수 없다. '1-4-27 담당 교과목별 교원수(중학교)' 자료에 '기타' 항목으로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담당 과목 교원수와 합산되어 17,923명으로 집계된 것만 파악할 수 있다.

29) 특수목적고, 자율고, 특성화고의 한문 담당, 한문 자격 교원수 역시 교육통계(2020)에 근거하였으며, 이 외의 기타 학교(방송통신고, 인정 대안학교 등)의 한문 자격, 담당 교원수는 제외하였다.

30) 류준경(2017), 「중등학교 한문과 교육의 실태」, 한국한문교육학회 2017년 동계 학술대회 자료집.

원이 줄었고, 한문 과목 시수 감축을 비롯한 한문 교과 위축에 전반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작성 시기의 한계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서 본격적 적용되는 2018년 이후의 자료가 없는 아쉬움이 있으나, 수월성을 강조하는 7차 교육과정과 관점이 다른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흐름이 2017년 이전의 한문 교원 숫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중·고등학교의 한문 교육과 교과 위상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체계적으로 제시한 평가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이 자료에서 교육통계(2017)를 근거로 제시한 2017년 일반 고등학교³¹⁾ 한문 자격 교원의 수는 1,541명이며, 고등학교 한문 담당 교과 교원의 수는 1,411명이다. 2020년 교육통계에서와 같은 양상으로 한문 자격 교원 수가 한문 담당 교원 수보다 적다.

< 일반 고등학교 한문 과목 교원 수 비교 >

	2017년	2020년	증감
자격(한문) 교원 수(명)	1,541	1,318	-223
담당(한문) 교원 수(명)	1,411	1,172	-239
차이(명)	-130	-146	

위에서 보면 2017년에 비해 2020년도에 일반 고등학교에서 한문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숫자가 239명 줄었다. 일시적인 감소는 있었으나, 2009년까지 한문 교원의 숫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한문 교원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2017년~2020년의 3년 사이 200명이 넘는 한문 과목 교원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한문 과목 교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앞의 자료에서 지적³²⁾했듯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선택 중심의 과목 편제, 입시 위주의 교육 등으로 단위 학교에서 한문 과목의 개설이 축소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 외에도 학령인구의 감소, 중학교 한문 수업과의 연계 단절, 한문 교수-학습 방법의 한계 등도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아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5년 이후의 고등학교 한문 교육의 현실이 어떠할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까?

고교학점제 이후 한문 시수의 변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2022 개정 교육과

31) 류준경 교수의 논고에서는 '일반(계)고등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여기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15쪽)에 근거하여 '일반 고등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2) 류준경(2017).

정이 이전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우선 학생의 졸업 기준이다. 현재 단위제로 운영되는 고등학교는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 3년 동안 교과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 총 204단위를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단위가 아니라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204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등학교의 일주일 수업 시간은 보통 하루 7교시를 기준으로 35시간(5일*7교시) 중 교과 30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4시간으로 분배한다. 그래야 고등학교 3년(6학기) 동안 교과를 180단위와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를 이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³⁾

< 일반 고등학교의 평균 수업량 비교(예시)>

	단위제	학점제
교과 수업	30단위*6학기(3년)= 180단위	29학점*6학기(3년)=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4단위*6학기(3년)=24단위	3학점*6학기(3년)=18학점
합계	204단위	192학점
일주일 평균 수업 시간	교과 30시간+창의적 체험활동 4시간=34시간	교과 29시간+창의적 체험활동 3시간=32시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단위제 수업 때보다 2시간의 공강 시간이 늘어난다. 일주일 35시간의 일과 시간 중 3시간의 공강 시간이 발생한다. 현재 1시간의 공강 시간이 3시간의 공강으로 늘기 위해서는 과목에서 1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에서 1시간을 줄여야 가능하다. 현재 운영되는 교과 수업 중 어느 과목인가에서 최소 1시간의 수업이 줄어든다.

< 일반 고등학교 시간표(예시) >

교시	월	화	수	목	금
1	자율	영어Ⅱ	화학Ⅰ	영어Ⅱ	미적분
2	언어와 매체	논술	지구과학Ⅰ	한문Ⅰ	영어Ⅱ
3	영어Ⅱ	언어와 매체	한문Ⅰ	미적분	지구과학Ⅰ
4	화학Ⅰ	한국 지리	영어Ⅱ	한국 지리	한문Ⅰ
5	미적분	미적분	창체 활동	언어와 매체	기술·가정
6	기술·가정	지구과학Ⅰ	창체 활동	화학Ⅰ	언어와 매체
7	운동과 건강	운동과 건강	공강	자율활동	생명과학Ⅰ

위의 시간표는 '한문Ⅰ' 과목이 한문/중국어/일본어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지정과목으로 되어 있다는 가정 아래 만든 것이다. 한문 과목이 중국어/일본어

33) 고등학교의 단위는 '50분 수업을 17회 이수하는 분량'(교육과정 총론)으로 초등학교(40분 수업)와 중학교(45분 수업)의 시간제 수업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시간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등의 제2외국어와 학생 선택과목으로 묶이지 않아 한문 교사가 학생 선택 인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수업 시수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시간표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현행 30시간의 교과 수업 중에서 1시간을 줄여 29시간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위의 시간표에서 학교는 어느 과목의 시간을 줄일까? 또는 학생들에게 1시간의 수업을 줄이도록 요구하면 학생들은 어느 수업을 줄이려고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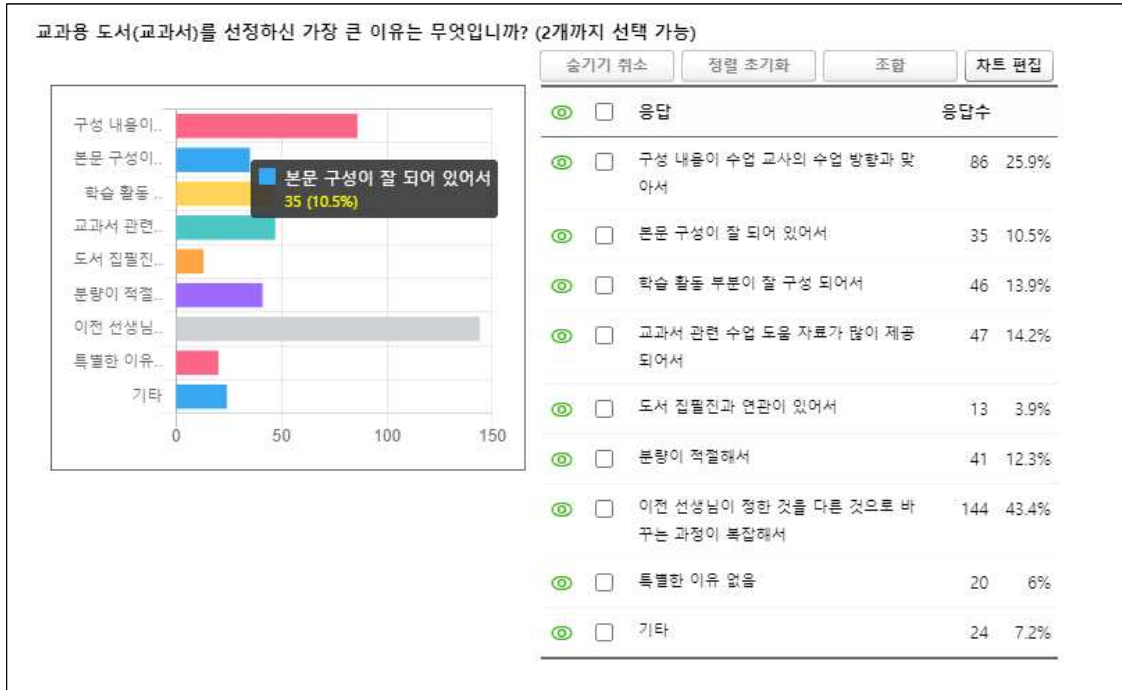
위의 과목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평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과목들은 학교, 학생이 모두 수업 시간을 유지하거나 늘리려 할 것이다. 줄일 수 있는 과목은 수능과 연계성이 크게 없는 '한문I', '기술·가정', '운동과 건강' 과목이다. 이중 '운동과 건강' 과목은 체육 과목으로 3년 동안 10단위를 필수 이수해야 하고, 매 학기 수업을 개설해야 한다는 교육과정 총론의 기준이 있어서 수업 시수를 줄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남는 과목은 '한문I'과 '기술·가정'인데, 이 두 과목 중 과연 어느 과목의 수업이 1시간 줄어들 가능성이 클까?

예상하기에 '한문I' 과목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고교학점제의 핵심이 '학생이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진로와 진학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기술·가정' 과목이 대학 진학에서 전공 연계성이 높다. 어지간한 공대 계열 학과, 생활과학 계열 학과들과 연관이 된다. 그렇다면 한문 과목은 어떤가? 한문이 역사, 국어 관련 학과들과 관련이 높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일까?

'기술·가정' 과목이 내용과 학습 내용의 원리적 측면에서 대학 학과들과 전공 연계성이 높은 것에 비해 한문 과목은 도구적 성격의 교과목으로 언어와 용어 측면에서 도구적 도움이 될 뿐 학습 내용과 원리적 측면에서 인문계열 학과들과 전공 연계성이 밀접하다고 하기 어렵다. 한발 양보해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해도 고등학교 현장에서 한문 과목 수업이 과연 역사, 국어 등의 내용을 밀접하게 연결하여 가르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부분이다.

한문 과목이 역사, 국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도 학교에서 그와 관련하여 밀접하게 연결된 수업을 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한문 과목이 인문계열 과목들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한문 교과서에 인문학적 사고와 학습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학습 내용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업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만약 교과서가 교사의 교육적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적다면 한문 교사의 교육적 방향과 일치하는 다른 한문 교과서를 선택해야 한다.

전국한문교사 오픈채팅방 '줄탁동시(啐啄同時)'에서 2021년 초에 '현재 교과서 선정 이유' 관련 설문을 하였다. 결과를 보면 전체 332명의 응답자 중 43.4%에 해당하는 144명의 한문 교사들이 '이전부터 학교에서 정해진 교과서를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로 바꾸는 과정이 복잡해서' 기존 선정된 교과서를 계속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332명의 응답자 중 고등학교 교사로 응답 범위를 좁히면 '교과서를 바꾸는 과정이 복잡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 정도로 감소한다.



*출탁동시(전국한문교사 오픈채팅방) 설문 내용 발췌(2021.1.15.)

이런 설문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류의 여지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 결국 한문 수업에서 교과서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수업 대부분이 교사의 재량에 의한 활동 수업, 모둠 수업, 수행평가 등으로 이루어지고 교과서는 지필 평가를 위해 일부만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교과서가 수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어찌서일까?

중학교 한문 과목은 학교 선택과목인 관계로 학교 상황이나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한문 과목의 개설과 미개설이 학교 상황이나 교원 수급 여부에 따라 제각각이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중 최하 1/3, 많게는 1/2 이상의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한문 수업을 경험하지 못하기도 한다. 중학교에서 한문 과목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교과서의 한문 문장을 가르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설령 중학교에서 한문 과목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중학교의 한문 교사가 한문 수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학생의 한자·한문 수준이 결정되기도 한다. 자유학년제(또는 학기제)로 활동 위주의 한문 수업이 진행된 경우, 한문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가 수업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이다. 과장된 표현으로 일반 고등학교의 존재 목적이 '起-承-轉-入試'라는 말이 있다. 한문 과목이 대학 진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별다른 채언(贅言)을 붙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를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고 아무리 비판해도 그 말이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현실성 없는 공허한 말로 들릴지는 고등학교 현장

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문 과목은 수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어, 영어, 수학 관련 과목들과 탐구 과목인 사회 관련, 과학 관련 과목들은 물론이고 예술·체육 과목(군)에 비해 대입 측면이나 진로 연계적인 측면에서 큰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추세이다. 심지어 교양 과목인 교육학, 심리학,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과 같은 선택과목으로 묶일 때도 진로 연계성 측면에서 위상이 크게 하락한다. 이는 학생의 한문 과목 선택 회피 경향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문 과목 시수의 감소로 귀결된다. 그리고 한문 과목 시수 감소는 한문 중등 임용 선발 인원과 직결된다.

고교학점제에서 한문 교육을 위협하는 요소들

입시 위주, 학령인구 감소, 중학교 수업과의 연속성, 그리고 진로 연계성 등과 관련한 어려움 외에 고교학점제 시행 후에 한문 과목 위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세대 인식과 교육 흐름의 급격한 변화를 들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4차 산업 혁명과 AI가 도래하는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하고, 교육적으로는 인공지능융합 교육³⁴⁾, 환경교육, 세계 시민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미래 사회와 그에 맞는 역량을 길러 자기주도형 인재를 길러야 하는 시기이다.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존 인성과 올바른 가치관, 전통문화 계승과 한자문화권의 공유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던 한문 과목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한문과 인공지능을 교과에서 접목할 수 있을까? 한문 과목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교육적으로 왜 필요한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전히 인성과 가치관 교육으로 설득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도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의 한문 과목 선택을 무난히 받을 수 있는 걸까?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한문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 외면으로 수업 시수 감축과 순회 학교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³⁵⁾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는 한문을 비롯한 제2외국어, 교양 과목 교사들 대부분이 단위 학교 소속이 아닌 교육지원청 소속의 순회교사로 대거 배치될 가능성이 크고, 단위 학교에서 한문의 교육적 필요성을 주장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 더는 선인들의 일화를 통한 가치관 함양, 인성 교육 등 추상적이고 명분론적인 주장만으로 한문 교육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이다.

한문 수업 방법적인 면에서도 기존처럼 종지와 펜을 이용하는 것으로는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기 쉽다. 기술·가정 수업에서 모형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정보 수업에서 드론을 조종하고, 과학 수업에서는 3D프린팅을 한다. 국어 시간에는 고전

34) 2020년부터 매년 1,000명씩 5년간 5,000명의 인공지능융합 교육 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현재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석사과정 참여 교사에게는 매 학기 50% (150만 원 이내)의 등록금이 지원되며, 시·도교육청에 인공지능융합 교육대학원 연합체가 구성된다. 2020년 상반기 기준 38개 교육대학원에서 1,046명의 교육대상 교원이 선발되었다. 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교원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 홈페이지 참조.

35)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 순회교사를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하여 학교에 과목담당 교사가 없어도 순회교사를 통해 수업을 운영한다고 한다.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9쪽.

소설 속의 주인공을 상상해서 태블릿으로 이미지를 그린다. 초등학교에서는 코딩교육을 위해 스크래치, 엔트리, 앱인벤터 같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아두이노 등을 통해 실제 사물이 움직이게 하는 단계까지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IOT(Internet of Things)를 경험하는 수업을 하는 것이다. 한문 과목의 정서와 방식에 맞지 않게 무조건 첨단 기기를 사용하는 수업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한문 교육과 한문 수업이 지나치게 지필묵(紙筆墨)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한문 과목의 수업 내용이 인성과 가치관 위주라는 것이 교육적으로 굉장한 유의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당장 눈앞의 진학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고등학생에게는 굉장히 낯설거나 무의미한 시간의 수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동영상과 소프트웨어 세대의 학생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수업방식을 구안하여 수업 활용 연수 등을 활성화하지 않는다면 2017~2020년, 3년 동안 한문 교원 200명 이상이 줄었던 상황보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도입이라고 해서 고교학점제 도입까지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021.2.16.)에 따르면 2024년까지 전국 고등학교 2,367개교 중 2,296개교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한다고 한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마이스터고(산업 수요 맞춤형)의 경우 2020년부터 이미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고, 2021년 올해부터는 직업계고 520개교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고교학점제 도입을 증가하여 2024년까지 1,680개교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2021년부터 고교학점제 시행학교를 본격적으로 늘려가고,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기틀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고교학점제는 2021년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고교학점제 도입 후 한문 과목의 경쟁력

그렇다면 학생의 선택을 통해 과목의 개설과 미개설이 결정되는 고교학점제라는 교육 흐름 속에서 한문 과목이 학생들에게 선택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미 앞서 말했듯이 가능성이 크지 않다.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몇 가지 연구 중 2020년 전북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의 과목 선택과 관련된 조사 결과³⁶⁾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6) 안재란(2020), 「전라북도 고등학생 과목선택권 확보 실태 조사」,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20-012.

〈표 III-14〉 제2외국어 영역 과목 선호도*

내용	1순위		2순위		우선 순위
	N	%	N	%	
독일어 I	50	12.1	46	11.1	3
일본어 I	149	36.2	46	11.1	1
프랑스어 I	28	6.8	49	11.8	4
러시아어 I	6	1.5	20	4.8	10
스페인어 I	37	9.0	32	7.7	6
아랍어 I	6	1.5	8	1.9	11
중국어 I	59	14.3	45	10.9	2
베트남어 I	3	0.7	3	0.7	15
독일어 II	3	0.7	10	2.4	12
일본어 II	9	2.2	61	14.7	5
프랑스어 II	2	0.5	6	1.5	14
러시아어 II	0	0	2	0.5	18
스페인어 II	3	0.7	8	1.9	13
아랍어 II	2	0.5	2	0.5	17
중국어 II	6	1.5	22	5.3	9
베트남어 II	1	0.2	0	0	19
한문 I	40	9.7	24	5.8	7
한문 II	6	1.5	26	6.3	8
없음	2	0.5	4	1.0	16
계	414	100	414	100	

* 2과목 선택

전북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문/제2외국어 과목 중 과목 선호도를 조사한 내용이다. 참여 학생 인원이 적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2학년 진급 시 과목 선택에 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한문과 제2외국어 과목 중 선택 1순위는 일본어I, 2순위는 중국어I 과목이다. 그렇다면 한문 과목은 몇 순위 정도의 선호도일까? '독일어I', '프랑스어I', '일본어II', '스페인어I'에 이어 7순위 '한문I', 8순위 '한문II'가 위치한다. 이는 통해 볼 때, 기존 한문 과목이 지정과목으로 편성되었던 상황에서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한문/중국어/일본어 선택(군)으로 묶일 경우, 한문 과목 시수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일본어와 중국어 등 제2외국어의 경우 보통교과의 I과 II과목 외에 전문교과I에서 과목을 가져와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폭³⁷⁾을 넓혀 줄 경우, '한문I', '한문II'뿐인 고등학교 한문 과목의 경쟁력은 더 줄어든다.

외국어 계열	전공 기초 독일어	독일어 회화 I	독일어 회화 II	독일어 독해와 작문 I
	독일어 독해와 작문 II	독일어권 문화		
	전공 기초 프랑스어	프랑스어 회화 I	프랑스어 회화 II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 I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 II	프랑스어권 문화		
	전공 기초 스페인어	스페인어 회화 I	스페인어 회화 II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 I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 II	스페인어권 문화		
	전공 기초 중국어	중국어 회화 I	중국어 회화 II	중국어 독해와 작문 I
	중국어 독해와 작문 II	중국어 문화		
	전공 기초 일본어	일본어 회화 I	일본어 회화 II	일본어 독해와 작문 I
	일본어 독해와 작문 II	일본어 문화		
	전공 기초 러시아어	러시아어 회화 I	러시아어 회화 II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 I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 II	러시아어 문화		

*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20-248호) 중 전문교과의 외국어 계열 과목

37) 제2외국어는 보통교과 2과목과 전문교과 외국어계열의 6개 과목을 합하여 고등학교에서 총 8개 과목까지 편성할 수 있다. 교육과정 총론의 전문교과I 과목명 참조.

제2외국어 과목들과만 비교했을 때도 이렇게 선택과목 수가 밀리는데, 기술·가정과 정보 관련 과목, 그리고 10개 교양 과목들과의 선택권 경쟁에서 한문 과목이 어찌 될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과와 교과와 필요성을 알리기도 전에 과목 선택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한문 과목을 가르쳐 볼 기회조차 잃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문 과목의 선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 수업방식의 변화도 필요하고, 시대적 변화 흐름을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습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수업 내용과 그러한 수업 내용을 운영할 수 있는 과목과 교과서가 필요하다. 현재 만들어진 교육부 고시과목의 한문 과목들로는 학습 수요자인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에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의 내용은 고등학생들의 한문 과목 선택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신설 한문 과목과 교과서를 등록하여 학생의 선택과 학교의 한문 교원을 증원한 전북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한 내용이다. 사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과목 신설의 의미와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먼저 소개한다.

한문 과목 등록 현황

'교과목 신설'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과목을 만든다는 뜻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으로 하는 과목들은 보통 교육부 주관으로 만들어진다.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한문'과 고등학교의 '한문I', '한문II'가 바로 교육부 주관으로 만들어진 과목이다. 이런 과목들을 교육부에서 고시(告示)한 과목이라고 해서 '고시과목'이라고 한다.

고시과목은 초·중·고 관련 과목들이 다양하게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과학계열, 체육계열, 외국어계열, 예술계열, 국제계열, 산업 수요 맞춤형 등), 특성화 고등학교 등으로 학교 유형을 분류하고 학교 유형별로 과목을 개설한다. 보통 일반 고등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이 100개 정도 된다. 특수목적고에서 주로 개설하는 과목은 150여 개이다. 일반고와 특목고는 과목을 서로 호환해서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에 등록해서 개설할 수 있다. 그리고 특성화고에서 계열별(공업계열, 농생명계열, 상업·정보계열 등)로 개설하는 과목이 500여 개 정도 된다. 결론적으로 고시과목의 수가 750개 정도 된다. 교육부 주관의 고시과목이 적지 않으므로 학교에서는 현재 고시된 과목 중에서 학교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수업을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교육부의 고시과목 외에 학교에서 고시과목에 없는 새로운 과목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로봇고등학교, 군특성화고등학교, 한방고등학교, 항공고등학교, 게임고등학교, 경마축산고등학교, 치즈과학고등학교, 석유화학고등학교 등과 같이 학교 나름의 설립 목적에 맞는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학교에서는 고시과목에 없는 특별한 과목들이 필요하다.

이럴 때 고시과목 외에 학교장이 해당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새로운 과목을 만드는데, 이를 '고시 외 과목', '시·도교육청 승인과목'이라고 한다. 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학교장 자율개설과목'이라고도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진 고시 외 과목이 몇 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현재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의 자료를 토대로 하면 고시과목을 포함한 과목이 약 3,300여 개 조회된다. 이로 볼 때 고시 외 과목은 약 2,600여 개 정도로 추산된다.³⁸⁾ 이 중에는 '평화세미나', '퍼즐과 게임! 인생의 조각 맞추기',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되기' 등과 같은 특이한 과목명들도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과목 중에서 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는 한문 관련 과목은 몇 개가 있을까? 아래는 NEIS에서 '한문'으로 검색 가능한 과목들이다.

과목찾기

과목명: 한문 [조회]

과목코드	과목명	등록기관
0000004360	교양한문	경상북도교육청
0000004496	생활과 한문	전라북도교육청
0000002381	생활한문	광주광역시교육청
0000000018	한문	교육부
0000000110	한문I	교육부
0000000111	한문II	교육부
0000001737	한문고전	경상북도교육청
0000004497	한의학 한문	전라북도교육청

등록기관이 교육부인 것은 고시과목, 그 외는 시·도교육청별로 등록한 고시 외 과목이다.

'생활과 한문', '한의학 한문', '고전의 지혜'가 2021년에 한문 과목으로 신설 등록하였다.

한문 과목 신설의 필요성

'한문'으로 조회할 경우 8개의 과목이 검색된다. 이 중에서 전북교육청에서 등록한 '생활과 한문', '한의학 한문'은 2020년 말에 등록된 과목이므로 기존에는 교육부의 고시과목 3개 외에 경북교육청의 '교양한문', '한문고전', 광주교육청의 '생활한문'이라는 3개의 고시 외 과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한문'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회 할 수 있는 과목들도 있다. 예를 들어 '논어1', '논어2'처럼 '한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한문 과목이 분명한 과목들도 있다. 이렇게 보면 현재 고등학교에서 한문 관련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과목들이 결코 적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굳이 새로운 한문

38) 이는 2020년까지의 등록 과목 수이므로 2021년 현재 더 추가된 과목이 있을 것이다.

과목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일까?

새로운 한문 과목이 필요한 이유는 고시과목인 '한문', '한문Ⅰ', '한문Ⅱ'처럼 고시 외 과목의 교육과정과 성취기준, 그리고 과목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고등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여 수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업 내용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평가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평가를 위해서는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한문 관련 고시 외 과목들은 과목을 등록한 교육과정을 해당 교육청에 문의해도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구할 수 없다. 그리고 광주교육청의 '생활한문' 과목은 대안학교 수업을 위해 등록한 한문 과목이라서 광주지역 외의 학교가 과목을 개설할 경우 과목 개설이 가능한지 해당 교육청과 상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단위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변경하는 부분에서 '그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기존 교과서를 계속 쓴다는 한문 교사들의 응답이 40%를 넘는 상황인데, 새로운 과목을 개설 후 새로운 과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성취기준, 수업 방법, 평가 기준 등의 복잡한 과정을 한문 교사가 개별적으로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고등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는 '한문Ⅰ', '한문Ⅱ'만으로 이전처럼 고등학교 한문 교육을 감당하기에는 학생 선택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이 때문에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고, 학생의 선택을 받을 만한 매력이 있으며, 단위 학교의 한문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평가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신설 한문 교과가 필요한 것이다.

한문 과목 신설 사례

전북의 J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문 관련 과목으로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공동교육과정은 '소수선택과목' 수강과 함께 순증형 교육과정으로 학교 수업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개설하여 주는 고교학점제의 학생 과목 선택권 확보 방안 중 하나이다. 평일에 하는 한문 수업과 똑같이 학교의 교육 과정에 등록되며,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와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이 되는 정규교육과정이다. 수업 활동, 평가 등도 모두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그러므로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과목 수강 여부에 따라 최소 1과목(2단위, 3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더 이수할 수 있고, 이를 학생생활기록부의 기록을 통해 진학 시에 가점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이수한 과목이 본인의 진로나 진학 예정 학과와 전공 적합성(또는 전공 연계성)이 있는 경우, 진로 설계에서 학생에게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다.

평일 학교 수업과 다른 점은 토요일 오전에 하는 수업으로 J고 학생뿐 아니라 주변 학교에서 한문 과목을 받고 싶은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토요일 하루 4시간 연속 강의(4시간*9주, 총 36시간)라는 점, 주변 학교의 한문 교사 4명이 함께 협업과 코티칭 수업을 한다는 점 등이다. 공동교육과정은 전북 외에도 각 시·도교육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9년 2학기 '한문Ⅱ'를 시작으로 2020년 1학기에 '생활한문', 2학기에 '한문고전'³⁹⁾을 개설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한문I'은 평일 학교 수업의 과목으로 이미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이수를 방지하고자 '한문I' 이외의 과목으로 토요일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다.

2019년 처음 '한문Ⅱ' 공동교육과정 수업 운영 후 2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나는 공동교육과정을 받은 학생 1명이 2019년 '한문Ⅱ'를 수강한 후 한문 수업이 재밌어서 2020년에도 공동교육과정의 한문 관련 수업을 받고 싶다고 한 것이다. 그 학생은 J고 학생이 아닌 타 학교 학생으로 만약 2019년처럼 '한문Ⅱ'과목을 2020년에 또 수강하면 중복이수가 되는 상황이었다. 중복이수의 경우 1번만 학생생활부에 기록되기에 같은 과목을 중복해서 이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 1명의 학생을 위해 '한문I'과 '한문Ⅱ' 외의 과목 개설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 그때 그 학생을 위한 고민과 노력 없이, 그 학생에게 수업을 포기하라고 했다면 교과목 신설을 통한 한문 과목의 확대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학교 상황으로 한문 교사를 1명 더 증원하기 위해 학교의 평일 수업 과목으로 '한문Ⅱ'를 개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J고는 2학년 '한문I' 수업을 한문 교사 1명이 가르치던 상황이었는데, 학급 증가로 교사 정원이 1명 더 늘어났고, 다른 과목들에서 교사 정원을 확보할 생각이 없기에 한문과 교사를 늘리자고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한문I' 외의 한문 과목을 개설해야 하는데, 개설할 수 있는 고시 과목이 '한문Ⅱ' 밖에 없었다.

당시 상황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존에 개설했던 '한문Ⅱ'를 공동교육과정 수업으로 개설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다른 시·도교육청 승인과목인 '생활한문'⁴⁰⁾, '한문고전'⁴¹⁾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대로 교육과정, 성취기준, 교과서 확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 교과목을 만드는 과정

2020년 1학기 공동교육과정이 끝나고 공동교육과정 한문 수업 운영을 함께 한 한문 선생님들과 2021년에도 '생활한문', '한문고전' 과목으로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기존 한문 과목으로 학생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점 등 여러 한계점이 대두되었고, 새로운 한문 과목을 만들자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 생각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신설 교과 승인 요청서와 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정도만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성해야

39) 한문 과목 중 고전을 다루는 과목으로 7차 교육과정 시기의 고시과목인 '한문 고전'과 경상북도 교육청의 고시 외 과목인 '한문고전'이 있다. 여기서는 이미 폐지된 7차 교육과정의 '한문 고전'이 아닌 고시 외 과목 '한문고전'을 말한다. 과목 명칭이 같더라도 중간에 띄어쓰기, 특수부호 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 과목이 된다.

40) 광주광역시 교육청 승인 고시 외 과목

41) '한문고전'은 2009 교육과정의 고시과목인 '한문 고전'과는 다른 시·도교육청 승인과목이다. 참고로 과목명은 띄어쓰기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 과목이 된다.

할 내용과 분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기한도 마침 11월 말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이어서 3~4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과목에 맞는 새로운 교과서를 함께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교과용 도서 개발'이라고 부르는데, 교과용 도서 개발은 수업 내용 선정, 수업 도구 개발, 저작권 확인, 출판사 선정 등 몇 개월 준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다른 학교에서도 국어과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준비해서 새로운 국어 과목 승인을 추진했는데, 결국 교과서 개발이 어려워 중도에 그만두었다는 말을 들었다. 교과용 도서 개발의 어려움으로 신설 과목 개설 추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020년 8월쯤에 도착한 교과목 신설 관련 공문을 보니 교과목 신설과 교과서 개발이 가능한 의외의 방법이 있었다.

<p>2. 인정도서 개발 또는 일반도서 신청</p> <p>가. 학교에서 인정도서를 개발하는 경우: 신설과목의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발 (개발 후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의 추천 필요)</p> <p>나. 시중 유통도서를 신청하는 경우: 시중 유통도서(외국도서 포함)의 경우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교과서의 교육과정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추천</p>	<p>⇨ 인정도서 신청 관련 공문 내용 일부 발췌</p>
--	-------------------------------------

바로 시중 유통 도서를 활용하여 교과서를 등록하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은 기존 출판된 도서, 서적 등을 교과서로 등록하는 방법이다. 이미 출판된 도서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출판사 선정 등의 과정이 쉽게 해결된다. 신규 교사에서 수석 교사까지 지역의 한문 교사들이 모여 신설 예정 한문 과목에 적합한 도서 선정, 교육과정 개발, 성취기준 작성, 평가 기준, 수행평가 방법 등을 만들었다. 관련 절차 서류를 완성한 후 신설 교과목 승인 위원회, 신설 교과용 도서 인정 위원회 등 신설 교과목 승인과 신설 교과용 도서 인정 절차 과정 등을 모두 마쳤다. 2020년 10월에 시작하여 2020년 11월 초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년 12월~2021년 1월 사이에 신설 과목 승인과 교과용 도서 개발 인정이 완료되었다는 공문을 받을 수 있었다.

<p>제목 [알림] 2021학년도 교과목(교육부 고시과목 외) 신설 승인 신청 결과 안내</p> <p>*1. 관련: 학교교육과- 11475(2020.8.11.), 18714(2020.12.02.), 19288(2020.12.7.)</p> <p>2. 2021학년도 교과목(교육부 고시과목 외) 신설 승인 요청과 타시도교육감승인과목 개설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여부를 알려드리니,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참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신설 신청 과목 현황 및 심의 결과</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th><th>신청학교</th><th>신청 교과목</th><th>심의결과</th><th>순</th><th>신청학교</th><th>신청 교과목</th><th>심의 결과</th></tr> </thead> <tbody> <tr> <td>1</td><td>00고</td><td>인문심층통합배움 I</td><td>승인</td><td>10</td><td>00고</td><td>철공예</td><td>승인</td></tr> <tr> <td>2</td><td>00고</td><td>낭독</td><td>승인</td><td>11</td><td>00고</td><td>민속악</td><td>승인</td></tr> <tr> <td>3</td><td>00고</td><td>문화예술</td><td>승인</td><td>12</td><td>00고</td><td>인문심층통합배움 II</td><td>미승인</td></tr> <tr> <td>4</td><td>00고</td><td>출업작품</td><td>승인</td><td>13</td><td>00고</td><td>인문심층통합배움 III</td><td>미승인</td></tr> <tr> <td>5</td><td>00고</td><td>5차원 수학</td><td>승인</td><td>14</td><td>00중</td><td>관악</td><td>제한적 승인</td></tr> <tr> <td>6</td><td>00고</td><td>문해</td><td>승인</td><td>15</td><td>00고</td><td>5차원 영어</td><td>제한적 승인</td></tr> <tr> <td>7</td><td>00여고</td><td>고전의 지혜</td><td>승인</td><td>16</td><td>00고</td><td>5차원 국어</td><td>제한적 승인</td></tr> <tr> <td>8</td><td>00여고</td><td>생활과 한문</td><td>승인</td><td>17</td><td>00고</td><td>프로젝트 I</td><td>제한적 승인</td></tr> <tr> <td>9</td><td>00여고</td><td>한의학 한문</td><td>승인</td><td>18</td><td>00고</td><td>삶과 표현</td><td>제한적 승인</td></tr> </tbody> </table>							순	신청학교	신청 교과목	심의결과	순	신청학교	신청 교과목	심의 결과	1	00고	인문심층통합배움 I	승인	10	00고	철공예	승인	2	00고	낭독	승인	11	00고	민속악	승인	3	00고	문화예술	승인	12	00고	인문심층통합배움 II	미승인	4	00고	출업작품	승인	13	00고	인문심층통합배움 III	미승인	5	00고	5차원 수학	승인	14	00중	관악	제한적 승인	6	00고	문해	승인	15	00고	5차원 영어	제한적 승인	7	00여고	고전의 지혜	승인	16	00고	5차원 국어	제한적 승인	8	00여고	생활과 한문	승인	17	00고	프로젝트 I	제한적 승인	9	00여고	한의학 한문	승인	18	00고	삶과 표현	제한적 승인	<p>⇨ 교과목 신설 승인 공문</p>
순	신청학교	신청 교과목	심의결과	순	신청학교	신청 교과목	심의 결과																																																																																
1	00고	인문심층통합배움 I	승인	10	00고	철공예	승인																																																																																
2	00고	낭독	승인	11	00고	민속악	승인																																																																																
3	00고	문화예술	승인	12	00고	인문심층통합배움 II	미승인																																																																																
4	00고	출업작품	승인	13	00고	인문심층통합배움 III	미승인																																																																																
5	00고	5차원 수학	승인	14	00중	관악	제한적 승인																																																																																
6	00고	문해	승인	15	00고	5차원 영어	제한적 승인																																																																																
7	00여고	고전의 지혜	승인	16	00고	5차원 국어	제한적 승인																																																																																
8	00여고	생활과 한문	승인	17	00고	프로젝트 I	제한적 승인																																																																																
9	00여고	한의학 한문	승인	18	00고	삶과 표현	제한적 승인																																																																																

제목 [알림] 2021학년도 적용 학교장 신설 교과목 신청 인정도서 승인 알림

1. 관련: 학교교육과-411(2021.01.11.)

2. 2021학년도 적용 학교장 신설 교과목 신청 인정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인정도서로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다음과 같이 인정 승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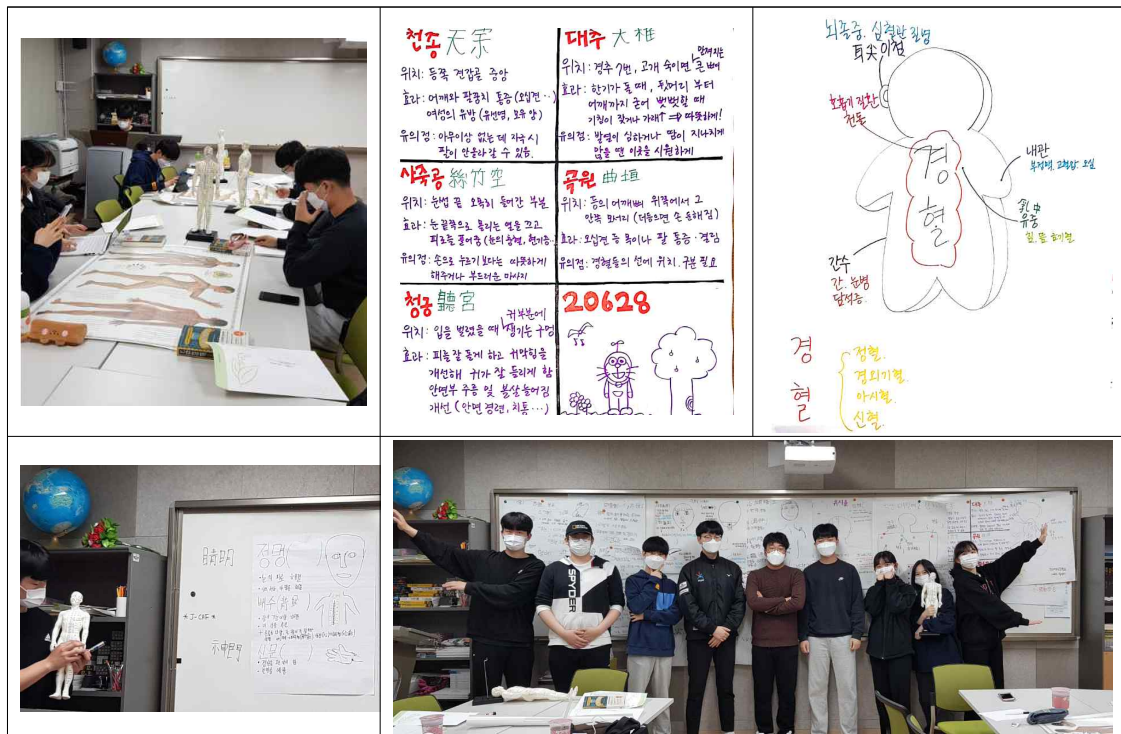
가. 승인 내역

신청학교명	도서명	인정승인일	출판사	정가	비고
00고	부산광역시교육청	2021.1.14.	진영사	10,000	시중유통도서
00고	생활과 한문	2021.1.14.	북스힐	15,000	시중유통도서
	고전의 지혜	2021.1.14.	단국대학교출판부	7,000	시중유통도서
	한의학 한문	2021.1.14.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15,000	시중유통도서

⇨ 교과용 도서 인정
승인 공문

한문 과목 신설 후의 상황

새로 만들어진 한문 관련 3과목 중 '생활과 한문', '한의학 한문'은 2021년 1학기, '고전의 지혜'는 2학기 공동교육과정 개설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2021년 1학기 공동교육과정 개설 한문 과목 중 '생활과 한문'은 신청자가 없어 폐강되었고, '한의학 한문'은 7개교, 총 9명의 학생이 수강을 신청하여 현재 수업 진행 중이다. 9회차 수업 중 2021년 4월 현재 2회차의 수업이 진행되었고, 경혈 발표하기 수업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후 1학기 동안 생명 윤리 발표와 한의학 용어 관련 수업, 의학 윤리 주제로 연극하기(DIC 수업) 등의 수업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 '한의학 한문'의 경혈 발표 수업 활동 및 학생 발표 자료(2021.4.3.토)

수강 인원은 총 9명⁴²⁾이며, 7개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다. 전주에서 개설된 수업을 듣기 위해 익산에서 오는 학생도 4명이다. 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한의학 관련 진로가 확실한 학생들이며, 9명 중 본인의 학교에서 인문·사회계열(舊 문과⁴³⁾)과목 위주로 수업을 선택한 1명의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이 모두 자연·이공계열(舊 이과)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이다. 대부분 학업성취능력이 상위권인 학생들로 파악된다. 공동교육과정이라는 특이성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의학 계열과 자연·이공계열을 진로로 설정한 학생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한문 과목의 한계를 극복한 대안적인 사례이다.

한문 과목과 연계된 진로들이 인문·사회계열 과목 선택 학생에게만 관련이 있다는 선입견으로 한문과의 위상이 크게 위축되었던 것에서 조금이나마 고무적인 상황이 마련되었다. 이제 한문 과목을 역사, 국어 관련 중심의 진로와 연결하는 것에서 확장하여 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약학/보건계열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게 되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동일 지역의 타 고등학교들에서 신설 한문 과목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다. 전북에서 인문·사회 계열 중심의 과목을 개설하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른 학교인 S여고는 공동교육과정 경쟁률이 높은 명문 사학이다. 이 학교에는 그동안 한문 정교사를 선발하지 않고, 기간제 한문 교사로 학교 내의 평일 한문 수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다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의 과목 선택을 점차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문 과목의 수요가 적고, 대입 관련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2021년부터 한문 과목을 없앴다. 그러나 2021학년도 2학기 공동교육과정으로 '한의학 한문'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이다. 본교에 한문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한의학 한문'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J고등학교에 한문 강사 확보와 수업 운영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

이러한 한문 과목 신설이 비단 공동교육과정 한문 수업 개설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문Ⅰ' 과목이 등급을 산출하는 일반 선택과목이어서 학교에서 과목 개설에 일부 부담을 갖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등급 산출이 없는 진로 선택과목인 '한문Ⅱ'를 개설하고자 하나, 교육과정의 위계성 문제로 '한문Ⅰ' 과목 이수 없이 '한문Ⅱ'를 수강할 수 없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등급 산출과 위계성에서 자유로운 한문 과목이 필요한데, 그에 적합한 과목이 바로 신설된 고시 외 과목들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타 학교들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학교 신입생 인원이 줄고 있는 점이다. 도심 학교의 경우 그나마 형편이 낫고, 원도심과 농산어촌 국·공립 학교의 경우 교원의 근무지 순환이

42) 전북의 경우 공동교육과정 수강 인원을 보통 12~15명을 기준으로 한다.

43)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회탐구 영역 위주의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문과', 과학탐구 영역 위주의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이과'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학교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묶어서 탐구 과목 전체를 대상으로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전히 사회탐구 과목들과 과학탐구 과목들을 분리해서 선택하는 학교가 있으나, 교육과정 변화와 대입 진학 추세로 볼 때,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혼합형 수강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있어서 아직은 괜찮은 면도 있다. 그러나 원도심과 농산어촌 사립학교의 경우 신입생 유치에 따라 학교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전북의 경우 학년당 1학급만 운영되는 학교가 적지 않다. 전국의 농산어촌 지역 고등학교의 상황도 대부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학교 배정 학생 인원이 현저히 줄어드는 학교의 경우 신입생 유치를 위해 특색 있는 학교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이 필요한데, 특색 교육과정을 홍보하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타 학교에 없는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다. 학교 특색 과목 개설이 이미 대안 계열 학교, 자율형 학교들에서는 드물지 않게 보이던 현상인데 인구 감소라는 측면에서 좀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들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한문 과목 신설이 한문 과목 시수 증가로 연결

2022년부터는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한의학 한문'이 현재 J고 평일 수업에서 가르치는 '한문Ⅰ'과 '한문Ⅱ'과 더불어 평일 수업의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공동교육과정은 '생활과 한문', '한의학 한문', '고전의 지혜' 3과목에서 '생활과 한문', '고전의 지혜' 2과목으로 운영하고, 평일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는 한문 과목은 총 3개 과목이 된다. 그리고 평일 한문 과목 시수가 기존 대비 5시간 더 증가한다.

2021년 J고 한문 과목과 수업 시수			2022년 J고 한문 과목과 수업 시수	
평일 수업	'한문Ⅰ' : 15시간 (2학년) '한문Ⅱ' : 6시간 (3학년) 총 21시간	⇒	평일 수업	'한문Ⅰ' : 15시간 (2학년) '한문Ⅱ' : 6시간 (3학년) '한의학 한문' : 5시간 (3학년) 총 26시간
공동 교육 과정	생활과 한문(1학기) 한의학 한문(1학기) 고전의 지혜(2학기)		공동 교육 과정	생활과 한문(1학기) 고전의 지혜(2학기)

2021년 평일 수업의 한문 과목 시수가 21시간에서 2022년 26시간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고등학교는 보통 교사당 평균적으로 14~16시간의 수업을 한다. 한문 과목 시수가 21시간일 경우 2명의 한문 교사가 있는 J고에서는 1명당 평균 시수가 10.5시간밖에 안 된다. 적은 평균 시수 때문에 힘들게 늘려 놓은 한문 교사 2명 자리가 다시 한문 교사 1명으로 감축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인근 학교에서 힘들게 한문 시수를 늘려 2명의 한문 교사 자리를 만들었는데, 2년이 되지 못해 한문 과목 시수 부족으로 다시 1명으로 감축된 사례가 있었다.

한문 과목 신설을 통해 위의 표처럼 2022년 한문 수업을 26시간으로 늘리면 1명당

13시간의 평균 시수를 확보할 수 있어 2명의 한문 교사 자리 유지가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한의학 한문'을 2단위로 잡아 10시간으로 만들면 한문 관련 과목이 총 31시간이 되기 때문에 한문 교사 2명 자리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거기에 다른 학교에 없는 '한의학 한문'이라는 과목으로 과목 활동 기록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 보건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물론 한문 과목의 시수가 늘어난다고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가르칠 과목이 늘어나 한문 교사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한문 과목의 존재 위기까지 고민해야 하는 요즘, 교육과정 측면에서 시도할 수 있는 한문 과목 위상 확보의 현실적인 대안 방안이 아닐까 한다.

마치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1년 차 때, 고교학점제에 관한 교원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었다. 고교학점제에 관한 교원들의 동의와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었을 것이고, 교사의 성향 차이에 따른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2년 운영하고 느낀 점은 과목별로 고교학점제의 학생 선택권을 받아들이는 방향과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탐구 과목군의 교사들은 수능 탐구 과목 응시에서 이미 과목 선택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학교에서도 학생에게 과목 선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연한 사고를 보인다.

주관적 관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에 가장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과목(군)이 수학이 아닌가 싶다.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이미 해야 할 수학 과목과 하지 않아도 될 과목에 대한 경계가 암묵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고, 대학 진학과 진로 설정에서 차지하는 수학 과목의 위상이 높아서 굳이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에 크게 관심이 없는 탓도 있을 것 같다.

안타깝게도 한문 과목은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을 설명하고 홍보하기도 전에 이미 개설 가능한 과목이 '한문I'⁴⁴⁾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 제2외국어 과목들과 선택군으로 묶이게 되는 경우, 인성과 가치관 등의 추상적인 명분을 주장하는 것 외에 한문 과목이 다른 제2외국어들보다 더 필요한 과목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인터넷 등의 검색 도구 발달로 방 한구석에 놔두고 펼쳐보지 않는 옥편처럼 이제 한문 과목도 다시 펼칠 수 없는 교육이 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에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한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2017년 이후처럼 한문 교원 수가 줄고 한문 과목의 위상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래 사회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사회에 적용하기 어려운 학습 내용, 한자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세대의 증가, 1964년 이전 베이비 붐 세대의 한문 교사들의 대거 퇴직 후 한문 교과 교사 대신 정보와

44) '한문II'는 과목 위계상 '한문I'을 이수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문 과목은 과목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없다고 볼 수 있다.

교양 관련 과목 교사를 선발하려는 추세, 진로와 관련 있는 과목을 선호하는 학생들, 한문 과목의 진로 연계 범위가 인문 관련 학과에 치우쳐 있는 점,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전환 후 탐구 과목 대체가 불가해지는 상황, 집중 이수 확대⁴⁵⁾ 등 한문 과목의 위축 요인은 셀 수 없이 많다.

그 변화의 물결이 마치 기존에 없던 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던 갑오개혁 시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한문 교과도 이제 인성과 가치관 교육 등에 중요한 과목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학습 수요자에게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행 한문, 미디어 한문, 메디컬 한문, 첨단 기술과 한문, 환경과 한문, 정치와 한문, 경제와 한문, 세계 문화유산과 한문, 연극 한문, 역사 한문, 중국 문화 한문, 일본 문화 한문, 슬기로운 한문 생활 등등 과목 이름에서부터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교육부 고시 과목들만으로 학습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고시 외 과목(또는 학교장 자율 과목) 신설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 이전처럼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한문Ⅰ', '한문Ⅱ' 라는 획일적인 과목 개설로는 아무리 특색 있는 수업을 운영한다고 해도 학생의 선택을 받기에 한계가 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별, 교사별, 학생별 맞춤형 한문 교과 신설을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한문 과목의 위축과 위상 저하에 대한 개별적인 염려보다 한문 관련 교육인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실제적인 대안 실행이 필요하다.

참고로 신설된 한문 과목을 올해 실제로 수업해 본 후 신설 과목 수업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연수도 추진 중이다. 단순히 과목 신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목 신설 → 신설 과목 개설과 수업 운영 노하우 축적 → 노하우 전달 연수 → 한문 교사 역량 제고 → 과목 확산 및 네트워크 활성화까지 한문 교육 발전 방안을 추진 중이다. J고에 재직하시는 한문 수석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변화하는 교육과정, 한문 수업 노하우, 평가 관련 등 한문 교육 발전 이끌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 한문 교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가 개설될 예정이다. 과목 신설을 통한 한문 교육의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이 부분의 진행 상황 역시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45)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에 중점을 둔다. 한문을 비롯한 생활·교양(군)의 과목들은 대거 집중 이수의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데, 집중 이수의 경우 수업 시수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면 1·2학기 한문Ⅰ 2단위(일주일 2시간씩)로 1년 동안 총 4단위의 수업을 하던 상황이 집중 이수제가 되면 한 학기만 3단위 수업으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4단위에서 3단위로 한문 과목 시수가 줄어든다. 모자라는 1단위 수업 시수로 학교에서 교양 과목 수업 지원, 순회 교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 1·2학기 8개 반 2단위 수업으로 1년 동안 매주 16시간을 확보하던 수업이 집중 이수제로 1학기 1~4반 3단위(일주일 12시간 수업), 2학기 5~8반 3단위(일주일 12시간 수업)로 변경, 일주일 16시간에서 12시간으로 시수 감소 후 나머지 3~4시간은 교양 과목 수업, 또는 타 학교 순회로 보충. 최악의 경우, 다른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묶여 선택 인원이 4개 학급 이하로 편성될 경우, 수업 시수가 더 줄어들 수 있음. 위의 예시는 학교 상황과 수업 학년, 학급에 따라 변동 폭이 크므로 참고만 할 것.

漢文科에서 학생 스스로 質問하고 探究하는 學習은 가능한가?

공민정(두루중학교)

<次例>

- | |
|-------------------------------------|
| I. 온택트 시대에 요구되는 학교 교육 |
| II. 온택트 시대로의 變化와 현행 한문 교과서 補完 方向 |
| III. 온택트 시대에 활용 가능한 한문 교과서 示範 單元 具案 |
| IV. 온택트 시대에 함께 고민해야 할 것들 |

I. 온택트 시대에 요구되는 학교 교육

“6월 모의평가, 줄어든 중위권...‘원격수업 교육격차’ 사실로46) -한겨레 신문기사-”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시행한지 일 년 정도 되어가는 이 시점에 학력 양극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등교수업의 리듬이 깨지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생을 제외한 다수의 학생들은 성적 저하, 학습 무력감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재의 학습 격차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때문만일까?

두발 자전거를 못 타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못 탄다’는 기준이 ‘자전거 페달에 두 발을 올려놓고 균형을 아예 잡지 못한다’, ‘자전거 페달에 두발을 올려놓고 균형을 잡을 수는 있으나 페달을 돌리면 넘어진다’, ‘평지에서 자전거 페달에 두발을 올려놓고 균형을 잡아 페달을 돌려 앞으로 나갈 수는 있으나 내리막길에서는 운행을 못한다’ 등과 같이 다양하다. 더 나아가 ‘두발 자전거는 쉽게 탈 수 있으니 외발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못 탄다’의 기준은 여러 가지이고 심화 단계를 배우고자 할 수도 있으므로, 자전거 타는 방법을 단계별·수준별로 제시해준다면 학생 주도적으로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우게 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원격수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일차적인 학습 격차 문제 발생 원인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데 필요한 원격수업 관련 다양한 학습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해서 학습 격차의 심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학습 격차의 심화 문제는 학습 콘텐츠 부족이 아니라 디지털 랜선을 타고 엄청난 양과 빠른 속도로 쏟아져 오는 학습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즉 학생이 어떻게 스스로 배워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학습 격차가 심화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비접촉의 ‘언택트(Untact)’를 넘어 온라인

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06752\(2020.7.28.\)](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06752(2020.7.28.))

을 통해 외부와 소통하는 ‘온택트(On tact)’ 시대를 맞은 이 시점에 절실히 필요한 학교 교육은 학생 주도적으로 지식을 내면화하게 하는 훈련 혹은 연습이다. 지식을 내면화한다는 것은 학생 스스로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시대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인 요구에 의한 비대면 수업의 확대와 이로 인한 학습 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의 사고력과 탐구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 연구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 심화를 줄일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형 중학교 한문 교과서를 구안하여 온택트 시대에 필요한 능동적인 학습을 복돋을 수 있는 학습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구안한 중학교 한문 교과서는 학습의 근간이 되는 사고력과 탐구력 중심의 활동과 지식 체득의 과정을 터득하게 하는 질문이 중심이다. 이를 통해 한문 학습의 본질을 회복하고 자기 주도적인 한문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학습 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혹은 보충·심화 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代案을 摸索하고자 한다.

II. 온택트 시대로의 變化와 현행 한문 교과서 補完 方向

우리나라의 중등학교의 한문 교과서는 한문 지식, 한자 및 어휘를 습득하여 한문 문장(글)을 독해하고 이를 이해하고 감상하여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수업 시간에 한자 및 어휘, 한문 지식과 관련한 연습문제를 푸는 것은 한문 독해 능력을 신장하고 학습한 내용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단계별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문 학습 과정 중심의 교과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문 교과서의 지식 구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학습 개념을 어떻게 제시해야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한문을 학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제시해야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의 흥미, 관심,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반영한 한문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까?

단순히 기능을 익히고 가치와 태도 습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미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주고, 다양한 사례와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하게 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길러줄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경험 혹은 실생활과 연계하여 한문 독해와 관련한 개념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학습한 내용에 대해 정의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하는 한문 교과서가 필요한데 여전히 학생의 흥미 반영과 수준을 고려한 교과서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연구자는 온택트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적합한 중학교 한문 교과서를 구안해보기 위해 온택트 시대로의 변화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 교과서 관련 연구 사례를 분석하여 온택트 시

대에 적합한 자기 주도 학습형 중학교 한문 교과서 개발 방향을 탐색해 보겠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오드리 아줄레(Audrey Azoulay)는 2020년 3월 25일 기준 전 세계 14억 명의 학습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교 조치로 새로운 학습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⁴⁷⁾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에도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美名 아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문명 교체로 혁명적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었고 인류의 생활 공간은 빠르게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 가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나오기 前만 해도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에 익숙했기에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必需가 되었다.

신유진, 김금란(2020)⁴⁸⁾은 교육의 주 수요자인 청소년과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매체인 유튜브가 최근 교육 분야에서 그 위상을 드러내고 있고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 플랫폼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유튜브는 누구나 무료로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공부’가 가능한 다양한 교육 동영상이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일명 ‘썸튜브’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만큼 새로운 교육 매체로서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한문 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 주도적으로 보충·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한문 교과서에 유튜브 활용 학습활동을 具現할 필요가 있다.

강승한(2020)⁴⁹⁾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학생들은 지식을 수동적으로 전달받는 피교육자의 역할이 아니라 학습한 지식을 스스로 조합하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주체라 하였다. 따라서 수업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 과정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주어진 자료들을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업 전에 학생들은 각자 학습 자료를 통해 관련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이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강화하고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질문과 토론, 발표가 가능하게 하려면 워크북⁵⁰⁾ 형태의 한문 교과서 모습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示唆 받을 수 있다.

손민성, 임미자, 박경환(2021)⁵¹⁾은 온라인 교육이 급부상하면서 교육 형태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 중 유튜브의 순위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교육 소비자들이 소통이 가능한 채널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기존의 과제

47) [유네스코 사무총장 메시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노력 <https://www.unesco.or.kr/news/latest/view/28/page/20?>

48) 신유진, 김금란(2020), 「언택트 시대의 유튜브 활용 교육에 관한 연구-메이크업 국가자격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Vol. 18. No. 12, pp.81-86.

49) 강승한(2020), 「언택트에 따른 대학의 비대면 학습을 위한 참여적 커뮤니케이션 방안 연구-네트워크 사회론을 통해 본 미네르바 스쿨-」, 예술과 미디어학회, 『예술과 미디어』 Vol. 19. No. 2, pp.11-36.

50) 손진안(2009), 「중학교 교과서 <생활중국어 니하오>의 워크북 개발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용으로 제작되는 활동 자료집으로서 다양한 참고자료를 수록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조작 활동을 하거나 학습 결과를 기록할 수 있고 학습 내용의 보충이나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통칭한다.

51) 손민성, 임미자, 박경환(2021),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 분석: COVID-19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Vol. 19. No. 1, pp.29-43.

수행 또는 콘텐츠 제공의 일방향 중심의 수업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방적인 강의 전달방식, 단일한 수업 태도 등을 지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문 교과서도 원격교육기반 토론 및 소통, 협업 등과 같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 학습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 교과서는 온택트 시대에 따른 온라인 수업에 활용하는데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앞으로 한문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검토해보기 위해 관련 연구 사례를 살펴보겠다.

김성중(2020)⁵²⁾은 2015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2000. 12. 30. 교육부 제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한자(이하 초과자로 약칭)의 실태를 조사하여 언어학인 측면에서 초과자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한문 교과서 집필자들이 성취기준 도달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글감이어도 초과자가 많으면 교과서 제재로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의 대안이다. 그렇다 보니 출판사는 相異하지만 교과서에 실린 한문 제재는 大同小異하여 특색있는 한문 수업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을 할 경우 학생들이 자유자재로 인터넷을 활용해 초과자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한문 교과서의 글감을 좀 더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학생이 초과자를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로 대체해 보게 하는 수업도 構想해 볼만 하다.

이군선(2019)⁵³⁾은 현행 교과서가 대체로 원문-풀이-문법-어휘와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글 전체를 가르치기 부적합하고 학생의 흥미를 끌기도 쉽지 않다고 하면서 새로운 교과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온택트 시대인 지금, 현행 한문 교과서 체제와 구성은 교사 위주의 강의식 수업에 적합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학생의 학습 동기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이에 신습한자를 매 소단원마다 제시하지 말고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표를 따로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 본문 학습에 필요한 한자의 훈음을 찾게 하고, 길이가 긴 문장의 경우 앞뒤로 내용을 요약해 문장 내용 전체를 알 수 있도록 본문을 제시하자는 代案은 오프라인 수업 보다는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에 신경 써야 하는 온라인 수업을 대비한 한문 교과서 구안에 참고할만하다.

연구자는 2018년에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한문교과형 주제 선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문 교과서 이외의 여러 短文, 漢詩, 散文을 스스로 독해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게 하였다. 이 수업은 한문 학습을 심화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어 다양한 한문 학습 자료가 필요했다. 이에 연구자(2019)⁵⁴⁾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한문 학습 자료를 스스로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52) 김성중(2020), 「한문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 초과자 처리에 대한 일고」, 한국한문교육학회, 『한문교육연구』 54호, pp.177-196.

53) 이군선(2019), 「한문과 교과서 방향 탐색」,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한자한문교육』 제47집, pp.41-58.

54) 공민정(2019), 「중학생 대상 多讀 가능한 한문 교과서 구안 방안」,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한자한문교육』 제47집, pp.59-78.

읽도록 하는 한문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한자·한자 어휘·문법 지식 등의 한문 독해를 위한 기초 지식 영역과 중학교 한문교육용 한자 900자를 담고 있는 글감을 모은 영역으로 구성된 교재를 구안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문 관련 글감은 한문 교과서에서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한문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온라인 한문 수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생 주도적으로 한문 관련한 다양한 학습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스스로 시도해 볼 수 있는 학습활동을 구체적인 試演 방법 안내와 함께 한문 교과서에서 적극적으로 案内할 필요가 있다.

윤지훈(2016)⁵⁵⁾은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가 사고력 신장을 위한 방향으로 편찬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질문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좋은 질문이란 답은 열려 있되 질문의 의도가 쉽게 이해되어야 하고, 학습 후에도 학생들의 기억에 오래 남으며, 학생 스스로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요구하는 질문과 성찰적 질문이다. 또한, 자기 주도 학습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한 사고력 신장도 강조하였는데 이는 교과서에 단순히 지식만 제공하지 말고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찾고 구성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계발하고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학생 주도적으로 학습 내용을 자기화하고 이를 다른 내용과의 연결로 유도하는 질문을 한문 교과서에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질문은 학생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능동적으로 학습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 및 자료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므로 사고력 신장을 위한 질문이 있는 한문 교과서 구성에 참고할만하다.

앞서 온택트 시대로의 변화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현행 한문 교과서에서의 보완할 점,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의 부작용을 경험한 우리는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온택트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고 이 같은 온택트 시대에 온라인 소통에 이미 익숙한 학생들이 스스로 한문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게 하려면 유튜브와 같은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여 한문을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문 교과서, 학생 주도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강화하고 활발한 질문과 토론, 발표를 가능하게 하는 한문 교과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 학습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한문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온택트 시대에 한문 수업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어떤 인재를 키우는데 重點을 두어야 하는지 등의 고민을 담아 자기 주도 학습형 중학교 한문 교과서를 시범적으로 구안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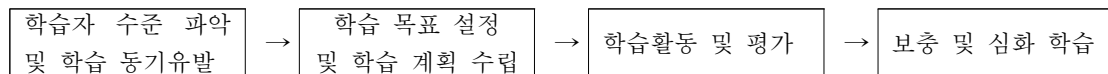
III. 온택트 시대에 활용 가능한 한문 교과서 示範 單元 具案

55) 윤지훈(2016),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한문 교과서 개발 방안」, 한국한문교육학회, 『한문교육연구』 47호, pp.99-123.

연구자는 박소영 외(2013)⁵⁶⁾에서 제안한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교과서의 의미와 일반 모형을 살펴보고 일반 모형을 토대로 중학교 한문 교과에 적합한 자기 주도 학습형 중학교 한문 교과서 모형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며 탐구 학습이 가능한 중학교 한문 교과서 단원을 구안하고자 한다. 또한,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중학교 자유학년(기)제 혹은 중학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교과수업에 적합한 단원을 차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박소영 외(2013, pp33-34)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원리가 반영된 교과서의 구현 방향은 첫째,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주는 교과서, 둘째,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야 할 방법을 알려주는 교과서, 셋째, 학습하고 싶은 내적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교과서, 넷째,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교과서이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교과서 모형에서의 학습 단계별 정의는 4가지⁵⁷⁾로, ①자기 관찰 및 점검 단계, ②목표 설정 및 수립 단계, ③전략 수행 및 모니터링 단계, ④전략적 결과물 모니터링 단계이다. 이 연구에서는 박소영 외(2013)에서 제시한 교과서 구현 방향과 학습 단계별 정의를 활용하여 중학교 한문 수업에 적합한 모형을 재구성하였다.

<표1> 자기 주도 학습형 한문 교과서 모형 구안



<표1>에서 ‘학습자 수준 과목 및 학습 동기유발 단계’는 학생 스스로 학습 목표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거나 학습할 내용을 추측해 보고 관련 내용을 찾아 보면서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는 유인 질문⁵⁸⁾을 한다. ‘학습 목표 설정 및 학습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이 파악한 학습 목표에 대한 안내 질문⁵⁹⁾을 하고 학

56) 박소영·김혜숙·남창우·윤지훈·이동엽(2013),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교과서 일반 모형 개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연구보고 CRT 2013-5

57) 박소영·김혜숙·남창우·윤지훈·이동엽(2013),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교과서 일반 모형 개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연구보고 CRT 2013-5, p.38.

①자기 관찰 및 점검 단계: 학습자 자신의 이전 학습 경험을 점검해 보고 형식적 혹은 비형식적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 문제를 정의하고 관찰해보는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

②목표 설정 및 수립 단계: 학습자가 자신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

③전략 수행 및 모니터링 단계: 학습자가 스스로 수립한 학습 전략을 진행하고 그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

④전략적 결과물 모니터링 단계: 학습자가 자신의 수행을 되돌아보며 스스로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어떻게 완성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자신이 만든 각종 자료, 성찰일지, 체크리스트 등 학습 결과물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

58) 유인 질문은 새로운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인하는 질문으로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질문 혹은 토론으로 이어지게 한다.

59) 안내 질문은 학습 주제와 내용에 대한 탐구를 독려하기 위한 질문으로 성취해야 하는 지식과 기능을 안내한다.

생은 교사의 안내 질문을 토대로 자기 주도적 학습 계획과 전략을 세운다. ‘학습활동 및 평가’에서 교사는 학생 스스로 탐구 학습할 수 있도록 핵심 질문⁶⁰⁾을 하고 학생은 자신의 학습활동을 점검하고 성찰한다. ‘보충 및 심화 학습 단계’에서는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학습한 내용을 심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한다.

연구자는 <표1>을 토대로 다음 <표2>와 같이 자기 주도 학습형 한문 교과서 단위 체제 및 요소를 구성해보았다.

<표2> 자기 주도 학습형 한문 교과서 단위 체제 및 요소

대단원															
자기 점검 및 동기유발								학습 계획							
↓															
소단원				소단원				소단원				소단원			
동기유발	학습계획	학습수행	결과성찰	동기유발	학습계획	학습수행	결과성찰	동기유발	학습계획	학습수행	결과성찰	동기유발	학습계획	학습수행	결과성찰
↓															
대단원															
결과 성찰															

한문 교과서는 대단원-소단원 체제가 일반적이데, 대단원은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개념-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소단원은 대단원의 내용과 관련한 한문 지식, 어휘, 성어, 단문, 한시, 산문을 요소로 한다.

연구자는 기존의 한문 교과서 대단원은 대단원의 설정의 이유, 소단원에서 다루는 성취 기준, 소단원 내용 요약 정도 제시되어 있어 학생 스스로가 질문하고 탐구 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학생들이 ‘대단원-자기 점검 및 동기유발’ 요소를 통해 각 소단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이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면서 앞으로 배울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배울 내용과 관련 있는 자료를 검색해보게 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소단원 학습을 최종 마무리하는 부분이 ‘대단원-결과 성찰’ 요소로 소단원을 총망라하는 평가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 보완해야 할 부분과 심화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지속적인 학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현행 한문 교과서를 보면 소단원에 동기유발-본문-어휘 및 문법-평가-읽기 자

60) 핵심 질문은 지속적인 사고와 탐구를 자극하는 질문으로 해당 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 제기와 토론으로 이어지게 한다.

료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교과서는 지면 제한이 있고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과 지켜야 할 指針이 있으므로 기존의 교과서 체제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표현 방식을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질문 위주로 학생들이 빈 곳을 스스로 채울 수 있게 바꾸면 어떨까 한다.

‘동기유발’ 요소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습 목표를 유추해볼 수 있도록 교사가 유도 질문을 하거나 학습 목표와 관련한 상황을 제시하고 앞으로 학습할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서 학습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학습 계획’ 요소는 학생이 동기유발 요소를 통해 학습할 내용을 스스로 추측, 탐색해 본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 자기 주도적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학습 수행’은 학생 스스로 본문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학생의 사고력과 탐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본문 제시와 수행과제를 함께 제시해주는 것이다. ‘결과 성찰’은 학생 스스로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형성평가 문항을 제공하거나 확장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융합과제를 제시해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제공된 과제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보충·심화 학습을 계획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표2>를 토대로 ‘漢詩’ 대단원과 이에 따른 소단원 ‘與隋將于仲文詩’를 시범적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대단원은 학생에게 학습할 내용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왜 배우는지, 학생의 지식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질문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학습할 내용에 대한 관심과 주도적인 학습 참여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진로와 연계하고, 자신만의 학습 계획을 세워보는 코너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단원 마무리에서는 한시를 내면화할 수 있는 실생활 연계 혹은 진로 연계 과제형 활동을 제시하였다.

【대단원명】 : 과거와 현재를 잇는 漢詩

【자기 점검 및 동기유발】

- 漢詩를 왜 배울까요?
- 漢詩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 漢詩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 漢詩를 감상해본 경험이 있나요?
- 감상해본 漢詩를 간략하게 소개해줄 수 있나요?

【활용 tip】

다음과 같이 교과서 하단 부분에 안내한다. 질문형식으로 제시된 【자기 점검 및 동기유발】을 활용한 ‘오(五)자 인터뷰 활동’이다. 교사가 다섯 글자로 질문하면 학생도 다섯 글자로 대답하는 활동으로, 학생은 자기 생각을 다섯 글자로 줄여 신중하게 대답한다.

(예) (교사) 한시 왜 배워? - (학생) 정서적 안정, 감정의 이해

(교사) 한시가 뭐야? - (학생) 한자로 쓴 시, 어려운 노래

(교사) 한시 모양은? - (학생) 잘 모르겠어, 본 적 없어요, 짧은 글짓기

(교사) 감상해봤어? - (학생) 생애 최초야, 너무 어려워, 기억이 안나

(교사) 소개 가능해? - (학생) 최치원의 시, 검색 가능해

【자기 점검 및 동기유발】

옛사람들의 삶과 정서가 녹아 있는 漢詩, 한 편의 노래와 같은 한시가 지닌 맛과 멋을 이해하고 우리의 감정과 상상력을 대중들과 공유할 수는 없을까? ㉠ 우리의 전통을 멋지게 현대화하여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리고 ㉡ 과거와 현재를 잇는 架橋 역할을 하는 문화 콘텐츠 기획자,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 전문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예) ㉠ 우리의 전통을 멋지게 현대화하여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

- 전통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발전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vGhyMjCC5GM>(9분 38초)

- 이날치의 힙한 편곡 VS 조상현 명창의 전통 판소리 비교

<https://www.youtube.com/watch?v=hcxniRqF2XY>

㉡ 과거와 현재를 잇는 架橋 역할을 하는 문화콘텐츠 기획자,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 전문가가 하는 일은?

- 전통문화 콘텐츠 기획자가 하는 일

-문화콘텐츠로 만들어 낼 주제를 찾아내고 다양한 문화 자료를 조사하여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드라마, 영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웹툰, 공연, 축제, 테마파크 등의 형태로 콘텐츠를 떠올리고 실제로 만드는 일을 한다.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 전문가가 하는 일

-영상, 음향, 디자인 등 사람의 시각과 청각으로 느낄 수 있는 멀티미디어들을 편집, 수정, 제작한다.

- 단원의 성취 기준 및 교과역량

1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2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3 한시 학습을 통해 심미적 감성과 창의적 사고 능력을 키운다.

【학습 계획】

- 다음의 핵심 단어를 활용하여 아는 것은 탐구, 모르는 것은 검색하여 나만의 漢詩 학습 계획을 세워보자.

#古體詩

#近體詩

#絶句

#律詩

#韻字

#詩想 展開 方式

【대단원 마무리】

- 실생활과 연계한 문제 해결 혹은 진로 연계 프로젝트 과제 활동을 하게 한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그 영상'의 주인공, 지금 가장 핫한 얼터너티브 팝 밴드 '이날치' 영상은 현재 3억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들의 음악에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에 춤을 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걸까? 이날치가 탄생시킨 21세기 수궁가. 이번엔 우리가 21세기 여수장우중문시를 만들어볼까?

(참고) SBS 스페셜(2020.11.24.) <https://www.youtube.com/watch?v=YTjGlotBz4o>

(예) 이날치밴드의 '범 내려온다'를 패러디한 '적 물려든다'

적 물려든다, 적이 물려든다

청청강 깊은 골로 적의 군사가 깔려든다

곳은 얼룩덜룩, 이성온 잔뜩 헤집어지고

적군 머리 흔들려

적장 이성 흐트러

쏟아지는 물, 비명에

양 귀 찢어질 듯

붉은색과 푸른색이 섞여들며 쇠냄새 비명과 활활 과르르 불려나가

아군 한 명이 외친다 이겼다 함성 소리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툭 울리는 때

홀로 울지운덕 군심 아니하였는데

함성 피어났다, 함성 피어났다

대단원을 통해 학생들은 앞으로 학습할 내용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보고, 단원의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후 소단원을 통해 본격적인 한시 학습을 시작하게 된다. 소단원은 학습으로의 轉移를 일으키는 동기유발과 학생 주도적인 소단원 학습 계획 그리고 습득해야 할 핵심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학습 수행, 형성평가 혹은 수행평가를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평가하는 결과 성찰로 구성한다.

연구자는 학습 내용과 주제와의 연계성 혹은 특성을 고려한 스토리텔링 방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한시 학습의 가치를 인식하고 흥미를 높이고자 질문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직접 답을 찾아 정리하도록 하였다. 물론 내용의 산만함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단원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동기유발 질문에 답을 검색하면서 을지문덕의 여수장우중문시를 보게 되고 이번 소단원에서 학습할 漢詩가 오언고시와 관련됨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 후 소단원 학습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이는 자기관리 기법의 일종으로 학생이 스스로 새롭게 습득해야 할 행동을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 행동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자기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단원명】 : 수나라 장수 우중문은 보아라!

【동기유발】 61)

다음은 최유청이 晩年에 양주(楊州)에 隱居 생활을 하면서 지은 「잡흥(雜興)」 9수 가운데 1수를 번역한 것이다. 최유청은 이 시를 왜 지었을까?

봄풀이 어느새 푸르니	春草忽已綠
온 동산에 나비가 날아다니네	滿園胡蝶飛
잠든 사이에 동풍이 슬쩍 불어	東風欺人睡
평상 위의 옷자락 펄럭이게 하네	吹起床上衣
잠이 깨니 고요해 일이 없는데	覺來寂無事
숲 저쪽에 저녁 별 쏟아지네	林外射落暉
난간에 기대어 탄식하려 했더니	倚檻欲嘆息
고요히 이미 세상만사 잊었네	靜然已忘機

이와 같은 ❶오언고시는 언제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을까? ❷우리나라 최초의 오언고시는 무엇일까? ❸당시 사람들이 이처럼 오언시를 지어 부른 까닭은 무엇일까?

【학습 계획】

• 다음 핵심 단어를 참고하여 與隋將于仲文詩 학습 계획을 세워보자.

#오언고시 #고구려 詩歌 #삼국사기 #살수대첩

기존 교과서에서의 본문 형식을 변형하여 먼저 학생 스스로 단계별 탐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질문의 답을 생각하면서 본문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기존의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이미 학습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다 주기 때문에 학습 흥미를 반감시킨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문에 학습 내용을 요약해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사고를 촉진 시킬 수 있도록 워크북 형태로 제시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물론 교과서 날개 부분에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할 수 있다. 이 날개 부분의 일부를 활용해 학습자가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도 좋다.

본문 학습과 관련한 볼거리 혹은 생각거리를 그림과 글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QR 코드 형식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확장적인 탐구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단원 학습 내용과 일상생활을 연계하거나 타 교과와의 융합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여 한문 학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61)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에 답을 찾아 정리한다.

- ❶ 중국 후한 말(後漢末)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고시십구수(古詩十九首)」를 시초로 한다.
- ❷ 신라 진덕여왕이 당나라 고종(高宗)에게 화친책의 일환으로 보낸 「치당태평송(致唐太平頌)」이 최초의 것으로 알려져 왔다.
- ❸ 5언체는 가창을 하기에 쉬웠으며, 복잡한 사물, 감정 등을 간단하게 표현해 낼 수 있는 운문체로, 4언체의 평범하고 단조로운 것과 조사체의 번거로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

【학습 수행】

※ 다음 질문에 유의하여 본문 학습을 해보자.

- 시를 풀이하는데 뜻과 음을 찾아본 한자는?
- 풀이가 되지 않거나 어색한 구절은?
- 매끄럽게 풀이하는 데 방해 요소는 무엇이었나?
- 을지문덕은 이 시를 왜 썼을까?
- 이 시를 받은 우중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일까?

▶날개 부분

▶궁금한 점

與隋將于仲文詩 □□□□□□□ : _____

神策究天文 □□□□□ : _____이요,

妙算窮地理 □□□□□ : _____라.

戰勝功既高 □□□□□ : _____하니,

知足願云止 □□□□□ : _____라.

▶알게 된 점

▶기억할 점

【불거리 & 생각거리】

문학 시리즈 우표를 왜 발행하는 걸까?

발행된 문학 시리즈 우표를 검색해보고 어떤 문학 작품들이
우표에 실려있는지, 아직 우표로 안 나왔지만 나왔으면 하는
작품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결과 성찰은 주제 중심 통합형 형성평가 혹은 수행과제를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적용력을 키우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형성평가는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수행평가는 단원의 내용에 관한 조작 및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보다는 하나의 수행활동으로 소단원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결과 성찰】

여러분은 차세대 랩 스타를 꿈꾸는 중등 래퍼이다. 이번 랩 배틀 주제는 교과서 속 한시의 주인공이 되어 랩을 써 보는 것이다. ‘여수장우중문시’ 속 주인공이 되어 랩을 써 보자. 네 구의 랩을 준비하되, 짝수 구 끝자리에는 중성과 종성이 같은 한자를 써 압운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IV. 온택트 시대에 함께 고민해야 할 것들

오프라인 중심 교육이 비대면 온라인 중심 교육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漢文科는 무엇을 準備해야할까? 이 연구는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온택트 시대에 학생들을 자기 주도적인 한문 학습자로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학습전략을 한문 교

과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해보기 위해 계획되었다. 자기 주도 학습은 온택트 이전에도 강조되었지만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서는 학습 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요소 주목하고 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이 시점에 기존의 한문 교과서만 가지고 한문 수업을 하는 것은 白墨 한 자루만 가지고 태블릿PC에 판서하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온택트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중등학교 수업의 비대면 원격수업으로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사고력과 탐구력,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혁신적인 학습 방법을 수업으로 구현하여 학습 격차를 줄이고 진정한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탈피해야 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를 찾아 배움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 필요하다.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전통적인 직업 概念이 달라져 한 사람이 직업을 서너 번 바꿀 수 있다면서 自己啓發이 중요하다고 言及했다. 이에 연구자는 여기서의 ‘자기계발’이 학교 교육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같은 수업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은 수업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교과서의 변화에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학생의 자기계발을 위해 한문 교과서는 무엇을 志向해야 하는지 몇 가지 提言을 하며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소셜미디어는 단순히 콘텐츠를 보고 듣고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새로운 무언가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한문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중고등학생은 MZ세대⁶²⁾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협력하고 공유하는 것이 일상적이므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소셜미디어 활용 학습활동 혹은 과제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습의 공간이 폐쇄적이 아니라 늘 열려 있는 온라인 공간으로 확대되었음을 認知하고 학생들이 온라인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 정보를 스스로 조합하고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볼 수 있게 하는 질문이 있는 한문 교과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나 사고 작용을 이끄는 체계적인 한문과 핵심 질문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한문 수업이 일방적인 지식 전달 과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문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한문 지식을 습득하면서 자신의 관심 분야와 연결해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타 교과 혹은 타 영역으로의 융합·확장 가능한 학습 요소들을 탐색하여 한문 교과서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62)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온택트 시대의 새로운 한문교과서 구성을 위한 제재 선정 방안과 실제 적용

정효영(등촌중)

별지

토론문

「서사 장면의 스냅 기록, 조선 의궤의 내러티브」의 토론문

李東宰(공주대학교)

지금까지 한문학 연구에서 큰 관심이 없었던 의궤를 한문학의 범주에서 조명한 이의강 교수님의 「서사 장면의 스냅 기록, 조선 의궤의 내러티브」 연구는 한문학 연구 범위의 확대와 의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분야에 문외한인 저에게 많은 지식을 주신 것과 옥고를 준비하시고 발표를 해 주신 이의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한 문외한으로서 두서없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궤는 행사의 진행과정을 그림으로 제작한 것으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사진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궤에 그림 외에도 간접자료(왕조실록 기록)가 아닌 한문학의 범주에서 속하는 문자 기록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둘째, 이교수님께서 수 많은 의궤 가운데 《進爵儀軌附編》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고,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한 대강의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의궤는 일종의 행사 진행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그 목적은 행사의 기록뿐만 아니라 다음 행사에 다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같은 성격의 행사라도 진행상, 내용상의 차이점이 혹 있는지요? 있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넷째, 呈才에 활용된 연주음악의 제목을 보면 樂府와 관련이 매우 많은 듯합니다. 혹 가락이 동일한 점이 같고 가사는 차이가 있는지요?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효명세자가 지은 노랫말은 한문학의 고유 연구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혹 이 의궤 말고 다른 의궤에도 창작한 노랫말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토론자가 淺學菲才하여 토론이 거칩니다. 惠諒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바느질의 전통과 미학 : 누비 바느질에 관하여」의 토론문

유선희(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복식과학학과 교수,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전승교육사)

별지

「우리 민족의 젓대 소리-한문 문헌 속의 大笊」의 토론문

최 식(성균관대)

“선인들이 생산하고 전승하여 한문 고전에 기록된 인문 문화 분야 유무형 유산 가운데, 세계적 가치를 지녀 대중과 미래 세대에 소개할 만한 지식콘텐츠를 발굴하고 조직하여 활용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2021년 한국한문교육학회가 기획한 학술대회는 ‘교재 개발을 위한 고전 속 한류 기반 한문 교육콘텐츠의 발굴 및 활용’입니다. 이는 한문 문헌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관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내용이고 새로운 형태의 접근이자 시도입니다.

또한 양원석 선생님의 ‘우리 민족의 젓대 소리-한문 문헌 속의 大笊’을 발표문을 읽으며, 토론자는 그동안 간과한 내용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기회였습니다. 다만 토론자는 國樂과 大笊에 門外漢이라, 발표문을 잘못 이해하고 愚問하더라도 발표자께서 賢答을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 주제 ‘교재 개발을 위한 고전 속 한류 기반 한문 교육콘텐츠의 발굴 및 활용’과 발표문 ‘우리 민족의 젓대 소리-한문 문헌 속의 大笊’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자도 “한문 문헌 속의 대금 관련 기록 검토를 목적으로 삼았지만 더 많은 문헌을 더 넓게 섭렵하지 못하였다는 한계, 그리고 대금 관련 기록을 문화콘텐츠로 구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고심처를 드러내고 있듯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소 모호합니다. 이는 국악 또는 대금과 관련한 한문 교재를 전제한 상황에서 한문 교육콘텐츠의 발굴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국악의 ‘대금’을 “왜” 한문 교육콘텐츠로 구성하고 활용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발표자의 고견을 청합니다.

2. 발표문에는 대금의 명칭, 대금의 상징, 대금의 기록까지 대금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탐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금의 상징으로 거론한 ‘萬波停息, 表正萬方, 堯天舜日’은 조선시대 의례에 등장하는 萬波停息之曲, 表正萬方之曲, 堯天舜日之曲으로, 대금을 포함한 형태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대금의 상징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표자의 현답을 부탁드립니다.

3. 가령 萬波息笛과 관련한 콘텐츠에 국한하더라도, 『新增東國輿地勝覽』뿐 아니라 조선 후기 ‘海東樂府’에 관련 자료가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만파식적과 관련한 ‘교육콘텐츠의 발굴과 활용’에 용이한 측면이 보입니다. 발표자는 만파식적에 한정하지 않고 대금으로 내용과 의미를 확장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대금 관련 기록을 문화콘텐츠로 구성하고 활용하는 방안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선의 의학교과서 『신편의학정전』의 체계와 판본 연구」의 토론문

신요한(공주대)

정경훈 선생님의 옥고를 통해 醫書에 대하여 공부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선 의서를 소재로 하여 板本을 고찰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간행된 시기와 간행된 장소 등이 다른 자료들을 서로 비교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지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편의학정전』의 체계와 판본에 대하여 연구하고 발표하신 것은 앞으로 『신편의학정전』이나 『의학정전』을 주제로하는 다음 연구에 큰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발표문을 읽고 『의학정전』의 판본의 다양함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서의 서지학적 연구는 그다지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의학고전DB’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 텍스트 중심의 자료를 구축하여 의서의 판본과 계통, 유통, 정본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발표자가 언급했듯이 원전 오류조차도 수정할 수준의 교감학이 발달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조선의 대표 의학교과서인 『의학정전』의 판본과 정본 문제를 제기한 발표자에게 노고의 말씀을 전하고 어리석은 질문 몇 가지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발표문 제목에서는 『신편의학정전』이라는 서명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에 들어가서는 『의학정전』, 『신편의학정전』 두가지 서명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에서 간행된 판본과 조선에서 간행된 판본 비교, ‘表題名’과 ‘卷首題’ 등을 염두에 두시고 이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자료를 지칭하기 위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관찬본 『의학정전』이 발표문에서 정확한 내용으로 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학정전』의 내용을 교감한 국내의 기존 연구가 있는지, 아니면 과거 실록이나 기타 서적에 그러한 언급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학정전』과 같은 의학 교과서가 통일되지 않은 서명으로 계속 관찬으로 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이 남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한의학계에서는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혹시 발표자께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 질문은 『의학정전』에 국한된 질문은 아니지만, 발표문에서 언급하신 원문 내용의 정확성, 교감과 관련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고문헌 DB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고문헌의 DB 구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고전번역원이나 한국국학진흥원 등에서 고문헌의 DB 구축 사업이 두각을 나타내는데, 구축된 원문 텍스트의 원전에 대한 신뢰도를 연구자

들께서 종종 지적 합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문과 교과서 개발과 적용 논의의 필요성과 과제」의 토론문

김병철(군포고)

별지

「언택트 시대에서 본 현행 교과서 체재와 구성 연구」의 토론문

이군선(원광대)

별지

「온택트 시대를 대비한 고등학교 한문 I의 수업 모형 구안」의 토론문

이성형(공주대)

심규현 선생님의 옥고를 흥미롭게 읽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Covid-19 대유행 이후 펼쳐질 새로운 일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한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교육현장에서 지향해야 될 수업 모형에 대해서 시의성이 높은 주제와 대안을 제시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주지하시듯이 현재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나, 온오프 블랜디드 수업이 주류를 이루는 교육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집중력과 참여도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창의 융합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한문 수업 모형을 구안하고 이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선생님의 옥고는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학교 현장에서 중국어를 담당하시면서도 한문, 음악, 중국어의 공통 주제를 추출하셔서 이를 효과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수업 모형을 구안하셨다는 점에서도 한문교육 연구의 범주를 넓히는데 기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논지에 대체로 동의하기 때문에 옥고를 읽으면서 떠올랐던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면하고자 합니다.

1. 융합 교육의 형태에 대한 질의입니다.

1-1. II장에서 제시하셨듯이 3가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께서는 ‘교과 내 수업형’ 모형을 중심으로 수업 모형을 구안 하셨습니다. 토론자도 교육 현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융합하고자 하는 타 교과의 학습 내용이나 학습 요소에 대해서 추출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옥고를 준비하시면서 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셨거나 유의사항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공적인 융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 논의를 좀 확장해서 옥고가 ‘주제’를 중심으로 모형이 구안되었는데, 이는 ‘교과 연계 수업형’ 모형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학교 활용형’ 모형의 융합 형태와도 밀접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옥고의 내용을 ‘교과 연계 수업형’ 모형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학교 활용형’ 모형으로의

구안할 경우에 각 모형간의 차이점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옥고에서 구안하신 수업 모형의 특징이나 장점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1-3. 선생님께서는 현직에서 중국어를 담당하시는데, 중국어와의 연계는 비교적 적고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어의 ‘해음현상’ 이외에 융합수업을 위해서 연계할 수 있는 학습요소로 고민하셨던 내용이 있으셨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시학습 진행에서 단원지도상 교사 역할과 학생활동에 대한 질의입니다.

2-1. ‘Ⅲ’ 장의 ‘2.전개’에서 ‘맹호연의 「宿業師山房待丁大不至」와 왕유의 「送別」을 해석 없는 학습지로 공유하고, 관련된 「대지의 노래」 가곡 가사만 함께 제시한다.’로 말씀하셨는데, 한시에 대한 해석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학습의 단계로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 방식은 교사가 먼저 한 구절을 풀이한 뒤에 함께 제시된 가곡 가사를 활용하여 이해하거나 풀이하는 방법의 시범설명을 제공하시고,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진행한 뒤에 감상 활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2-2. 도입 단계에서 학생들의 인터넷 채팅 내용을 소개해 주신 것을 보면 실제로 수업에 적용하신 듯합니다. 본시 학습을 진행하신 뒤에 학생들에게 설문이나 인터뷰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혹은 수업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주안점이나 예상되는 유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에 예측되는 유의사항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융합 수업의 평가와 기록에 대한 질의입니다.

‘Ⅳ’ 장에서 향후 과제로 남기신 부분인데, 평가와 생활기록부의 기록에 대한 고려를 여쭙고자 합니다. 옥고를 작성하시면서 여러 교과와 성취기준을 적용하는 융합형 수업에 적용하기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평가’와 ‘기록’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질의를 통해서 혼란만 드린 것 같아 송구할 따름입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택트 시대와 고교학점제를 고려한 자유발행 한문 교과서 개발 방안」의 토론문

양대회(전주영생고등학교)

언택트 시대와 고교학점제를 고려한 자유발행 한문 교과서 개발 방안에 대해 연구 해주신 손형태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선생님과 함께 한문 교과연구 활동을 하다 보니 선생님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이 더 많아 어떻게 토론문을 작성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의 원고를 읽고, 부족한 제가 공감한 내용과 질의할 내용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융합교육, 고교학점제,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의 절대평가 전환 등 다양한 교육이슈가 이제 우리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교육의 화두인 인공지능 융합교육이 부상하고 있는데 한문교육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학생들에게 선택을 받아 교과 시수를 지키고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퇴보할 것인지, 2022학년도 수능에서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의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한문 영역 응시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지 저 또한 많은 의문부호로만 남게 되어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현장은 새로운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출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마냥 웃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한문과인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손형태 선생님의 원고를 읽다 보면 의문부호인 물음표가 총 27번 제시됩니다. 그 내용을 다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진행되어야 할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선택을 무난히 받을 수 있을까? 새로운 한문 과목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나같이 한문 교과의 불확실한 미래의 모습을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 원고를 읽는 동안 마음이 아팠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진 고시 외 과목을 제외하면 NEIS 상에서 한문으로 조회되는 과목들은 교육과정과 성취기준, 그에 해당하는 교과서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개설이 힘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진두지휘하여 생활과 한문, 한의학 한문, 고전의 지혜 총 3과목을 학교장 인정도서로 승인 받

은 것은 한문과 입장에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한문 교과와 발전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1. 학교장 인정 신설 교과를 개설할 때에 교과용 도서 개발의 어려움이 있어 시중 유통 도서를 활용하여 교과서를 등록하는 방법을 소개하셨습니다. 또한, 이미 출판된 도서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출판사 선정 등의 과정이 쉽게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한문 관련 서적은 대부분 교양한문 수준 이상의 대학교재이다 보니 고등학생을 지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자율발행 한문 교과서를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중 유통 도서를 대안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2.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장 신청 인정도서로 개설 승인을 받으려면 심사비를 포함하여 약 500~700여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2020학년도에는 한시적으로 교육청에서 인정 수수료를 면제하여 학교에서는 큰 비용 부담 없이 신설 교과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학년도부터는 개설을 하려면 인정 수수료를 학교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설 교과를 개설하려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 수요를 예상하고 개설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신설 교과 개설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학교 관리자와 동료 교원들의 동의 구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도입하여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과연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한문 교과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지금까지 한문과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교과와 성격과 교육 목표, 내용체계 등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 표기 수단의 하나로 도구적 성격을 강조하였으며,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의 함양, 전통문화 계승과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를 목표로 한문과 교육과정 체계를 유지한 것은 ‘온고지신’이라는 성어로 포장만 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원고에 따르면 학교별, 교사별, 학생별 맞춤형 한문 교과 신설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점이 한 가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교과에서 ‘여행지리’라는 과목이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여행지리’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개설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행지리’가 대박이 났으니 우리도 ‘여행 한문을 만들자!’ 이런 식의 접근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한문과목

체제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교과 내용으로 한문 교과 자체의 체질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 선생님께서 생각해본 교과서 모델이 있으신지요? 궁금합니다.

[별첨]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

(단위: 천원)

한권의 쪽수	인정수수료	
	「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	「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
300이하	5,000	8,000
301 ~ 350이하	5,250	8,500
351 ~ 400이하	5,500	9,000
401 ~ 450이하	5,750	9,500
451 ~ 500이하	6,000	10,000
501 ~ 550이하	6,250	10,500
551 ~ 600이하	6,500	11,000
601이상	6,750	11,500

「漢文科에서 학생 스스로 質問하고 探究하는 學習은 가능한가?」의 토론문

김여명(한국교원대학교)

이번 춘계학술대회 기획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문 교과서 개발과 적용의 지향 및 교재 개발을 위한 한문 교육콘텐츠의 발굴 및 활용’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시대를 맞이하며 현장의 어떤 절실한 요구로 인해 기획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발표자 공민정 선생님은 온택트 시대의 교육격차의 원인을 원격교육 자체가 아닌, 학습 콘텐츠의 미비와 활용에 대한 무지라고 파악,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학생 주도적 지식의 내면화’로 보고, ‘학생 주도적 지식의 내면화’를 위한 구체적 해결 방법으로 ‘자기 주도 학습형 중학교 한문 교과서 구안과 그 활용을 통한 학습 방안의 모색’을 제시하였습니다. 온택트 시대에 적합한 한문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한문 수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소개해주신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발표문을 읽으면서 생긴 궁금한 점을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발표자님께서 학생 주도적으로 지식을 내면화하는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내면화한다는 것은 곧, ‘학생 스스로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한문 교과 지식을 내면화하여 깨달을 수 있는 가치, 발표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한문 교과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 다시 말해 온택트 시대에서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고 내면화하는 데는 교과서 속 ‘한문 교과 지식 습득 과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 자체에 단계별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설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현 교육과정 한문 교과서의 단원 체제나 요소를 봤을 때는 한문과의 단계별 지식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교사가 정해주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발표자님께서 설정하신 자기 주도적 학습형 한문 교과서 단원 체제의 ‘학습수행’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본문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 동안 안내되어야 할 적절한 한문 교과의 단계별 지식이나 학습 절차가 있을까요? 생각하신 한문 학습 내용의 단계별 지식과 학습 절차가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이미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다 주기 때문에 학습 흥미를 반감시킨다’는 내용에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학습 후 확인을 위한 정확한 지식, 또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 제시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식의 나열이 아닌 질문 위주로 스스로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함을 안내하셨는데, 그렇다면 정확한, 혹은 올바른 지식은 어느 정도로, 어디에 제시될 수 있을까요? 워크북 형태의 교과서, 또는 시대를 받

영하여 새롭게 구성될 교과서에서 ‘최소한의 정보’ 만을 제공할 때의 문제점(지필평가의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시 단원의 예시로 비추어 봤을 때, 학습자에게 주어져야 할 최소한의 정보가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온택트 시대에서, 이 발표문은 한문 교과는 물론 타 교과에서도 교사 위주의 체제에 적합한 교과서 구조를 보완하는 데 좋은 방향을 열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기유발 - 학습계획 - 학습수행 - 결과성찰’로 이어지는 자기 주도 학습형 교과서 모형과 대단원에 제시된 학습계획, 대단원의 결과성찰, ‘실생활 · 진로 연계 과제형 활동’의 제시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걸맞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의 경험이나 그 주변의 경험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서는 텍스트 자료를 제시해 주는 그저 보조자료일 뿐, 이를 활용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현 교과서들은 교사는 별도의 학습지를 만들어야 하는 2차 교재 제작 과정을 거치곤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온택트 시대를 대비한 실제 교사의 현장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구상된 이 교과서 개발 연구는 한문과 실제 현장, ‘진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한문 교과서 개발 방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문과에서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학습이 가능한가?’라는 걱정 어린 물음에 대해 ‘당연합니다.’라는 긍정의 답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듯하여 기쁩니다. 발표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론문을 마칩니다.

「온택트 시대의 새로운 한문교과서 구성을 위한 제재 선정 방안과 실제
적용」의 토론문

김은경(성사고)

별지

韓國漢文教育學會

2021年 春季學術大會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과서 개발과
적용의 지향 및 교재 개발을 위한 한문
교육콘텐츠의 발굴 및 활용

발행일: 2021年 4月 10日

발행처: 韓國漢文教育學會

<http://www.hanmunedu.or.kr>
